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민 정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  
재현 제작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봉 이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  
재현 제작 연구

장민정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0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봉 이

# 인 준 서

이봉이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문윤경 인

심사위원 심하진 인

심사위원 구혜자 인

심사위원 김정희 인

심사위원 장민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복식은 착용자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신분형 체제에서는 복식의 신분 상징적인 측면이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복식의 역사는 조선시대까지 우리 고유의 복식과 중국 복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변화되었는데 관복은 조선의 건국을 시작으로 명나라가 쇠망할 때까지 사여되었으며, 명나라 쇠망 후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였다.

왕실 사람들의 복식은 신분을 구별하고 권위(權威)와 위의(威儀)를 표현하며 당대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 중시했던 상징과 문화, 역사적 의미 등이 농축되어 있고, 이러한 왕실 복식 중 최고 신분인 왕과 왕비의 복식은 우리 문화의 가장 정제된 궁중 복식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실 복식 연구의 일환으로 국속화·법제화된 형태로서 비교적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 정리하고, 실물제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의 제작구성방법을 재정립하며, 전체적인 한국의복구성의 기술 축적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적, 복식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문헌과 연구 논문, 박물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복식 유물과 사진, 초상화 등을 참고 자료로 이용하며, 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시대 유물과 초상화·사진 등의 자료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직접적인 연구와 다양한 문헌들을 통한 간접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습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가능한 한 과거 복식을 정확하게 재현한 실물을 제작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말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전반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조선시대 왕·왕비의 복식이 중국 명나라의 사여에 의해 착

용되어진 내용 및 국내에서 제작하게 되면서 국속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와 구성을 정리하고 의미와 특성 등을 알아본다.

둘째, 재현 제작할 복식 선정을 위해 조선시대 왕·왕비의 복식을 문헌 자료 및 유물,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왕·왕비는 복장의 색이나 문양을 구별하여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 왕의 복식은 용도와 형식에 따라 면복(冕服), 조복(朝服), 상복(常服)으로 나누고, 왕비의 복식은 법복(法服), 상복(常服)으로 나누어 복식의 구조, 형태, 특징, 의미 등을 살펴본다.

셋째, 위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의 복식을 재현 제작한다.

재현 제작을 위한 품목은 조선시대 말기 왕의 대례복·조복·상복, 왕비의 법복·상복을 연구자가 바느질법으로 제작 가능한 복식 품목들로 제한하여 재현 제작한다. 유물이 현존하는 경우 유물의 치수를 직접 계측하거나 각 박물관 소장 자료의 계측 치수로 제작한다. 왕의 면복인 구장복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종의 유물을 참고하여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제작한다. 황제의 십이장복은 유물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순종의 사진으로 착용을 확인하고 고종의 구장복 유물을 참고하여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제작한 후 구장복과 실제 비교·분석한다. 왕의 조복은 유물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고종의 초상화와 고종과 순종의 사진을 통해 착용을 확인하고,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 등 문헌에서 왕의 면복과 제도가 동일하나 장문이 없었다는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왕의 상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의 유물을 참고하여 황룡포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의 유물을 참고하여 홍룡포를 제작한다.

왕비의 법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구등적의를 참고하여 적의, 중단, 폐슬, 하피, 대를 각각 제작한다. 왕비의 상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황원삼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홍원삼을 각각 제작한다.

재현 제작할 복식의 옷감은 위에서 제시한 유물 자료를 토대로 재현한 옷감 전문점에서 구입하거나 실제 유물과 같게 주문·제작하고자 하며, 기타 유물의

소재와 색상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구입한다. 준비된 옷감을 필요치수를 기초로 제도한 후 마름질하고, 유물 등의 자료와 동일하게 손바느질 법과 재봉틀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홈질, 반박음질, 수직감침, 공그르기, 말아감침, 상침 등 전통 바느질법으로 재현 제작한 후 완성 작품을 제시한다.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명으로부터의 복식사여와 국속화되며 국내 제작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해 살펴 본 후 실물 제작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의 면복인 구장복 현의는 흑색 순인갑사의 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구, 섯선, 밑단에 너비 8.5cm의 흑색 단을 안으로 들렀고, 같은 소재의 흰색 동정을 달았다. 솔기 바느질은 곱술식으로 접어 박음질하고, 배래는 통솔 바느질 하였다. 중단은 청색 순인이며 홑으로 구성되어, 길이는 현의보다 길고 소매 너비는 현의보다 작게 하였다. 현의와 같이 수구, 섯선, 밑단에 흑색 단을 대었다. 상은 앞 3폭과 뒤 4폭을 만들어 허리말기에 붙였으며, 폐슬은 세로로 긴 사각형으로 단과 비를 대고 위쪽 가장자리에 고리를 달았다. 십이장복은 문헌 기록과 구장복 유물을 참고하여 추정 제작하여 현의와 중단은 구장복과 동일하고 장문만 다르게 나타난다. 상은 구장복 상과 달라 걸안감을 만들어 허리에 연결하였다. 폐슬 제작법은 구장복과 동일하다. 상과 폐슬 역시 장문에서 구장복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조복인 강사포는 현존 유물이 없는 관계로 면복과 동일하나 장문이 없더라는 말에 근거하여 구장복과 동일한 치수, 마름질, 바느질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포는 강라(絳羅)로 만들며 구장복과 다르게 장문이 없으며 끈은 깃이다. 유물이 없으므로 재현 제작 시 구장복의 현의의 치수를 참고하며 깃만 제외하고 마름질 방법과 제작 방법이 동일하다. 중단은 은색 라이며 깃,

도련, 소매 끝에 붉은색 단을 달았으며, 상과 폐슬도 강라로 만들며 구장복의 상과 폐슬 형태가 같아 치수 및 제작 방법이 동일하다.

셋째, 황룡포는 황색 운보문사 단령 겹감과 다홍색 운보문사로 만든 직령 안감으로 마름질하여 겹감과 안감의 솔기를 함께 박아 겹으로 만들었다. 겹고름은 황색과 홍색의 쌍고름이며 동정은 다홍색 은조사를 사용하였다. 오조룡보는 양 어깨와 가슴, 등에 부착되어 있다. 황룡포는 겹감인 홍색 운보문사 단령과 안감인 남색 운보문사 직령이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정은 옥색 숙고사이다. 겹감과 안감을 각각 홀으로 만든 후 징귀 겹으로 만든 형태이며 단을 맞대어 도련과 섯선을 따라 고정하였다.

넷째, 황후의 십이등적의는 적문과 이화문이 수놓아진 청색 문단의 홀이며, 앞면의 좌우가 서로 마주 대하고, 섯의 적문이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을 향한다. 깃 부분과 도련, 수구는 9.5cm의 홍색 단에 직금운용문(織金雲龍文)이 둘러져 있으며 사이에 화염문(火焰文)이 장식되어 있다. 안단선은 무늬가 없는 홍색명주로 대어 주었고 도련에는 가선이 없다. 중단은 은색의 무문견으로 홀으로 만들며, 깃, 도련, 소매 끝에는 8.5cm의 홍색 단을 두르는데, 도련에는 거죽에만 둘러있다. 폐슬 유물은 사각형이며 청색 원단에 홍색 단을 둘러었다. 하피는 자색 무문단에 연분홍색 주로 된 안을 넣어 만들었다. 구등적의의 형태와 마름질, 제작방법은 도련단을 두르는 방법을 제외하고 십이등적의와 같으며 크기가 다르고, 섯과 길의 적문이 마주 향하는 점이 달라 직조된 천의 방향을 주의하여 섯을 단다. 십이등적의는 도련에서 거죽에만 단을 대는데, 구등적의는 겹과 안 모두 단을 대었다.

다섯째, 황원삼은 황색 겹감에 남색 단을 대며, 안감은 홍색으로 색동선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에 남색 단을 둘러 주었다. 단은 안감의 도

련에도 대어주었으며, 배래는 4겹으로 바느질되어 있다. 겹으로 구성되었지만 겹과 안을 따로 바느질 하였으며, 깃은 겹깃의 경우 직금단을 이용하여 배자형 맞깃을 겹으로 달고, 안깃은 안감과 동일한 소재로 목판깃을 달았으며, 안감과 같은 옷감의 흰색 동정을 달았다. 여밈은 단추로 앞길 중앙의 보 바로 위에 달았다. 겹감 안에 안감을 끼운 후 도련은 공그르기, 배래는 징귀 고정하였다. 홍원삼의 제작방법은 황원삼과 동일하나 단을 두른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황원삼과 달리 홍원삼은 안감과 겹감 모두 단을 두른 것이 아니라 안감 쪽에만 단을 둘렀다. 또한 여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황원삼이 단추를 이용해 앞을 여몄던 반면 홍원삼은 견사를 꼬아 만든 보 끈을 양 쪽에 달아 여민 것이 다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을 재현 제작함으로써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의 제작구성방법을 정리하고 익힐 수 있었으며, 구조적인 형태와 함께 보다 정확히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한국의복구성의 기술 축적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심층적인 과거 복식 문화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초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와 미래 패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복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고유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한국 복식사 및 한국의복구성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복식사와 구성을 필수적으로 겸비하여 복식의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장식까지 복식 생산 전 분야에 종사자들에게 패션 디자인의 영감의 출처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많은 품목의 시대 복식에 대한 연구와 재현 연구를 통해 미래 한국복식뿐만 아니라 현대 복식에의 응용을 통해 새로운 패션 모드 창조에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 방법 및 내용 .....	3
II. 이론적 배경 .....	6
1. 조선시대 사회·문화적 배경 .....	6
2.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의 사여복식과 제작 .....	20
3.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 및 구성 .....	41
III.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 재현 제작 .....	79
1. 왕의 면복(구장복) .....	81
2. 황제의 면복(십이장복) .....	109
3. 황제의 조복(강사포) .....	116
4. 황제의 상복(황룡포) .....	122
5. 왕의 상복(홍룡포) .....	136
6. 황후의 법복(십이등적의) .....	149
7. 왕비의 법복(구등적의) .....	172
8. 황후의 상복(황룡포) .....	180
9. 왕비의 상복(홍룡포) .....	195
IV. 결론 및 제언 .....	203

## 참고문헌

## ABSTRACT

## 그림 목 차

<그림 1> 태종3년 선조36년간 왕비의 법복 대삼제 .....	28
<그림 2> 「국조오례의서례」 면복제도 .....	35
<그림 3> 「세종실록」 관면도 .....	35
<그림 4> 「대명회전」 황제 곤면제도 .....	35
<그림 5> 「국조오례의서례」 강사포 제도 .....	35
<그림 6> 고종 구장복 앞·뒷모습 .....	49
<그림 7> 「국조오례의서례」 국왕 면복 제도 .....	49
<그림 8> 고종 구장복의 현의와 중단 .....	49
<그림 9> 영친왕 구장복 착용모습 .....	50
<그림 10> 순종 십이장복 착용모습 .....	50
<그림 11> 「국조오례의서례」 관복도설의 왕 조복제도 .....	53
<그림 12> 통천관, 강사포를 착용한 고종황제의 어진 .....	53
<그림 13> 고종과 순종의 조복 착용사진 .....	53
<그림 14> 「국조오례의」 왕의 상복 구성 .....	59
<그림 15> 고종 익선관 앞·뒷모습 .....	59
<그림 16> 태조어진 .....	59
<그림 17> 명태조상 .....	59
<그림 18> 영조어진 .....	59
<그림 19> 영친왕 곤룡포 앞·뒷모습 .....	60
<그림 20> 고종 황룡포와 앞·뒷모습 .....	60
<그림 21> 고종과 왕세자 익선관·곤룡포 착용사진 .....	61
<그림 22> 고종의 곤룡포 착용사진 .....	61
<그림 23> 고종의 가족사진 .....	61
<그림 24> 「대명회전」 적의도 .....	68
<그림 25> 「가례도감의궤」 장렬왕후 적의도상(1638년) .....	68
<그림 26> 순정효황후 십이등적의 앞·뒷모습 .....	68
<그림 27> 순정효황후 십이등적의 중단·보·밑단·폐슬·하피·석·문양 .....	69

<그림 28> 영친왕비 구등적의 앞·뒷모습, 폐슬·하피 .....	70
<그림 29> 영친왕비와 순정효황후 적의 착용사진 .....	71
<그림 30> 노의 형제와 직금 문양 .....	74
<그림 31> 청연군주 노의 복원 .....	74
<그림 32> 장삼 복원 .....	74
<그림 33> 영왕비 대홍원삼 앞·뒷모습, 홍대 .....	77
<그림 34> 순정효황후 황원삼 앞·뒷모습, 보 .....	77
<그림 35> 순정효황후 원삼 착용사진 I .....	78
<그림 36> 순정효황후 원삼 착용사진 II .....	78
<그림 37> 구장복 현의 도식화 .....	83
<그림 38> 구장복 현의 재단도 .....	86
<그림 39> 구장복 현의 재현 작품 (앞) .....	90
<그림 40> 구장복 현의 재현 작품 (뒤) .....	91
<그림 41> 구장복 중단 도식화 .....	92
<그림 42> 구장복 중단 재단도 .....	95
<그림 43> 구장복 중단 재현 작품 .....	99
<그림 44> 구장복 상 도식화 .....	100
<그림 45> 구장복 상 재단도 .....	102
<그림 46> 구장복 상 재현 작품 .....	104
<그림 47> 구장복 폐슬 도식화 .....	105
<그림 48> 구장복 폐슬 재단도 .....	106
<그림 49> 구장복 폐슬 재현 작품 .....	108
<그림 50> 십이장복 현의 재현 작품 (앞) .....	111
<그림 51> 십이장복 현의 재현 작품 (뒤) .....	112
<그림 52> 십이장복 중단 재현 작품 .....	113
<그림 53> 십이장복 상 재현 작품 .....	114
<그림 54> 십이장복 폐슬 재현 작품 .....	115
<그림 55> 강사포 재현 작품 (앞) .....	117
<그림 56> 강사포 재현 작품 (뒤) .....	118
<그림 57> 강사포 중단 재현 작품 .....	119
<그림 58> 강사포 상 재현 작품 .....	120

<그림 59> 강사포 폐슬 재현 작품 .....	121
<그림 60> 황룡포 도식화 .....	123
<그림 61> 황룡포 걸감 재단도 .....	127
<그림 62> 황룡포 안감 재단도 .....	129
<그림 63> 황룡포 재현 작품 (앞) .....	134
<그림 64> 황룡포 재현 작품 (뒤) .....	135
<그림 65> 홍룡포 도식화 .....	137
<그림 66> 홍룡포 걸감 재단도 .....	141
<그림 67> 홍룡포 안감 재단도 .....	143
<그림 68> 홍룡포 재현 작품 (앞) .....	147
<그림 69> 홍룡포 재현 작품 (뒤) .....	148
<그림 70> 십이등적의 도식화 .....	151
<그림 71> 십이등적의 재단도 .....	154
<그림 72> 십이등적의 재현 작품 (앞) .....	158
<그림 73> 십이등적의 재현 작품 (뒤) .....	159
<그림 74> 십이등적의 중단 도식화 .....	160
<그림 75> 십이등적의 중단 재단도 .....	163
<그림 76> 십이등적의 중단 재현 작품 .....	166
<그림 77> 십이등적의 폐슬 도식화 .....	167
<그림 78> 십이등적의 폐슬 재현 작품 .....	169
<그림 79> 십이등적의 하피 도식화 .....	170
<그림 80> 십이등적의 하피 재현 작품 .....	171
<그림 81> 구등적의 재현 작품 (앞) .....	174
<그림 82> 구등적의 재현 작품 (뒤) .....	175
<그림 83> 구등적의 중단 재현 작품 .....	176
<그림 84> 구등적의 폐슬 재현 작품 .....	177
<그림 85> 구등적의 하피 재현 작품 .....	178
<그림 86> 구등적의 대 재현 작품 .....	179
<그림 87> 황원삼 도식화 .....	182
<그림 88> 황원삼 재단도 .....	186
<그림 89> 황원삼 재현 작품 (앞) .....	191

<그림 90> 황원삼 재현 작품 (뒤) .....	192
<그림 91> 황원삼 대대 도식화 .....	193
<그림 92> 황원삼 대대 재현 작품 .....	194
<그림 93> 원삼 보 대는 방법 .....	196
<그림 94> 홍원삼 재현 작품 (앞) .....	198
<그림 95> 홍원삼 재현 작품 (뒤) .....	199
<그림 96> 홍원삼 대대 재현 작품 .....	200

##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 왕의 면복 사여 .....	23
<표 2> 조선시대 왕의 상복 사여 .....	26
<표 3> 조선시대 왕비의 법복 사여 .....	29
<표 4> 조선시대 왕비의 상복 사여 .....	32
<표 5> 조선시대 왕과 왕비 복식 사여 및 제작 .....	40
<표 6> 십이장문(十二章紋)의 종류 .....	47
<표 7> 왕 면복의 구성과 특징 .....	48
<표 8> 왕 조복의 구성과 특징 .....	52
<표 9> 왕 곤룡포의 형태 및 특징 .....	58
<표 10>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 재현 .....	80
<표 11> 구장복 현의 소재 및 치수 .....	84
<표 12> 구장복 중단 소재 및 치수 .....	93
<표 13> 구장복 상 소재 및 치수 .....	100
<표 14> 구장복 폐슬 소재 및 치수 .....	105
<표 15> 황룡포 소재 및 치수 .....	124
<표 16> 홍룡포 소재 및 치수 .....	138
<표 17> 십이등적의 소재 및 치수 .....	152
<표 18> 십이등적의 중단 소재 및 치수 .....	161
<표 19> 십이등적의 폐슬 소재 및 치수 .....	167
<표 20> 십이등적의 하피 소재 및 치수 .....	170
<표 21> 황원삼 소재 및 치수 .....	183
<표 22> 황원삼 대대 소재 및 치수 .....	193
<표 23> 곤룡포, 적의, 원삼의 바느질 방법 특징 .....	202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복식은 당대의 사상과 가치관을 표출하고 있으며, 형태, 색채, 문양, 소재 등의 특징에 따라 착용자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및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복식은 그 민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제도를 형성하므로 의례적인 요소가 생기기도 하며, 이러한 복식제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신분 중심 사회에서는 복식의 신분 상징적인 측면이 어느 시대보다 강하게 드러난다<sup>1)</sup>.

조선시대는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표방함과 동시에 정치적 지도이념으로 삼았으며, 뚜렷한 신분질서를 갖는 사회였다. 조선초기의 외교 관계는 명에 대한 사대와 여진, 왜구에 대한 교린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의 외교형태는 문물 교류의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대교린정책을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하여 펴 갔던 대외관계는 명에게는 사대의 예를 다하면서도 조선의 주체성은 상실하지 않은 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같은 유교 문명국가로서 명에게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조선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거나 왕비를 맞이할 때면 왕복과 왕비복을 명으로부터 사여 받게 되었고,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 이후 중단되었다. 이는 명나라가 멸망하였으나 송명 사상에 의해 청나라를 배척하고 조선이 새로운 관복제도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새로운 왕과 왕비의 관복제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으며, 국속화와 법제화가 확립되어 중국의 복식제와 차별화된 복식으로 발

1) 류정순(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

2) 문공화(2004). 조선시대 단령의 착용규례와 실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2.

전하게 되었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후 독립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여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원구단(圓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연호를 ‘광무(光武)’라 칭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하며 500여 년간 사용해오던 국호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대한제국’이란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은 중국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징표인 동시에 조선이 제후국이 아닌 자주독립국임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국가체제도 황제체제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국가체제의 개편은 왕실복식 제도의 변화도 가져와 왕의 면복제는 황제의 면복제에 맞도록 하였고, 왕비의 적의제 역시 황후의 적의제에 맞도록 적의제도가 도입되어 습용하였다<sup>3)</sup>.

조선시대의 복식은 이처럼 우리 고유의 복식과 중국 복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변화되는 특징을 갖으며, 착용자의 신분, 연령, 성별에 따라서 형태, 색상, 소재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왕실 사람들의 복식은 신분을 구별하고 권위(權威)와 위의(威儀)를 표현하며 당대의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통 사회에서 중시했던 상징과 문화, 역사적 의미 등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왕실의 복식 중 최고의 신분인 왕과 왕비의 복식은 우리 문화의 가장 정제된 궁중 복식문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심층적인 과거 복식 문화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와 미래 패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복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고유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3) 임현주(2011). 조선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 논문, p.2.

조선시대 복식 재현 제작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재선<sup>4)</sup>과 김경미<sup>5)</sup>의 조선시대 왕비 적의에 관한 연구와 재현 제작, 광경희<sup>6)</sup>의 조선시대 후기 궁중 어린이 복식에 관한 연구와 재현 제작, 이성자<sup>7)</sup>의 조선시대 왕비 두식과 관한 연구와 재현 제작 등이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의 복식 전반을 실제로 재현 제작하여 구성법을 제시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복식에 대한 단순한 자료들의 나열이 아닌 실제 제작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 조선시대 왕실 복식 연구의 일환으로 국속화·법제화된 형태로서 비교적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에 대해 정리하고, 실물 제작하여 복식의 제작구성방법을 재정립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한국의복구성의 기술 축적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를 갖는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및 유물, 당시 인물의 초상화 및 사진 자료들을 근거로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을 재현 제작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적, 복식사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관련 문헌과 연구 논문, 박물관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복식 유물과 사진, 초상화 등을 참고 자료를 이용하였다. 박물관에 전시된 조선시대 유물과 초상화·사진 등의 자료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직접적인 연구와 다양한 문헌들을 통한 간접적인 연구

- 
- 4) 이재선(2004), 조선왕비 적의에 관한 연구와 복원제작,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5) 김경미(2011). 조선 말기 적의 일습에 관한 고찰 및 제작,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광경희(2013), 조선시대 후기 궁중 어린이복식에 관한 연구 및 재현 : 영친왕 길가 중 진황자와 구왕자의 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7) 이성자(2004), 조선시대 궁중 두식에 관한 고찰 및 재현 : 영왕비 대수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를 병행하여 습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가능한 한 과거 복식을 정확하게 재현한 실물을 제작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 말기를 포함한 조선시대 전반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조선시대 왕·왕비의 복식이 중국 명나라의 사여에 의해 착용되어진 내용 및 국내에서 제작하게 되면서 국속화되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와 구성을 정리하고 의미와 특성 등을 알아본다.

둘째, 재현 제작할 복식의 선정을 위해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을 문헌 자료 및 유물,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고찰한다. 왕과 왕비는 상황과 역할에 따라 그 복장을 달리하였는데, 특히 복장의 색이나 문양을 구별하여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 왕의 복식은 용도와 형식에 따라 면복(冕服), 조복(朝服), 상복(常服)으로 나누고, 왕비의 복식은 대례복(大禮服), 상복(常服)으로 나누어 복식의 구조, 형태, 특징, 의미 등을 살펴본다.

셋째, 위의 정리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의 복식을 재현 제작한다.

재현 제작을 위한 품목은 조선시대 말기 왕의 대례복·조복·상복, 왕비의 대례복·상복을 연구자가 바느질법으로 제작 가능한 복식 품목들로 제한하여 재현 제작한다. 유물이 현존하는 경우 유물의 치수를 직접 계측하거나 각 박물관 소장 자료의 계측 치수를 토대로 제작한다.

왕의 대례복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종의 구장복 유물을 참고하여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제작한다. 황제의 십이장복은 유물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순종의 사진을 통해 착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종의 구장복 유물을 참고하여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제작하여 구장복과 실제 비교·분석한다. 왕의 조복은 유물이 현존하지는 않으나 고종의 초상화와 고종과 순종의 강사포 입는 사진 등을 통해 착용을 확인하고, 『국조오례의』, 『국조속오례의보』 등의 문헌에서 관복도설과 왕의 대례복과 제도가 동일하나 장문이 없었다는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다. 왕의 상복은 대한제국 성립 이후 고종이 착용하였던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의 유물을 참고하여 황룡포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의 유물을 참고하여 홍룡포를 제작한다.

왕비복의 대례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구등적의를 참고하여 적의, 중단, 폐슬, 하피, 대를 각각 제작한다. 왕비의 상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황원삼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홍원삼을 각각 제작한다.

재현 제작할 복식의 옷감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유물 자료를 토대로 재현한 옷감 전문점에서 구입하거나 실제 유물과 같게 주문·제작하고자 하며, 기타 유물의 소재와 색상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구입한다. 준비된 옷감을 필요치수를 기초로 제도한 후 마름질하고, 유물 등의 자료와 동일하게 손바느질 법과 재봉틀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흠질, 반박음질, 수직감침, 공그르기, 말아감침, 상침 등 전통 바느질 방법으로 재현 제작한 후 완성 작품을 제시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조선시대 사회·문화적 배경

조선왕조(朝鮮王朝)는 고려 말에 급부상된 신흥 세력인 이성계에 의하여 건국되었다. 건국 이래로 사회적사상과 윤리를 기초로써 유교 사상을 그 근본(根本)으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배적 주종관계가 강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집권국가였다. 조선은 왕실(왕족과 외척), 양반, 중인(서얼과 기술자), 평민, 그리고 천민<sup>8)</sup>의 5개의 분리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고려에서 조선왕조로의 교체는 단순한 왕권의 교체나 사회구조의 변혁이 아닌 왕조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문화, 정치, 사상 등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고려 왕조와는 다른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게 되었다.

#### 1) 시기별 특징

조선왕조는 500년 역사와 여러 가지 대내외적 사건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주영·권영숙<sup>9)</sup>, 유송옥(1998)<sup>10)</sup>, 이영아<sup>11)</sup>, 도주연·권영숙<sup>12)</sup>은 복식사적인 특징에 따라 오순덕<sup>13)</sup>은 시기별 재료의 종류에 따라 조운조<sup>14)</sup>는 시기별 음악의 전개양상에 따라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였고, 엄정옥<sup>15)</sup>은 복식사적인 특징에 따라 이희병(2006)<sup>16)</sup>은 정재의 중요한

8) 구남옥(2001), 조선시대 복식 변천에 나타난 동조현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6.

9) 이주영·권영숙(2000), 조선시대 직령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5(-).

10) 유송옥(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p.139.

11) 이영아(2013), 조선시대 여성의 이미지 변화 과정 연구, 동양예술, -(22).

12) 도주연, 권영숙(2001), 조선시대 남자 포제에 나타난 복식이미지: 남자 포제 이미지 구성 요인 및 유행별, 시기별 복식이미지, 의류학회지, 25(-).

13) 오순덕(2010), 우리나라 떡의 재료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조선시대 떡의 종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조운조(2007), 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원구제복원을 상정하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 엄정옥(2011), 조선왕조 친잠의례 복식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환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흥준<sup>17)</sup>, 안휘준<sup>18)</sup>은 미술사적 시기별 특징을 기준으로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김종수(2002)<sup>19)</sup>는 인조반정(仁祖反正:1623)을 기준으로 하고, 장영기<sup>20)</sup>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전기, 후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자들의 기준 중 복식사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 말기의 4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는 명(明)복식 영향기이며, 중기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반포로 백관의 조복·제복·공복·상복의 제(濟)가 완성된 시기이다.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로 의제(衣制)에 관하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 「속대전(續大典)」, 「국혼정례(國婚定例)」 등이 편찬되었으며, 이에 따라 왕세손의 관복이 제정되었고 혼례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말기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승격하면서 전 시기와는 다르게 황제의 복식을 착용한 시기이며, 개화기에 이르면서 복식이 중국과 서양, 우리나라의 고유 복식의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났다.

### (1) 조선시대 초기

초기는 태조(太祖, 1392)부터 성종(成宗, 1492)까지 약 100년간으로, 태조대는 건국세력이 대외정책의 기초를 수립한 시기였다. 대외정책의 기초는 자주성과 국익을 지키는 범위에서 사대를 임하고, 이는 고종의 고토(故土)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21)</sup>. 세종대는 대외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영토를 구축하였으며, 내부로는 경제와 군사의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문화정책은 세종을 시작으로 세조(世祖)와

16) 이희병(2006), 조선시대의 무용사적 시대구분에 관한 고찰, 공연문화연구, 13(-).

17) 유흥준(2013), 유흥준의 한국미술사 강의3, 놀와.

18) 안휘준(1980), 한국회화사, 일지사.

19) 김종수(2002),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 進宴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6(-).

20) 장영기(2012), 조선시대 궁궐 정전, 편전의 기능과 변화,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1) 이규철(2013), 조선초기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

성종을 거쳐 과학, 학문, 음악, 공예 등이 발전하였다. 특히 세종 28년(1446)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로 국자(國字)를 제정하고 보급하였다.

조선 초기는 고려의 관복제도를 이어 받아 명의 영향과 함께 관복제도가 확립되었다<sup>22)</sup>. 태종 3년(1403) 명으로부터 관복을 사여 받은 후, 관복에 대한 청사사(請賜使)와 사은사(謝恩使)가 빈번하였다. 태종대와 세종대가 복식 사여가 가장 많았고<sup>23)</sup>, 인조(仁祖) 3년(1625)을 마지막으로 총 16차례의 사여가 있었다. 명과의 사대관계로 인해 면복은 명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sup>24)</sup>.

태종(太宗) 16년(1416) 정월에 관복색(冠服色)을 설치하여, 그 해 3월 관복 제정을 완성하였는데<sup>25)</sup>, 명제에 비해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의 등제를 따라 제정되었다.<sup>26)</sup> 명의 영향 아래 국속화된 관복제도는 성종 5년(1474)에 완성된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가 있다<sup>27)</sup>.

의례(儀禮)는 태조대에 「경제육전(經濟六典)」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고려의 구제(舊制)를 따른 등록(謄錄)을 주로 한 편찬이었다.<sup>28)</sup> 태종대에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 「대명률(大明律)」의 번역을 비롯하여 「경제육전」, 「속집상절」의 편집 등 예제(禮制)의 정비가 있었다.<sup>29)</sup>

세종 8년(1426) 2월에 백관복의 제도가 완성되었다. 세조 19년(1473)에는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이 의례상정소에서 집필되고, 세종 25년(1443)에는 명 영락 9년에 사여 받은 제도를 근거로 「오례의주(五禮儀注)」판면도가 만들어졌다. 세조대에 「경제속육전」과 「오례의보」를 증보(增補)하여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으로 완성시켰다.<sup>30)</sup>

22) 유희경(1972), 면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면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23) 유희경·김문자(2006),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182.

24) 김명숙(1983), 조선후기 면복의 변천 : 국장도감의례 복완도설을 통한 고찰, 7(-), pp.115-124.

25) 太宗實錄 卷6 3年 11月條.

26)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181.

27) 임명미(1997), 한국의 복식문화Ⅱ, 경춘사, p.181.

28) 임용한(2002), 『經濟六典』의 편찬기구: 檢詳條例司를 중심으로, 23(-), pp.7-9.

29) 임용한(2002), 조선 초기 儀禮詳定所의 운영과 기능, 24(-), pp.92-98.

## (2)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기는 연산군(燕山君, 1495)부터 현종(1863)까지의 약 180년간으로, 연산군, 인종(仁宗), 광해군(光海君)을 제외한 인조(仁祖) 3년(1625)까지 명에서 관복의 사여가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명 복식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민족복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명이 망하고 청이 등장한 후에도 송명사상(崇明思想)으로 청의 고명(誥命)과 친수(親授)를 거부하여 청의 사여복을 습용한 기록이 없다<sup>31)</sup>. 영조(英祖)때 마련된 「국조상례보편」의 면복규정은 「국조오례의서례」와 명의 면복제도를 참작한 것으로, 효종(孝宗) 국장 이후 국속화된 면복제도가 정착되었다<sup>32)</sup>.

선조대에 일어난 임진왜란(壬辰倭亂:1592-1598)과 인조대의 친명배금(親明拜金)정책으로 인한 후금의 반발로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과 병자호란(丙子胡亂:1636-1637)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명으로부터 왕과 왕비의 관복 사여가 중단되는<sup>33)</sup> 등 복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배층과 양반층은 외래복식의 영향을 받았으나, 서민층은 전통복식을 고수하여 복식의 이중구조가 나타났다<sup>34)</sup>. 신분제도에 대한 규제 약화로 복식을 통한 신분 구별 기능도 쇠퇴했으며, 송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이 약화되어 복식에 화려한 장식을 하여 사치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영조대에는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고 유교적 지배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중흥정책을 펼쳤다<sup>35)</sup>.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복식이 독자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sup>36)</sup>, 남녀 편복(便服)의 내·외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특징이

30) 박인수(2001), 조선시대의 규범과 신분제도, 영남법학, 7(1-2), pp.85-88.

31) 유희경, 홍나경(1983), 조선왕조의 왕비법복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7), p.8.

32) 김명숙(1983), 전개서, p.124.

33) 안명숙·김용서(2006), 한국복식사, 예학사, pp.72-73.

34) 박희정·간호섭(2001), 조선시대 궁중가례복식 중 왕비복을 응용한 현대복식DESIGN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디자인과, 디자인포럼 21, 4, pp.149-150.

35) 권오창(1998),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조선복식 개관.(김수정(2008), 조선시대 궁중복식에 나타난 천연염색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청구논문, pp.41-42.의 재인용)

36) 최은수(2004),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71.

다. 남자 복식은 입제(立制)의 확립과 포제(袍制)의 정착을 들 수 있으며, 여자 복식은 여성 자체의 보수성으로 명제(明制)를 배격하였고, 포제는 명제를 받아들였으나 왕비의 법복을 제외하고 노의, 단삼, 배자 등 예복은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 당제(唐制)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속화된 활옷, 원삼, 당의로 집약되었으며, 친의류(襯衣類)는 우리나라의 여자복식에만 있다<sup>37)</sup>.

### (3) 조선시대 후기

후기는 숙종(肅宗, 1676)부터 철종(哲宗, 1863)까지의 약 190년간으로 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문예 부흥기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시기였다<sup>38)</sup>.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복식 문화나 그림, 공예 등이 다양하게 발전하였고, 김홍도(金弘道)나 신윤복(申潤福)과 같은 풍속화가들이 등장하여 그 시대의 생활상과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던 우리 민족만의 고유 복식을 잘 나타내었다. 조선 후기는 양반 중심이었던 전과 달리 서민 중심의 문예가 형성되었고 회화를 통해 복식의 유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특히 여성복식에서 상류층이 기녀복식을 착용하고 등 복식의 신분 구별적 기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다<sup>39)</sup>.

영조(英祖) 20년(1744)에 「국조속오례의」가 편찬되었고, 영조 22년(1746)에는 「경국대전」에 교지(教旨)와 조례(條例)를 보완하고 당시의 관행을 가미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영조 25년(1749)에는 박문수 등에 명하여 「국혼정례」를 편찬하였는데, 이는 혼례의 지출을 절감하도록 하였다<sup>40)</sup> 영조 27년(1751)에는 「국조속오례의보」를 간행하여 왕세손의 관복 등을 설정하였다.<sup>41)</sup> 영조 28년(1752)에 조선 왕실에서 각종의복과 장식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부서인 상의원(尙衣院)에서 편찬된 「상방정례(尙方定例)」는 궁중

37)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경춘사, p.157.

38) 안휘중(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p.301.

39) 김혜영(1997), 기녀복식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여성 복식의 연구, 배제논총, 2(-), p.432.

40) 國婚定例序

41) 國朝續五禮儀補序禮 卷61 古例

복식에 대한 품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sup>42)</sup>.

정조(正祖)는 문물제도의 정비를 완성하고, 규장각(奎章閣)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자를 만드는 등의 문화정치를 추진하였다. 정조 9년(1785)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여 편집한 「대전통편(大典通編)」이 편찬되었고<sup>43)</sup>, 정조 12년(1788)에 오례(五禮)의 연혁을 정리하고 각 의례를 의주(儀註)와 함께 수록한 「춘관통고(春官通考)」를 편찬하였다<sup>44)</sup>. 국가전례서(國家典禮書) 편찬이 조선시대의 주요 시기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법에 준하는 위상을 지닌 조선시대 국가전례의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sup>45)</sup>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사료를 통해 당대 복식문화를 확인 할 수 있다.

#### (4)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 말기는 고종(高宗, 1864)부터 순종(純宗), 1910)까지의 약 100년으로 이 시대의 특징은 서양의 문화가 조선으로 유입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충돌을 일으킨 시기이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고종 3년(1866) 병인양요(丙寅洋擾)와 고종 8년(1871) 신미양요(辛未洋擾)가 발발하였으나 일본의 강압적인 위협으로 고종 13년(1876)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맺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복식에서는 한복과 양복의 혼용이 시작되었다.

고종 34년(1897) 8월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하여 고종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며 연호를 광무(光武)라 개칭하였다. 동시에 고종 황제 등극의(登極儀)에 사용된 관복은 기존에 착용하였던 중국의 친왕례(親王禮)에 준한

---

42) 김소현(2003), 상방정례로 보는 조선왕실의 복식구조 : 착용사례를 중심으로, 복식, 58(3) p.150.

43)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183.

44) 신혜성(2005),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연구 :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2.

45) 송지원(2011), 정조대 의례 정비와 춘관통고 편찬, 규장각, 38(-), p.150.

구장복이 아닌 황제와 동격의 복식인 십이장복을 착용하였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왕실의 예법을 황실의 예법으로 격을 올리기 위한 의례서로 1898년에 「대한예전(大韓禮典)」이 편찬되었는데<sup>46)</sup>, 이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의 복식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sup>47)</sup>.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국조오례의서례」 제식을 사용하여 왕과 왕비의 관복을 제작하였고,<sup>48)</sup> 고종대에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대전회통(大典會通)」이 찬집되었는데, 그 근본은 명의 예제와 「경국대전」에 규제된 바와 동일하였다.<sup>49)</sup>

대한제국은 근세의 개화와 외세의 침투 속에 의해 양복이 들어오고 단발령이 내린 시기였으며, 양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복식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긴 시기였다. 광무 9년(1905)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을 체결한 이후 융희 4년(1910)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왕조의 건국(1392) 이래 27명의 왕과 519년의 역사로 조선시대는 끝나게 되었다<sup>50)</sup>.

## 2) 신분제도에 따른 복식문화

조선의 통치 구조가 상하 신분제도에 기초한 것인 만큼 관제와 형사법제도 신분유지를 위해 생긴 것이며<sup>51)</sup>, 복식도 신분 유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복제(服制)를 통하여 사회기강을 세우고자 하였다<sup>52)</sup>. 「경국대전」, 「국조오례의」와 같은 법규범을 제도화하여 신분 복식의 질서와 명분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신분별 복식의 차이를 더욱 강화시켰고, 복식금제(服飾禁制)를 내려 특정 신분에 한하여 의복이나 색, 장신구, 문양 등을 금하였다<sup>53)</sup>.

46) 大韓禮典 卷之5, 常服 “黃袍黃色”

47) 최연주(2008), 전계서, p.69.

48) 이민주(1999), 조선시대 책례의에 나타난 의식절차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75.

49) 최은수(2004),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4.

50) 유송옥(1998), 전계서, p.142.

51) 이정규(1996), 한국법제사, 국학자료원, p.183.

52) 구남옥(2001), 전계서, p.21

### (1) 조선시대 신분구조와 사상적 배경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유교를 치국의 지도이념으로 내세움으로써, 어느 시대보다도 뚜렷한 유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정치윤리, 정책내용 행동규범에까지 폭 넓은 영향을 미쳤으며, 양반중심의 관료사회로 신분제도(身分制度) 변화가 일어났다<sup>54</sup>. 신분질서는 나름대로 그 사회구조에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조선에 있어서 신분제도는 계획된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었고<sup>55</sup>, 양반관료를 중심으로 그들의 지주적(地主的), 관료적(官僚的)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국왕을 정점(頂點)으로 하는 권력체계를 위하여 만들어졌다<sup>56</sup>.

조선 건국 이후 국가는 국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역체제(國役體制)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역 담당층은 자영농민 이상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양인으로 제한되었고, 국역을 담당할 수 없었던 다수의 농민층은 천민으로 분류되어 양인이나 지배기구로부터 지배받는 것을 허용해주었다<sup>57</sup>. 이처럼 노비계층은 권신들이 자신의 사전(私田)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력을 공급받고, 관청에서도 필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본래의 유교사상에는 천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제도는 유교입국을 내세운 조선에 와서도 실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계속되었고, 오히려 인간은 차등이 있는 존재라는 유교적 사상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sup>58</sup>. 조선 시대 신분의 복식문화는 유교사상과 중앙집권적 사회제도의 발전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

53) 구남옥(2001), 전계서, p.40.

54) 강지수(2013), 조선시대 궁중의례 두식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26.

55) 진희권(2006),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한 일고찰, 경기행정론집 20(-), p.129.

56) 이성무(1976), 조선전기의 신분제도, 동아문화. -(13) , p.176.

57) 김성우(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pp.24-25.

58) 진희권(2006), 전계서, pp.129-141.

발전하였다.

조선시대 초기 사회신분 편제에 대해서는 양분설과 4분설<sup>59)</sup>의 두 가지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4분설(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기초 위에 왕족을 포함시켜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왕족은 왕권을 유지시키는 바탕으로써, 군왕을 중심으로 왕비와 군, 공주 등의 친족과 종친, 외척, 근친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종친부, 의빈부, 돈령부에 속해 있어 재산권과 형사책임 등에서 양반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sup>60)</sup>. 양반은 절대적인 신분인 왕실계급 이외에 조선의 사회를 움직여 나간 지배적인 사회계층으로 문반과 무반을 포함한 계층을 의미한다. 조선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여 나간 계층이 바로 이들이었던 까닭에 조선을 양반사회라고도 하였다. 사회적 신분으로 양반이 직업으로 택할 수 있는 것은 관리가 되는 길뿐이며 세습되는 신분이다<sup>61)</sup>. 또한, 각종 국역을 면제받았으며, 생산에 종사하지는 않았다. 즉, 양반은 상위 사회계층으로서 권력을 가지는 정치 관료이자 유학(儒學)을 업(業)으로 하는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었다<sup>62)</sup>. 조선시대 신분계층의 특이한 점은 중인(中人)이라고 불리는 계급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계층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신분으로써<sup>63)</sup> 각종 기술관과 행정 말단의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양반의 첩의 자식인 서얼을 합하여 ‘중서’<sup>64)</sup>라고도 하였다. 중인은 그 직업의 특성상 직역이 세습되었고 양반사대부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 백성이라 불리는 상민은 일반서민으로 양인이라고도 불리며, 농사, 수공업, 상업 등의 일을 하였고 조세·공납·부역의 의무

59)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25-조선초가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pp.48-51.

60) 박인수(2001), 전계서, p.89.

61) 구남옥(2000), 전계서, pp.16-17.

62) 백영자·최해울(2004), 한국복식의 역사, 경춘사, p.178.

63) 구남옥(2001), 전계서, p.17.

64) 신순자(2002), 조선왕조시대의 여자 복식 중 궁중예복에 관한 고찰, 경원전문대학, 24(27), pp.150-151.

가 있었다. 천민은 최하계급층으로 천대를 받았고 대부분 노비로 구성되었다. 재산의 하나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이 가능하였고<sup>65)</sup>, 부모가 노비일 경우 자식도 대대로 노비가 되었으며, 백정이나 종과 같은 험한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은 신분구성은 지배층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신분간의 구분을 제도적 장치와 사회관행을 통하여 더욱 뚜렷이 하고자 하였다.<sup>66)</sup> 따라서 이는 각 신분에 따른 복식 규제와 관료적 한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 (2) 신분제도와 복식의 관계

신분제도가 뚜렷하면 복식에 계층분화나 상하관계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도 뚜렷한 신분제도로 인해 왕족과 궁중복식 내의 관품별 차별, 중인의 한품서용(限品敍用)에 따른 복식규제, 상민과 천민의 직물의 종류나 색깔, 문양 등의 복식착용 제한 같은 것들이 보였다.

법전과 예전에서는 왕에서 중인까지 신분계급과 의식에 따라 자세하고 치밀하게 복식을 정하였으나, 서민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sup>67)</sup>. 이렇게 신분제도는 각 계층별 복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왕은 대례복(大禮服)·면복(冕服)과 조복(朝服), 상복(常服), 평상복으로 구분되었고, 왕비는 대례복과 상복, 소례복(小禮服) 등으로 나뉘어, 상황과 역할에 따라 그 복장을 달리하여 왕족의 역할과 존엄성을 표시하였다. 반면, 양반은 비단 저고리와 바지, 도포, 두루마기 등을 입었고, 상민은 무명바지나 저고리를 주로 입는 등의 계층별 복식의 차이점을 보였다.<sup>68)</sup>

복식도 신분상의 위계질서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신분의 상하와 존

65) 이성무(2006), 조선시대 신분구성과 그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39(-), p.194.

66) 박진훈(2005),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94-95, p.324.

67) 류희경 외(2001), 전계서, p.55.

68) 이미연(2007), 영화의상에 나타난 미적 상징에 관한 연구, 환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7.

비귀천(尊卑貴賤)을 나타냈는데 신분유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하여 엄격하게 복제(服制)를 규정하여 사회기강을 세우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례법을 통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 복제를 정하였으며 단속법을 세워 복식의 사치와 풍기문란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sup>69)</sup>. 이와 같은 복식의 신분계층의 구분은 복식의 계층 분화를 야기하였고, 양반의식과 왕조적인 상하 질서의식은 그것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sup>70)</sup> 조선시대의 국왕과 양반은 양반지주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창출<sup>71)</sup>하는 데에 서로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양반관료사회를 기반으로 세워진 조선왕권의 확립을 위해서였다. 즉, 왕족과 양반의 계층을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내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계층으로부터 양반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인은 한품서용의 규제와 등급에 맞는 복식규제를 받았으며, 상민은 유교적 신분사회제도로 직물의 종류와 색깔, 문양 등과 복식 착용에 규제가 있었다. 천민의 경우에는 의복이나 주거에 대하여 다른 신분계급에 비해 엄격한 제제와 처벌을 가하였다.

조선왕조의 신분사회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예전(禮典)이었으나, 신분적 차별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법전이었다.

1543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예전 금제 조(條)에서는 ‘사리능단의 사용을 논하지 않으며, 당상관 외에는 대홍의를 내공(內拱)까지 금하고, 유생과 공상, 여자 모두 자색 의를 금한다.’하여 신분의 등위를 가리기 위한 신분적 복식규제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의장(儀章), 관(冠), 복(服), 대(帶), 홀(笏), 패옥(佩玉), 버선, 화, 규 등을 품계(品階)에 따라 모두 차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sup>72)</sup> 복식규정의 기본원칙은 관품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었는데 관인과 일반인을 나누고, 관인 내부에서는 관료 제도를 반영

69) 구남옥(2001), 전계서, p.21.

70) 황의숙 외(2010),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pp.119-120.

71) 이성무(2006), 전계서, p.185.

72) 박인수(2001), 전계서, p.92.

하여 정 3품 당상관 이상, 정3품에서 중6품, 7품에서 9품까지로 구별하였다. 의복에 대한 규정은 면복(冕服), 조복(朝服), 상복(常服) 등의 용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뉘었으며 면복과 조복은 품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를 놓았다.<sup>73)</sup>

더불어, 조선시대는 유교체제 하에서 남녀유별(男女有別)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남자는 밖이고 여자는 안이라는 내외법 사상이 복식에 반영되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담해 남자 복식은 외의가 발전하고, 여자는 접촉을 삼가는 것이 예의로 정숙성을 강요받고 가부장적 윤리 덕목을 지켜<sup>74)</sup> 내외법이 강화되며 쓰개치마와 장옷 등과 같은 의복이 나타났다.

### (3)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변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신분변화는 전체적으로 중간계층으로의 상향이동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두 양란 이후 균역 충당을 위하여 역의 의무가 없었던 천민 층을 포함시키고, ‘공사역의 균일화’를 통해 노비와 양인의 신분경계가 없어졌다.

두 차례의 전쟁 후 정치적 추세 및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분계층의 변화가 나타났다.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부유한 일부의 자작종들과 경제력을 가진 중인 계층에서 납속이나 공명첩, 또는 모칭유학(冒稱幼學), 족보를 위조하거나 향안(鄉案)에 오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양반신분으로 올라갔다.<sup>75)</sup> 따라서 양인과 노비층의 신분상승 및 그 혼효(混淆)현상이 있었으며, 중인과 서얼(庶孽)층의 사회세력화 현상, 양반의 대량증가 현상, 양반층 가운데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sup>76)</sup>. 즉, 신분과 계급이 일치하던 것에서 신분과 계급이 괴리되기 시작한

73) 한국고문서학회(2006),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pp.81-82.

74) 구남옥(2001), 전계서, pp.25-26.

75) 구남옥(2001), 전계서, p.18.

76) 김혜영(1997), 전계서, p.430.

것이다.<sup>77)</sup> 이것은 새로운 사회 세력의 성장을 의미하며, 이러한 신분 변화는 임진·병자 양란 이후에 시작되어 영조 이후에 빠르게 전개되었고, 중인 계급이 관리의 시복색(時服色)인 홍색을 사용하는 등 상향성이 복식에 나타났다.<sup>78)</sup>

이처럼 봉건적 신분제도가 변화되고 신분의 구별이 점차 없어지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곳곳에서 분출되기 시작하였고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과시욕이 여러 제반사회현상과 맞물려 복식에 대한 사치로 이어졌다.<sup>79)</sup>

돈이 많은 양인들은 화려한 비단옷을 착용하였고 조정 인사들은 거마 장식을 과시하였는데<sup>80)</sup>, 이는 신분사회의 해체 속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분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복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746년 「속대전(續大典)」의 금제에는 사치를 막기 위해 수입품과 사치물품을 규제하였는데, ‘위로는 궁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閭閻)에 이르기까지 장복, 용복 외에 토산이 아닌 것은 입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족 부녀의 복착은 그 남편의 작품(爵品)에 의하고 신부 외에는 대단(大緞), 금수(錦繡), 봉채(鳳釵), 금옥채(金玉釵), 주전(珠鈿), 가환(假鬢) 등을 쓰는 것을 모두 금한다<sup>81)</sup>.’ 고 하였다.

조선왕조는 ‘복식규제’를 통하여 신분계층에 따른 기강확립과 무절제한 동경에 대한 풍속교화, 사치풍조에 대한 검약정신을 함양하고자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금압하였지만, 이는 더 이상 규제에 의하여 억압 되지 못하였다.<sup>82)</sup>

---

77) 조유희(2009), 조선 후기 실학자의 음악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67.

78) 황의숙 외(2010), 전계서, pp.119-120.

79) 김현진(2003),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복식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8.

80) 「五祖實錄」, 4年 10月 癸亥.

81) 이민주(2004), 전계서, pp.63-64.

82) 김필동(1999), 차별과 연대-조선사회 신분과 조직, 문학과 지성사, pp.83-85.

조선과 같은 봉건국가에서는 복식 자체가 파급성을 띠며, 신분 계층적, 사치 규제적, 사대적 측면에서 복식금제가 내려졌는데 유교사상 하에서 복식 금제는 금, 은, 직물, 복색, 가체에 대한 금제가 있으며, 상하, 존비귀천의 이중구조에 따라 강제성을 갖는 복식금제로 나타났다<sup>83)</sup>. 이처럼 복식은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으며 그 시대의 분위기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 「국조오례의」, 「속대전」, 「대전후속록」 등과 같은 법전과 예전의 복식규제를 바탕으로 신분별 복식의 구분이 뚜렷이 나타났고, 그중에서 특히 왕족의 복식을 포함한 궁중복식의 규제는 왕족의 존엄성과 가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더 엄격하였다. 이러한 상하 계급적 제도 아래서 왕족의 복식은 화려한 복식문화를 완성하였다.

---

83) 도주연, 권영숙(2000),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미, 복식문화연구, 27(-), p.518.

## 2.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의 사여 복식과 제작

### 1) 중국으로부터의 사여

한(漢) 이후 중국으로부터 복식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 중기 이후부터이며 삼국시대는 북방 유목민족의 복식문화에 중국문화의 영향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여러 국가들이 서로 연관되어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복식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다<sup>84)</sup>, 우리의 복식이 중국과의 이 중구조를 갖게 된 것은 통일신라시대 제28대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추가 당에 청병(請兵)하러 가서 당 태종(唐太宗)에게 중국의 제도에 따라 장복(章服)의 개혁을 청하여 사여를 받고 돌아오면서부터였다<sup>85)</sup>.

고려시대는 송(宋), 거란(契丹), 요(遼), 금(金)에서 의복사여를 받아 복식 제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려 말 공민왕이 명 태조에게 면복과 조복을 사여 받은 후 왕비의 관복과 백관복도 받게 되어 복제가 명과 같아지게 되었다<sup>86)</sup>.

복식사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왕, 왕비, 왕세자, 백관 등에게 이루어 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면복·조복·상복과 왕비의 법복·상복을 위주로 중국으로부터의 복식사여를 살펴보고, 사여 이후에 조선시대 왕과 왕비 복식의 국내 제작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 (1) 왕 복식의 사여

##### ① 면복

중국의 면복제도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착용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삼국시대에 면복의 착용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sup>87)</sup>, 고려에

84) 전지은, 심화진(2001), 우리 나라 복식과 서역복식간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5(4), p.135.

85) 유희경(1972), 면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면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7.

86) 유희경(1972). 전계서, pp.10-16.

들어와서 태조는 개국 초 신라의 구제(舊制)를 그대로 습용하여 이루어진 청사관복(請賜冠服)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sup>88</sup>). 고려 초기 면복제도는 당(唐)의 「개원례(開元禮)」 제복제도(祭服制度)의 십이장복(十二章服)으로 추측되며 고려시대 면복 사여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高麗史)」의 여복지(輿服志)에 정종(靖宗) 4년(1038) 거란으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sup>89</sup>). 면복이 구장복(九章服)이라는 명칭 아래 수용한 연대는 문종(文宗) 19년(1065) 거란으로부터 구장복과 옥규(玉圭)를 사(賜)하였다는 기록 등이 있다.<sup>90</sup> 공민왕(恭愍王) 19년(1370) 명나라 태조로부터 구류면(九旒冕)과 구장복의 제복(祭服)을 사여 받았다<sup>91</sup>).

조선 건국 후 태조는 고려시대 공민왕 19년(1370) 명(明)이 사여한 구류면·구장복의 면복을 착용하였다.<sup>92</sup> 이는 청사관복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조선왕조에 들어와서 면복은 태종 3년(1403)에 명으로부터 처음 사여되었다<sup>93</sup>). 사여 받은 면복은 조선 초부터 누차 사신을 명에 보내어 관복을 청하여 친왕구장복(親王九章服)을 사여 받은 것이다<sup>94</sup>). 그 품목으로는 향조 추사 구류 평천관(香皂皺紗九旒平天冠), 구장 견지사 곤복(九章絹地紗袞服)이며 그 구성요소는 심청 장화 곤복(深靑粧花袞服), 백소중단(白素中單), 혼색장화 전후상(纈色粧花前後裳), 혼색장화 폐슬(纈色粧花蔽膝), 혼색장화 금수(纈色粧花錦繡), 혼색장화 패대(薰色粧花佩帶), 홍백대대(紅白大帶), 옥규(玉圭), 대홍 소릉면오(大紅素綾緜襖), 대홍소저사식(大紅素紵絲舄)이었다<sup>95</sup>).

87) 三國遺事, 卷之 2 記異 第2

88) 유희경(1972), 전계서, p.10.

89) 世宗實錄, 卷之 105, 26年 閏7月 24日(庚子) ‘...曰 高麗愍王時借用十二章之服物皆用黃色太宗尙未盡革...’

90) 高麗史, 卷之 26, 輿服 冠服條 ‘靖宗九年 十二月 契丹主 賜冠服 九年五月 契丹主 賜冠服圭 ...十九年四月契丹主 賜九旒九章服玉圭...’

91) 高麗史, 卷之 26, 輿服 ‘恭愍王十力年五月 太祖高皇帝賜服圭九寸 冕靑珠九旒...’

92) 임명미(1997), 전계서, p.179.

93) 이민주(1999), 조선시대 책례의에 나타난 의식절차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73.

94) 유희경(1972), 전계서, p.35.

95) 太宗實錄, 卷6, 3年 10月 27日

태종 3년(1403)에 명(明)으로부터 사여 받은 면복은 세종대까지 남아 있어 40년이나 착용되었으며<sup>96)</sup>, 세종 26년(1444)에 사은사(謝恩使) 유수강이 명의 황제로부터 면복을 사여 받아왔는데 사여품목은 태종 3년과 동일하였다<sup>97)</sup>. 문종 즉위년(1450), 단종 즉위년(1452), 세조 2년(1456년), 예종 1년(1496), 성종 1년(1470)의 면복 사여는 태종 3년에 보낸 제도와 동일하다<sup>98)</sup>.

성종 8년(1477), 성종 12년(1481), 중종 3년(1508), 중종 13년(1518)에도 명(明)으로부터 사여가 있었으며 명종 1년(1546), 명종 13년(1558), 선조 1년(1568), 선조 35년(1603), 인조 3년(1625) 사여 제도도 태종 3년에 사여받은 제도와 동일하다<sup>99)</sup>

면복 사여는 3대 태종부터 임진왜란이 있기까지 10대 연산군과 12대 인종을 제외하고 역대왕의 즉위마다 있었으며, 왕의 복식 사여는 인조 3년(1625)까지 총 16회 있었으며 이는 모두 태종 3년과 동일한 제도였다<sup>100)</sup>.

조선시대 왕의 면복 사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

96) 유희경(1972), 전계서, pp.36-37.

97) 世宗實錄 卷103 26年 3月條.

98) 文宗實錄 卷2 卽位年 8月 3日, 端宗實錄 卷3 卽位年 9月 17日, 世祖實錄 卷3 2年 4月 20日. 睿宗實錄 卷3 1年 2月 4日, 成宗實錄 卷5 1年 5月 1日.

99) 유희경·김문자(1981), 전계서, pp.181-182.

100) 박승원(2013), 조선시대 복식유물의 복원과 복제, 동원학술논문집, 14(-), p.514.

<표 1> 조선시대 왕의 면복 사여

왕대별	연대	사여 품목
3대	태종 3년(1403)	
4대	세종 26년 (1444)	
5대	문종 즉위년(1450)	
6대	단종 즉위년(1455)	
7대	세조 2년(1456년)	
8대	예종 1년(1469년)	향조추사 구류 평천관 (香皂皺紗九旒平天冠)
9대	성종 1년(1470년)	심청 장화 곤복(深靑粧花袞服) 백소중단(白素中單)
	성종 8년(1477년)	훈색장화 전후상(纁色粧花前後裳)
	성종 12년(1481)	훈색장화 폐슬(纁色粧花蔽膝) 훈색장화 금수(纁色粧花錦繡) 훈색장화 패대(薰色粧花佩帶)
11대	중종 3년(1508)	홍백대대(紅白大帶)
	중종 13년(1518)	옥규(玉圭)
13대	명종 1년(1546)	대홍소릉면말(大紅素綾絨襪)
	명종 13년(1558)	대홍소저사식(大紅素紵絲烏)
14대	선조 1년(1568)	
	선조 35년(1603)	
16대	인조 3년(1625)	

## ② 조복

고려 초기 왕의 조복 사여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사(高麗史)」 여복지에서 관복을 사여 받은 기록과 요(遼)와, 금(金)에서 원유관과 강사포를 답습(踏襲)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유관과 강사포를 습용(襲用)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sup>101)</sup>. 고려 말기 공민왕 19년에 명(明)으로부터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絲袍)를 사여 받은 기록이 있다.<sup>102)</sup>

조선 건국 후 태종 3년(1403)의 사여 복식에 왕의 관복 중 면복은 있었으나 조복인 원유관, 강사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려 공민왕 19년에 사여 받은 조복을 세종 때까지 착용되었으므로 오래 되어 세종 20년(1438)에 주청(奏請) 하여<sup>103)</sup>, 그 해 10월 원유관과 강사포를 사여 받았다<sup>104)</sup>.

조선시대 면복은 임진왜란 전까지 왕의 즉위 시 의례적으로 사여 받았던 반면에 조복은 주청하여 받았으며, 세종 20년 이후의 조복 사여의 기록은 없다.

## ③ 상복

조선시대 왕의 상복인 곤룡포(袞龍袍)는 왕의 즉위 초에 고명과 더불어 의례적인 행사로 반사(頒賜)되거나 혹은 주청에 의하여 사여된 면복과 달리 의례적으로 사여되는 것이 아니었으며<sup>105)</sup>, 조선시대에 곤룡포나 곤룡포 옷감의 사여는 세종 26년(1444)을 시작으로 명종 10년(1555)까지 총 6차례가 있다.

세종 20년(1438) 명(明)의 배신(陪臣)에게 예를 행하는 일 외에 조회(朝會)를 받을 때나 칙서(勅書)를 영접할 때와 평소 정사(政事)를 볼 때에 입는 관복을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sup>106)</sup>, 세종 26년(1444) 3월에 유수장이 면복

101) 遼 儀衛志

102) 高麗史 卷72 輿服 “恭愍王 十九年 五月 太宗高皇帝 賜遠遊冠 ...”

103) 世宗實錄 卷83 20年 1月 21日.

104) 世宗實錄 卷83 20年 10月 4日

105) 고희립(1990), 조선의 관복-면복에 관한 연구, 지성사, p.150.

과 함께 상복 3습을 사여받아 왔고, 이때 받은 상복은 향조추사 익선관(香皂緞紗翼善冠)와 옥대(玉帶)는 상복이 3습(襲)으로 각각 3건(件)이며, 저사대홍직금 곤룡암 골타운포(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청암화담획(靑暗花搭)·흑록암화 칠릭(黑綠暗花貼裏), 사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청암화담획(靑暗花搭)·앵가록화 칠릭(鶯哥綠花貼裏), 나대홍직금 곤룡포(羅大紅織金袞龍袍)·청소담획(靑素搭)·유청소칠릭(柳靑素貼裏), 조룩비화(皂鹿皮靴) 한 쌍이었다.”<sup>107)</sup>

중종 34년(1539)에는 색상과 무늬는 알 수 없는 용의(龍衣) 한 벌과 채단(綵鍛)·융금(絨綿)의 옷감을 각각 네 필 사여 받았다<sup>108)</sup>. 이 때 곁감과 안감의 옷감으로 사여되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옷이 서로 다르므로 스스로 만들어 입도록 하라는 뜻인 것으로 보았다.<sup>109)</sup> 중종 38년(1543)의 상복 사여는 중종 34년(1539)와 같았다<sup>110)</sup>.

명종대는 상복 일습이 총 3차례 사여되었는데, 명종 2년(1547)은 저사사라(紗羅)로 만든 상복(常服) 각각 1습을 사여 받았다.<sup>111)</sup> 명종 10년(1555) 2월에 저(紵)·사(紗)·나(羅) 상복(常服) 각각 1벌씩 사여받았으며<sup>112)</sup> 그해 6월 저사(紵絲)·사라(紗羅)로 만든 상복(常服) 각 1벌씩 사여받았다<sup>113)</sup>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왕의 상복 사여 기록 및 품목은 <표 2>와 같다.

106) 世宗實錄 卷80 20年 1月 21日.

107) 世宗實錄, 卷103 26年 3月候.

108) 中宗實錄 卷92 34年 10月 9日.

109) 中宗實錄 卷92 34年 11月 1日.

110) 中宗實錄 卷100 38年 6月 10日.

111) 明宗實錄 卷6 2年 10月 3日.

112) 明宗實錄 卷18 10年 2月 9日.

113) 明宗實錄 卷18 10年 6月 16日.

<표 2> 조선시대 왕의 상복 사여

왕대별	연대	사여품목	
		관모	의복
4대	세종 26년(1444)	향조추사 익선관 (香皂皺紗翼 善冠)	저사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 (紵絲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청암화 담화(靑暗花搭襖) 흑록암화 칠릭(黑綠暗花貼裏), 옥대(玉帶)
		향조추사 익선관 (香皂皺紗翼 善冠)	사대홍직금 곤룡암골타운포 (紗大紅織金袞龍暗骨朶雲袍) 청암화 담호(靑暗花搭襖) 앵가록화 칠릭(鶯哥綠花貼裏), 옥대(玉帶)
		향조추사 익선관 (香皂皺紗翼 善冠)	나대홍직금 곤룡포(羅大紅織金袞龍袍) 청소 담호(靑素搭襖) 유청소 칠릭(柳靑素貼裏), 옥대(玉帶)
			조록 피화(皂鹿皮靴) 대홍숙견 관록(大紅熟絹冠) 대홍숙견 단포보(大紅熟絹單包褸) 주홍칠 복갑(硃紅漆服匣)
11대	중종 34년(1539)		곤룡포(袞龍袍) 채단(綵段) 4필, 융금(絨綿) 4필
	중종 38년(1543)		
13대	명종 2년(1547)	익선관 (翼善冠)	저사 곤룡포(紵絲袞龍袍) 옥대(玉帶), 화(靴)
		익선관 (翼善冠)	사라 곤룡포(紗羅袞龍袍) 옥대(玉帶), 화(靴)
	명종 10년(1555.2)		저 곤룡포(紵袞龍袍) 사 곤룡포(絲袞龍袍) 나 곤룡포(羅袞龍袍)
	명종 10년(1555.6)		저사 곤룡포(紵絲袞龍袍) 사라 곤룡포(紗羅袞龍袍)

## (2) 왕비 복식의 사여

### ① 법복

고려시대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왕비복은 홍색이고 회수(繪繡)를 놓았다고 하여 송(宋)의 후부복식(后婦服飾)을 연상하기는 하나 확실하지 않으며<sup>114)</sup>, 고려 공민왕 19년에 명(明)으로부터 최초로 적의를 사여 받은 기록이 있다<sup>115)</sup>.

조선 초기 태종 3년(1404)부터 선조 36년(1603)까지 왕이 즉위할 때마다 면복과 같이 사여되거나 왕비의 책봉 시 고명(誥命)과 같이 왕비의 관복(冠服)이 사여되었는데, 명(明)의 황후복(皇后服)인 대례복 적의가 아닌 중국 군왕비(君王妃) 등급의 대삼제(大衫制)로 사여되었다<sup>116)</sup>. 왕은 친왕의 구류면과 구장복이 사여될 때 왕비는 군왕비의 칠적관(七翟冠)과 대삼이 사여되었으나 선조 36년(1603)에 친왕비의 관제(冠制)와 동일하게 사여되었다<sup>117)</sup>.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관복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태종 3년(1403) 명으로부터 주취 칠적관(珠翠七翟冠), 대홍 소저사 겹대삼(大紅素紵絲夾大衫), 복청 소저사 겹원령(福靑素紵絲夾圓領), 청소저사수 적계 하피(靑素紵絲綖翟雞霞帔), 삽화금추두(鋟花金墜頭)이다<sup>118)</sup>. 문종 즉위년(1450)은 대홍 저사 대삼(大紅紵絲大衫), 복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배자(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褙子),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상아홀(象牙笏), 삽화금추자(鋟花金墜子)이다<sup>119)</sup> 단종 3년(1455)의 사여 물품은 문종 즉위년과 같으며<sup>120)</sup>, 세조 2년(1456)은 대삼, 배자, 하피는 문종 즉위년의 물품과 같으나, 부속품이 상아여홀(象牙女笏), 삽화금타자(鋟花金朶子)인 것이 다르다<sup>121)</sup>

114) 홍나영(1983), 조선왕조의 왕비법복에 관한 연구, 7(-). p.5.

115) 임상임·임영주(1997), 적의에 관한 소고, 원광대학교 논문집, 19(-), p.100.

116) 박성실(1985),翟衣制度의 變遷 研究, 服飾, (9), pp.24~28.

117) 宣祖實錄, 36年 5月 庚申.

118) 太宗實錄 卷6 3年 10月 27日.

119) 文宗實錄 卷2 卽位年 8月 3日.

120) 端宗實錄 卷14 3年 4月 22日.

121) 世祖實錄 卷3 2年 4月 20日

예종 1년(1469)은 주취 칠적관, 대홍소 저사 겹대삼(大紅素紵絲夾大衫), 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겹배자(靑紵絲綵綉圈金翟雞夾背子),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 상아 여홀, 삼화 금추자로 전과 달리 대삼과 배자가 겹으로 바뀌었다<sup>122)</sup>.

성종 1년(1470)부터 중종 3년(1508)까지 예종 1년 사여품목과 동일하였다<sup>123)</sup>. 성종대는 왕비의 관복 사여가 3차례 있었는데, 성종 1년(1470)과는 예종 1년과 사여 품목이 같으며<sup>124)</sup>, 성종 8년(1477)과 성종 12년(1481)의 사여 품목은 예종 1년(1469)의 품목에서 삼화금추자가 삼화금추두인 것만 제외하고 같다<sup>125)</sup> 중종 13년(1518)부터 선조35년(1602)까지 주관(珠冠)·대홍저사 겹대삼, 청저사 채수전 금적계 겹배자, 청선라 채수전 금적계 하피, 금추두, 아홀(牙笏)을 사여 받았으며 선조 36년(1603)에는 주취 칠적관, 상아여홀을 제외하고 금추두가 사여목록에서 빠지며 법복은 동일하게 사여 받았다<sup>126)</sup>.

태종 3년부터 선조 36년까지 200년간 왕비 명조 사여 대삼제(그림 1)는 대개 같았다.



<그림 1> 태종3년-선조36년간 왕비의 법복 대삼제  
(한국의 복식문화Ⅱ, p.352)

명으로부터 15차례 사여 받았고 문종 즉위년에 사여된 제도가 선조까지 계속되었다<sup>127)</sup>. 중국으로부터 왕비 법복 사여 기록은 다음 <표 3>와 같다.

122) 睿宗實錄 卷3 1年 閏 2月 4日.

123) 임명미(1997), 전개서, pp.282-283

124) 成宗實錄 卷5 1年 5月 1日.

125) 成宗實錄 卷76 8年 2月 4日, 成宗實錄 卷129 12年 5月 16日.

126) 임명미(1997), 전개서, p.303.

127) 박성실(1985), 전개서, p.5.

<표 3> 조선시대 왕비의 법복 사여

왕대별	연대	사여품목		
		관모	의복	부속품
3대	태종 3년(1403)	주취 칠적관 (珠翠 七翟冠)	대홍 소저사 겹대삼 (大紅素紵絲夾大衫) 복청 소저사 겹원령 (福靑素紵絲夾圓領) 청소저사수 직계하피 (靑素紵絲綏翟雞霞帔)	삼화금추두 (鈹花金墜頭)
5대	문종 즉위년(1450)	주취 칠적관 (珠翠 七翟冠)	대홍 저사 대삼 (大紅紵絲大衫) 복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배자 (福靑紵絲綵繡圈金翟雞褙子)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 (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상아홀 (象牙笏)
6대	단종 3년(1455)			삼화금추자 (鈹花金墜子)
7대	세조 2년(1456)			상아여홀 (象牙女笏) 삼화금타자 (鈹花金朵子)
8대	예종1년(1469)	주취 칠적관 (珠翠 七翟冠)	대홍 저사 겹대삼 (大紅紵絲夾大衫) 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겹배자 (靑紵絲綵繡圈金翟雞夾褙子)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 (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상아여홀 (象牙女笏), 삼화금추자 (鈹花金墜子)
9대	성종1년(1470)			상아여홀 (象牙女笏) 삼화금추두 (鈹花金墜頭)
	성종 8년(1477) 성종 12년(1481)			
11대	중종 3년(1508)	주관 (珠冠)	대홍 저사 겹대삼 (大紅紵絲夾大衫) 청저사 채수권 금적계 겹배자 (靑紵絲綵繡圈金翟雞夾褙子) 청선라 채수권 금적계 하피 (靑線羅綵繡圈金翟雞霞帔)	아홀 (牙笏) 금추두 (金墜頭)
	중종 13년(1518)			
13대	명종원년(1545) 명종13년(1558)			주취칠적관 (珠翠 七翟冠)
	14대	선조 3년(1570) 선조 35년(1602)		
선조 36년(1603)		상아여홀 (象牙女笏)		

## ② 상복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왕비 관복 중에서 단삼(團衫), 오아(襖兒), 군(裙)은 상복에 속한다<sup>128)</sup>. 문종 즉위년 이후 선조 36년까지, 15차례 명조로부터 국왕 및 왕비 법복 사여 시 상복(常服)제가 포함되었다.<sup>129)</sup>

문종 즉위년(1450)은 대홍직금 운견해상사계화저사 단삼(大紅織金雲肩海棠四季花紵絲團衫), 취람암세화저사 오(翠藍暗細花紵絲襖), 백지녹암세화저사 군(栢枝綠暗細花紵絲裙)을 사여받았다<sup>130)</sup>. 단종 3년(1455)은 대홍직금견해당사계화 단삼(大紅織金肩海棠四季花團衫), 남암화 오아(藍暗花襖兒), 유청암화저사 군(柳靑暗花紵絲裙)을 받았고<sup>131)</sup>, 세조 2년(1456)은 대홍 직금 운견 만지고 단삼(大紅織金雲肩滿地嬌團衫), 남암화저사 오아(藍暗花紵絲襖兒), 흑록암화 저사군(黑綠暗花紵絲裙)을 사여받았다<sup>132)</sup>

예종 1년(1469)은 녹직금화 운견통수슬란저사 겹단삼(綠織金花雲肩通袖膝襪紵絲夾團衫), 홍암화저사 겹오아(紅暗花紵絲夾襖兒),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을 사여 받았다<sup>133)</sup>. 전과 달리 단삼, 오아, 군이 겹으로 바뀌었다.

성종대는 상복 사여가 3차례 있었으며, 성종 1년(1470)은 녹직금화 운견저사 겹단삼(綠織金花雲肩紵絲夾團衫), 홍암화 저사 겹오의(紅暗花紵絲夾襖衣), 청암화 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을 사여 받았고<sup>134)</sup>, 성종 8년(1477)의 사여품목<sup>135)</sup>과 성종 12년(1481)은 예종 1년의 사여 품목과 동일하다<sup>136)</sup>

중종대는 2차례 사여가 있었으며, 중종 3년(1508)은 예종 1년의 사여 품목

128) 유희경·김문자(1981), 전계서, p.271.

129) 김연자(2002), 전계서, pp.7-9.

130) 文宗實錄 卷2 卽位年 8月 3日.

131) 端宗實錄 卷3 卽位年 9月 17日.

132) 世祖實錄 卷3 2年 4月 20日.

133) 睿宗實錄 卷3 1年 閏 2月 4日.

134) 成宗實錄 卷5 1年 5月 1日.

135) 成宗實錄 卷76 8年 2月 4日.

136) 成宗實錄 卷129 12年 5月 16日.

과 동일하며, 중종 13년(1518)은 녹색화저사철채수적계 단삼(綠細花紵絲綴綵繡翟鷄團衫), 홍암화저사 겹오아, 청암화저사 겹군을 사여받았다<sup>137)</sup>.

명종 1년(1545), 명종 13년(1558), 선조 3년(1568), 선조 35년(1602)는 중종 13년의 사여품목과 동일하다. 선조 36년(1603)은 녹색암화저사철채수적계 보자단삼(綠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團衫), 홍암화저사 겹오, 청암화저사 겹군을 사여 받았다<sup>138)</sup>. 사여받은 보자단삼(補子團衫)을 통해 왕비 상복에 흉배를 부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중국으로부터 왕비 상복 사여 기록은 <표 4>와 같다.

---

137) 中宗實錄 卷32 13年 4月 21日.

138) 宣祖實錄 卷161 36年 4月 27日.

<표 4> 조선시대 왕비 상복 사여

왕대별	연대	사여품목
5대	문종 즉위년(1450)	대홍직금 운견해상 사계화저사 단삼 (大紅織金雲肩海棠四季花紵絲團衫) 취람 암세화저사오(翠藍暗細花紵絲襖) 백지녹 암세화저사군(栢枝綠暗細花紵絲裙)
6대	단종 3년(1455)	대홍직금 견해당사계화 단삼 (大紅織金肩海棠四季花團衫) 남암화오아(藍暗花襖兒) 유청암화저사군(柳靑暗花紵絲裙)
7대	세조 2년(1456)	대홍 직금 운견 만지교 단삼 (大紅織金雲肩滿地嬌團衫) 남암화저사 오아(藍暗花紵絲襖兒) 흑록암화저사 군(黑綠暗花紵絲裙)
8대	예종1년(1469)	녹직금화운견 통수 슬란 저사 겹단삼 (綠織金花雲肩通袖膝襪紵絲夾團衫) 홍암화저사 겹오아(紅暗花紵絲夾襖兒)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
9대	성종1년(1470)	녹직금화 운견 저사 겹단삼 (綠織金花雲肩紵絲夾團衫) 홍암화저사 겹오의(紅暗花紵絲夾襖衣)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
	성종 8년(1477)	예종 1년과 동일
	성종 12년(1481)	
11대	중종 3년(1508)	예종 1년과 동일
	중종 13년(1518)	
13대	명종 1년(1545)	녹세화저사철채수적계 단삼 (綠細花紵絲綴綵繡翟鷄團衫) 홍암화저사 겹오아(紅暗花紵絲夾襖兒)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
	명종 13년(1558)	
14대	선조 3년(1568)	홍암화저사 겹오아(紅暗花紵絲夾襖兒)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
	선조 35년(1602)	
	선조 36년(1603)	녹암화저사철채수적계보자단삼 (綠暗花紵絲綴綵繡翟雞補子團衫) 홍암화저사 겹오(紅暗花紵絲夾襖) 청암화저사 겹군(靑暗花紵絲夾裙)

## 2) 중국으로부터의 사여 이후 국내 제작

명(明)이 망한 이후 왕과 왕비의 관복 사여는 중단되었고 명에 대한 사대정책으로 인해 명자호란 후 건국된 청(淸)의 예제(禮制)를 따르지 않았으며 조선 초기에 제정된 예제를 정비하여 관복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sup>139)</sup>.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의 제작에 대한 정확한 년도의 기록은 거의 없으나 왕의 실록(實錄), 의궤(儀軌), 예전(禮典) 등 사료(史料)에 나타난 의복도(衣服圖)를 통하여 당시의 면복, 법복, 조복, 상복의 형태와 구성품을 알 수 있으며, 시대별 의복의 형태 차이가 보여 새로 제작하였음을 유추 할 수 있다.

### (1) 왕 복식의 제작

#### ① 면복

면복은 인조 3년(1625)까지 사여 받았으며 선조 39년(1607)에 국내에서 제작하여 착용한 기록이 있고, 이는 임진왜란으로 면복의 제도가 산실되어 선조 34년(1601)에 명에 관복을 주청을 하여 35년(1602)에 사여 받았으나 색상과 길이 등이 좋아 국내에서 제작하였다<sup>140)</sup>. 제작 시 1474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그림 2)의 제식을 참고하였으며<sup>141)</sup>, 「국조오례의서례」 제복도설 중 면복제도는 구류면·구장복제로 명의 황태자 면복제에 준한 것이다<sup>142)</sup>.

명에서 관복을 사여받으면서 면복 제작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문종 즉위년(1450) 세종의 염습에 사용될 면복에 대한 논의에서 황제에게 받은 면복 1벌과 세종이 이를 참고하여 제조한 면복이 1벌이 있다고 하여<sup>143)</sup> 세종대에 면복을 국내에서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면복 제식은 세종대에

139) 고광립(1990), 한국의 관복, 화성사, p.152.

140) 선조실록 卷196 39년 2월 13일

141) 임명미(1997), 전개서, p.180.

142) 김명숙(1994), 한국과 중국의 곤면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17.

143) 文宗實錄 卽位年 3月 丁未.

편찬된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관면도(冠冕圖)(그림 3)에 제정된 규정은 규(圭)·면(冕 즉, 冕旒冠)·의(衣)·상(裳)·대대(大帶)·중단(中單)·패(佩 즉, 佩玉)·수(綏 즉, 後綏)·폐슬(蔽膝)·말(襪)·석(澗)으로 되어 있다<sup>144)</sup>. 「세종실록오례」는 최초로 조선시대 국왕의 면복제도를 제정한 것이며 이는 태종 3년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면복 제도를 따라 만들었다<sup>145)</sup>. 성종 5년(1474)에 완성된 「국조오례의서례」의 규정에는 「세종실록오례(世宗實錄五禮)」 관면도에서 방심곡령(方心曲領)을 추가시켰다<sup>146)</sup>.

관복에 대한 청사(請賜)도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서자 없어졌으며 숙종조 이후는 면복을 국내에서 지었으며 그 때마다 그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있어<sup>147)</sup>, 영조 23년(1747)에는 「상방정례(尙方定禮)」 면복도에 일정한 면복 제도를 정해 놓았다.<sup>148)</sup>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까지 「국조오례의서례」 제식을 사용하였으며<sup>149)</sup>, 고종 34년(1897) 고종황제의 등극의(登極儀)에 명(明) 가정(嘉靖) 8년에 개정된 제도인 「대명회전(大明會典)」(그림 4)을 참조하여 십이장 면복제로 정하였다<sup>150)</sup>.

국내 제작 시 국가에서 편찬한 서적에 면복의 품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편찬된 서적마다 면복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로 하여 면복을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144) 國朝五禮儀序例) 卷之1 古例 祭服圖說

145) 박승원(2013), 전계서, p.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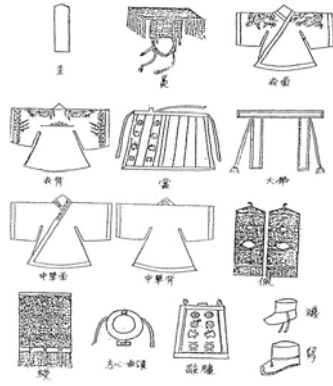
146) 國朝五禮儀序例) 卷之1 古例 祭服圖說 殿下冕服

147) 유희경(1972), 전계서,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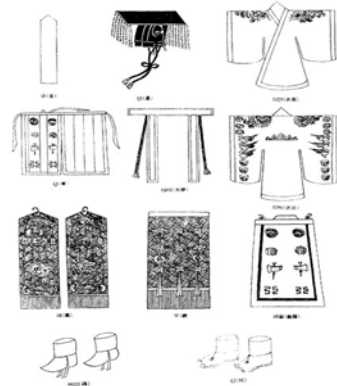
148) 유희경·김문자(1981), 전계서, p.189.

149) 增補文獻備考, 제 79권 禮考 26 章服條

150) 大明會典, 卷之 60, 禮部 冠服一 皇帝冕服條에 의하면 면복규정은 洪武 16년(1383)에 마련된 이후 洪武 26년(1393), 永樂 3년(1405), 嘉靖 8년(1529) 등 3차례에 걸쳐 개정·보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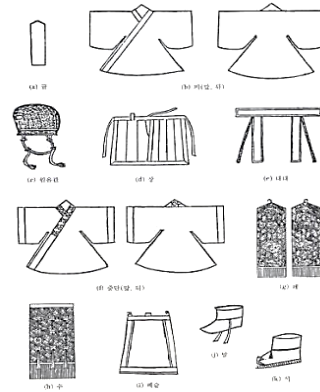
<그림 2> 「국조오례의  
서례」 면복제도  
(김명숙(1994), p.3)



<그림 3> 「세종실록」  
관면도  
(김명숙(1994), p.2)



<그림 4> 「대명회전」  
황제 곤면제도  
(김명숙(1994), p.22)



<그림 5> 「국조오례의  
서례」 강사포 제도  
(김명숙(1994), p.-)

## ② 조복

세종 26년(1444)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원유관과 강사포의 조복 제도는 조선시대 말기까지 국왕이 조복으로 착용하였으며<sup>151)</sup>, 세종 26년(1444) 이후 조복 사여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왕의 면복은 명에서 사여 받은 제도를 참고하여 면복과 그에 대한 관면도를 제작하였으며, 원유관과 강사포가 조선시대 말기까지 착용된 것으로 보아 면복과 동일하게 세종 26년 명에서 사여 받은 제도를 참고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조복 제도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474년에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에 왕의 조복 제도를 제정하였으며 관복도설(그림 5)에 수록되어 있는 강사포는 규, 원유관(遠遊冠)·강사포(絳紗袍), 상, 대대, 중단, 패옥, 수, 폐슬, 말,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2)</sup>.

조선시대 말기 고종 황제가 착용한 제복은 「국조오례의서례」 관복도설에서 명의 친왕례의 강사포제와 같으나 중단 깃에 불문 13개를 금박(金箔)하였고,<sup>153)</sup> 원유관 대신 통천관을 제작하여 착용<sup>154)</sup>한 것을 알 수 있다.

## ③ 상복

왕의 상복인 용포(龍袍)는 명종 10년(1555)를 마지막으로 사여되었으며, 명종 이후에 사여 받은 기록이 없고 왕은 상복을 착용한 사실로 보아 국내에서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왕의 상복의 국내 제작은 조선시대 초기에 기록이 있는데 태종 10년(1410) 태종이 곤룡포(袞龍袍)와 면류관 차림으로 태조와 신의왕후를 종묘에 부하였고<sup>155)</sup> 세종 7년(1425)에 왕이 곤룡포와 면류관 차림으로 왕세자 이하

151) 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 36 章服.

152) 이민주(1999), 전계서, p.76.

153) 이혜진(2010), 조선시대 궁궐복식에 나타난 배색특성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계서, p.32.

154) 增補文獻備考, 卷79 禮考 36 章服.

문무 여러 신하와 하전추례를 거행한<sup>155)</sup> 기록으로 보아 상복의 최초 사여인 세종 26년(1444) 이전에도 곤룡포가 착용되었으며 이는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세종대의 사여 이후의 상복은 명나라 제도에 근거하여 제작하였으며<sup>157)</sup>, 성종 5년(1474)에 「국조오례의서례」의 관복도설에 나타난 왕의 상복 구성은 익선관(翊善冠), 곤룡포, 옥대, 화이며, 곤룡포는 가슴, 등과 양어깨에 금색 오조원룡보를 달았다<sup>158)</sup>. 중종 34년(1539)의 상복 사여 전까지 「국조오례의서례」의 제식을 참고하여 상복을 국내에서 제작한 것으로 유추된다. 영조 27년(1751)에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서례(國朝續五禮儀補序例)」의 전하사복도설(殿下視事服圖說)에는 국왕의 상복 기록이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sup>159)</sup>. 조선시대 말기에는 고종이 황제로 승격함에 따라 홍곤룡포가 황곤룡포로 바뀌었으며<sup>160)</sup>, 이는 대한제국의 복식제도에 대한 자료인 「대한예전(大韓禮典)」의 상복 규정<sup>161)</sup>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한예전」은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취하여 새로이 만든 것으로 상복 제도는 곤룡포와 옥대로 구성되어 있다<sup>162)</sup>.

## (2) 왕비 복식의 제작

### ① 법복

조선시대의 왕비 법복의 사여는 선조 35년(1603)를 마지막으로 사여 받은 기록이 없으므로 선조 이후는 국내에서 제작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명으로부터 왕의 즉위나 왕비 책봉 시 관복을 받았으며 동시에 국내에서

155) 太宗實錄 卷20 10年 7月 28日

156) 世宗實錄 卷27 7年 2月 9日

157) 문화재청(2006), 전계서, p.26.

158) 유송옥(1998), 전계서, p.156.

159) 문화재청(2006), 전계서, p.26.

160)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p.419.

161) 大韓禮典 卷之5, 常服 “黃袍黃色”

162) 최연주(2008), 조선의 곤룡포의 착용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9.

도 관복의 제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종 28년(1446) 세종조의 대감대(大歛代) 명복(命服)을 사용하고 있었고 세종대는 왕비복 사여가 없어 세종대에 법복이 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sup>163</sup>). 세종이 면복 제작 시 왕비의 관복도 제작했을 것이며, 이때 제작한 관복은 대삼으로 추정 된다<sup>164</sup>). 선조의 왕비인 인목왕비(仁穆王妃)의 가례(1602) 시 국속화된 수식(首飾)에 국의(鞠衣)를 제작하여 착용<sup>165</sup>)하여 왕비의 관복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조 3년(1625)에 왕비의 관복 사여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는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착용하였으며, 왕비의 관복에 대한 기록이 서적마다 형태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참고로 하여 왕비의 관복을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왕비 관복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인조 16년(1638)에 편찬된 「인조장렬왕후가례도감의례(仁祖葬列王后嘉禮都監儀軌)」에 대홍필단으로 된 대삼과 아청으로 된 배자를 적의의 구성요소로 기록하고 있으며, 그 외 품목으로는 하피, 옥대, 수, 패옥, 대대, 규, 석, 말이 있다<sup>166</sup>). 숙종 7년(1681)에 「개원례(開元禮)」를 고려하여 기존의 국속제도에서 새로운 예복제도를 창제하였다<sup>167</sup>). 영조 25년(1749) 편찬된 「국혼정례」는 「대명회전」에 의거하여 명의 적의제를 따라 법복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조 27년(1751)의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의 왕비 예복제도에도 보인다<sup>168</sup>). 「국조오례의」에서 제외되었던 왕비법복과 빈궁법복제도를 영조 27년 「국조속오례의보」에 실어 비빈(妃嬪)의 법복제를 확정하였다<sup>169</sup>). 「대한예전」(1898년 편찬 추정)의 품목이 구룡사봉관, 적의, 대대이며, 「국혼정례」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영조 27년의 적의제를 국말까지 습용하다

163) 世宗實錄 世宗 28年 3月 甲年.

164) 홍나영(1983), 전계서, pp.7-8.

165) 宣宗實錄 36年 5月 庚申.

166) 김소현·안인실·장정운(2007), 조선시대 적의의 용례와 제작에 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7(6), p.93.

167) 고왕립(1990), 한국의 관복, 화성사, p.152.

168) 유희경·김문자(1981), 전계서, p.267.

169) 홍나영(1983), 전계서, p.10.

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고 난 후 명 황후 적의제인 심청색 십이등적의를 그대로 착용하게 되었다<sup>170)</sup>. 이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영락 3년에 제정된 「대명회전」에 국속화된 적의를 착용한 모습을 알 수 있다<sup>171)</sup>.

## ② 상복

왕비의 상복 국내 제작은 선조 35년(1603)의 사여 이후 의례에 대해 편찬된 서적 등의 사료에 왕비의 상복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상복을 제작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조 25년(1749)에 편찬된 「국혼정례」의 궁중 의대 중 노의·장삼<sup>172)</sup>가 있으며 영조대에 왕비 상복 사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착용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국혼정례」의 빈궁 의대 중 노의와 장삼은 조선 후기에 원삼으로 집약되었다<sup>173)</sup>. 노의는 인조 16년(1638)부터 숙종 28년(1702)까지, 양란이후 제도의 산실과 혼란으로 국속으로 제작하였고 순조대 이후 적의 다음 가는 상복(上服)<sup>174)</sup>이 되었다. 노의는 인조 이후 제도와 같았으며 노의에 흉배를 부착한 제도가 국말까지 제작되었다.<sup>175)</sup>

현종부터 국말까지 인조대에 제정한 제도와 후기 영조와 순조대에 제정한 국속 제도를 병합하여 노의, 장삼, 원삼 등을 제작하였다<sup>176)</sup>.

조선시대 왕과 왕비 복식의 사여 및 제작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70) 김소현·안인실·장정윤(2007), 전계서, p.88.

171) 增補文獻備考 券 79 豫告 26 章服 1.

172) 권혜진(2009),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9-23.

173) 신순자(2002), 전계서, p.156.

174) 이혜진(2010), 전계서, p.36.

175) 임명미(1997), 전계서, p.356.

176) 임명미(1997), 전계서, p.345.

<표 5>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 사여 및 제작

구분		사여		제작		비고
		시기	품목	시기	품목	
왕	면복	조선 중기 (1592 , 임진 왜란 이전)	관(冠), 곤복(袞服), 중단(中單), 상(裳), 대대(大帶), 폐대(佩帶) 금수(錦繡), 폐슬(蔽膝) 옥규(玉圭), 말(襪), 석(烏)	조선 중기 (1598 , 임진 왜란 이후)	관(冠), 의(衣), 중단(中單). 상(裳) 대대(大帶). 후수(後綬) 폐슬(蔽膝), 패옥(佩玉) 규(圭). 말(襪), 석(滂)	황제 승격 후 십이 장복과 함께 방심곡 령(方心曲領) 옥대(玉 帶)을 착용하였다.
	조복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 중단(中單), 상(裳)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규(圭), 패옥(佩玉), 말(襪) 석(滂)		원유관(遠遊冠) 강사포(絳紗袍) 중단(中單), 상(裳)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규(圭), 패옥(佩玉), 말(襪) 석(滂)	국말까지 형태 변 화가 없었으며, 황제 승격 후 통천관(通 天冠) 과 옥대(玉帶) 를 착용하였다.
	상복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 담호(搭襖), 첩리(貼裏) 옥대(玉帶), 화(靴)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 옥대(玉帶), 화(靴)	곤룡포, 담호, 첩리 는 옷감으로 사여하 였고 제작은 국내 에서 하였다. 황제 승격 후 황룡 포를 착용하였다.
왕비	범복	조선 중기 (1592 , 임진 왜란 이전)	칠적관(七翟冠) 대삼(大衫), 배자(褙子) 하피(霞帔), 금추두(金墜頭) 상아홀(象牙笏)	조선 중기 (1598 , 임진 왜란 이후)	대수(大首), 적의(翟衣) 중단(中單),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패옥(佩玉), 옥대(玉帶) 하피(霞帔), 규(圭) 말(襪), 석(滂)	사여는 대삼제(大 衫制)였으나 제작은 적의제(翟衣制)로 하 였다. 두식은 적관에서 국속화된 대수로 바 뀌었다.
	상복		단삼(團衫)		노의(露衣) 장삼(長衫) 원삼(圓衫)	임진왜란 이후 여 자 상복이 세분화되 었으며, 국말의 대표 적 상복은 원삼으로 정착되었다.

### 3.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 및 구성

#### 1) 왕복(王服)

실용성과 사회적 기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의복은 삼국시대 이래로 계급과 사회 신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였다. 왕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 그 복장을 달리하였는데, 특히 복장의 색이나 문양을 구별하여 예복을 갖추어 입었다. 이는 단순히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복식을 통하여 마음을 드러내고 위의를 표하여 왕의 역할과 존엄성을 표시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였다<sup>177)</sup>. 또한, 왕의 공식적인 복장은 만나는 대상자 또는 의식의 중요성에 따라 대례복(大禮服)·면복(冕服)과 조복(朝服), 상복(常服)의 3가지<sup>178)</sup>로 크게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왕의 면복, 조복, 상복으로 나누어 각 복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림 또는 사진, 유물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면복(冕服)

면복은 왕이나 왕세자, 왕세손이 대례복이나 제복으로 사용하였던 왕권을 상징하는 법복(法服)으로 ‘곤면(袞冕)’<sup>179)</sup>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면복은 태종실록에 태종 3년 11월에 명사(明史) 황엄(黃嚴)이 명나라 영락(永樂) 원년(1402)에 의해 만들어진 면복을 사여 받은 것을 기본 규정으로 삼았는데<sup>180)</sup> 국가의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등 다양한 의례에 사용되었다<sup>181)</sup>.

종묘와 사직 등의 제례 시 왕이 착용하는 면복은 하늘과 지상 최고의 신을 영접하기 위해 착용한 길복으로 제복에 해당한다. 면복의 구성을 「국조오례의」 서례 제복도설에서 살펴보면 면류관(冕旒冠), 의(衣), 중단(中單), 상

177) 홍순민(2005), 조선시대 국왕의 복식, 역사비평, Vol.- No.73, p.352.

178) 백영자·최해울(2004), 한국복식의 역사, 경춘사, p.183.

179) 유효순·최해울(2000), 전계서, p.163.

180) 『太宗實錄』, 太宗三年 十一月 卷六 二十二

181) 고광립(1973), 전계서, pp.197~211.

(裳),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옥대(玉帶), 패옥(佩玉), 방심곡령(方心曲領), 말(襪), 석(舄), 규(圭)이다.<sup>182)</sup>(그림 7)

조선시대 왕 대례복의 기본은 구장복으로, 의(衣)는 왕의 대례복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겉옷으로서 깃이 달려 있지 않으나 끝은 선이 사선으로 길게 달린 교임형으로 양어깨에 용을, 등 뒤에 산을, 화. 화충. 종이를 각각 3개씩 양 소매에 그리었다.<sup>183)</sup> 십이장복의 현의는 황제가 입는 의로써, 일, 월, 성신, 산, 용, 화충 여섯 가지의 장문을 양쪽어깨와 등 뒤쪽, 소매부리에 그리었다. 또한 명 영락예제 친왕 관복에서의 ‘본색령표선거(本色領標襪裾)’는 여기에서도 그대로 습용되어, 현령의 도련, 수구에는 현색선을 하였다.<sup>184)</sup>

대례복과 면복에 사용된 장문은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왕의 권위와 위의를 표현하고 있다. 일(日)은 일상(日象)의 조광(照光)을, 월(月)은 불로불사(不老不死), 성신(星辰)은 충의(忠義)로운 사람, 산(山)은 진정, 구름을 토하여 비와 이슬이 되어 만물에 혜택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고, 용(龍)은 신기 변화를 나타내어 잘 적응한다는 뜻이다. 화충(華蟲)은 문채(文彩)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꿩 모양이며, 종이(宗彝)는 종묘의 제기그릇으로, 여기에 그려진 호랑이와 원숭이를 따서 그린 것으로 호랑이는 용감함을, 원숭이는 지혜를 나타낸다. 호랑이와 원숭이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있으므로 효(孝)의 의미이다. 조(藻)는 청결과 화미(華美)로움을, 화(火)는 조요광휘(照耀光輝), 분미(粉米)는 어진 백성(양민)을 의미한다. 보(黼)는 결단(決斷), 불(黻)은 배악향선(背惡向善) 정신을 표시한다.<sup>185)</sup> 사용된 장문 각각의 모양과 의미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중단은 중의(中衣)를 뜻하는 것으로 허리를 꿰매지 않고, 아래 폭을 가르

182) 한형주 외(2009),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p.243.

183)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복식,자수편, 문화재청, pp.68-69.

184) 백영자·최해울(1993), 전계서, p.187.

185)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77.

지 않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sup>186</sup>). 구장복 중단은 백색 비단으로 만들고 청색 선으로 깃, 도련, 수구를 들렀으며, 깃에는 불문 11개를 수놓았고<sup>187</sup>, 십이장복의 중단은 불문 12개를 직성 하였다.

현존하는 곤복과 중단의 유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종의 구장복과 궁중유물전시장에 보관되어 있는 순종의 십이장복이 있다.

고종의 갑사 구장복 유물(그림 6)은 현색 사(紗)로 만들었으며 오장문 중 용문을 어깨에 그렸는데, 금색 비늘에 홍색으로 가장자리에 갈기를 두른 형태이다. 산은 등에 그렸는데, 금색으로 외관 선을 긋고 그 안을 취용색으로 채색하였다. 산·성신을 함께 그려 넣은 십이장복의 ‘의’와 달리 구장복에는 산(山)만 그려 넣었다. 양 소매 끝에는 홍색으로 화 3개, 청, 홍, 남색으로 채색한 화층 3개, 녹색의 종이 3개를 각각 그려 넣었다.<sup>188</sup>) 중단(그림 8)은 순인으로 되어 있으며 밝은 청색이다. 총길이 124cm이며 소매너비 62cm로 겹보다 작게 하였고 불문 11개가 부금되어 있으며 흑색 고름이 달려있다.<sup>189</sup>) 상의 색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훈색(纁色)이었고, 7폭으로 되어 있어 전 3폭, 후 4폭의, 매복 양 갓을 1촌 꿰매어 이를 삭폭(削幅)이라 하였고, 허리사이에는 무수한 주름(賢)이 있었다<sup>190</sup>). 왕의 상에는 조, 분미, 보, 불의 네 장문을 수놓아 총 구장문으로 장식하여 구장복이라 하였다<sup>191</sup>).

국말 순종이 착용하였던 십이장복의 경우에는, 구장복과 제도는 동일하나 들어가는 문장에 있어서 어깨에 일과 월, 뒤에는 성신과 산, 양 소매에는 용과 화층의 육장문이 있었고<sup>192</sup>, 상에는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의 여섯 장문<sup>193</sup>)을 수놓아 총 십이장문으로 장식하여 구장문과 차이점이 있다.

186) 안명숙·김용서(2006), 상계서, p.80.

187) 임명미(1997), 전계서, p.182.

188) 문화재청(2006), 전계서, p.70.

189) 문화재청(2006), 전계서, p.71.

190) 유희경(1972), 전계서, pp.88-89.

191) 홍순민(2006), 전계서, p.355.

192) 국립고궁박물관(2013), 왕실문화도감:조선왕실복식, 국립고궁박물관, p.28.

193) 유희경(1972), 전계서, p.89.

두 벌의 끈복과 중단은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이나 색과 장문이 다르다. 고종의 구장복 유물은 앞·뒤길 양옆에 무를 달고 무문사직(無紋紗織)으로 짜여진 반면, 순종의 십이장복 유물은 무가 없으며 단룡문(團龍紋)이 있는 사문직이다. 또한, 구장복 중단은 선이 겹·안 모두 검은색인데 반하여, 십이장복 중단은 겹은 검고, 안은 바탕과 같은 청색이라는 차이가 있다.<sup>194)</sup>

상은 앞뒤 두 자락으로 갈라진 남자의 예복용 치마로 ‘훈상’(纁裳)이라고도 하며 중단 위에 입는다. 현의는 하늘을 의미하는 반면, 치마는 땅을 상징하는 홍색 계통인 훈색(纁色)으로 만들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특징을 지닌다. 사다리꼴의 조각을 앞 3폭, 뒤 4폭을 각각 이어 두 자락을 만든 후, 가장자리에는 같은 색으로 1촌 반 너비의 선을 두른다. 허리에 주름을 잡고 허리말기를 달아 우측에 묶어 입었다. 앞자락의 좌우 가장자리를 따라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무늬를 수놓는다.

구장복의 폐슬은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허리 아래로 늘이는 장방형의 천으로 훈색 증으로 만들었고, 위에는 비(紕)가 있고 아래는 준이라 하는 단을 대었으며, 위에서 5촌 내려와서 조, 분미, 보, 불을 각 두 개씩 4장문을 수놓았다.<sup>195)</sup> 반면에 십이장복의 폐슬은 훈색라로 만들었으며 위에는 용 1개, 아래에는 화3개를 수놓았다<sup>196)</sup>.

혁대는 명의 사여면복과 「국조오례의」는 없었으나, 면복의 구조상 폐슬과 패옥 등을 걸기 위해서 필요하였기에 인조 6년(1628)에 갖추게 되었다.

대대는 명으로부터 사여된 국왕 면복 중 홍색대대로 친왕제에 따라 청주로 맺게 되어 있었으며 「국조오례의」에서 보면 비색(緋色)과 백색(白色)의 증을 합쳐 꿰맨 것이라고 나와 있다. 허리부분과 그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을 매는 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장복과 십이장복의 것이 동일하였다<sup>197)</sup>.

194) 김명숙(1994), 전계서, pp.48-49.

195) 홍순민(2006), 전계서, p.356.

196) 김영숙(1998), 전계서, p.269.

수는 뒤에 달아 늘이는 장식품으로 후수(後綬)라고도 하였다. 구장복의 수는 여러 가지 색을 넣어 짙은 홍화(紅花)물을 들인 면(綿)으로 만들며, 아래로 늘어뜨려진 망수(網綬)로 되어 있고 1쌍의 환(環)이 있었고<sup>198)</sup>, 십이장복의 수는 여기에 같은 색의 소수 3개가 달려있었고 용문을 가진 3개의 옥환을 간시(間施)하였다.

패옥은 민옥(珉玉)으로 연결시켜 현대에 걸쳐 양 쪽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린 옥 장식품으로 구장복의 패옥은 패옥하나에 옥형(玉珩)이 1개, 우(瑀)가 1개, 거(瑀)가 1개, 형아(衡牙)가 1개, 황(璜)이 2개가 있었으며, 패옥 받침으로 혼색 바탕에 적, 백, 표(縹), 녹의 4채로 짙은 4채(采)의 소수(小綬)가 달려 있었다<sup>199)</sup>. 고종황제 십이장복의 패옥은 그 제도가 영락예제에 따른 황제 복식 제도와 같고, 황태자 제도 또한 같았다. 십이장복의 것은 거가 2개였고, 소수가 6채로 황, 백, 적, 현, 표, 녹으로 짙다는 점 이외에는 같은 구성이었다.<sup>200)</sup>

방심곡령은 조선시대 왕 이하 여러 신하들의 제복에만 있던 것으로 조복과 제복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둥근 고리 모양의 흰 천으로, 방심은 네모난 땅을, 곡령은 둥근 하늘을 상징하였다<sup>201)</sup>. 옷깃 위에 덧대었으며, 하단(下端)에 네모난 방심을 달았고 2개의 끈을 양쪽에 달아 가슴 위에 드리웠으나<sup>202)</sup>, 「국조오례의」에서 곡령의 끈이 달리지 않은 것<sup>203)</sup>으로 보이기도 한다.

면류관은 앞뒤에 늘어진 면류(冕旒)로서 「중국사(中國史)」 각여복지(各麗服志)에 보면 그 수(數)와 각 류마다 꿰는 옥(玉)의 수를 구장복에는 9류

197) 유희경(1972), 전계서, pp.101-102.

198) 국립고궁박물관(2013), 전계서, p.40.

199)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80.

200)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1999), 조선조후기궁중복식 : 영왕복식중심,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회

201) 유송옥(1998), 전계서, p.152.

202) 김영숙(1998), 전계서, p.186.

203)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201.

9옥, 십이장복에는 12류 12옥을 통례로 하였다<sup>204</sup>). 여기에 적말(赤襪)과 적석(赤舄)을 신었고 규를 들었다.

<그림 9>의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영친왕의 구장복 착용사진을 보면, 이는 1918년 영친왕이 영녕전(永寧殿)을 참배 할 때의 사진으로 구장복에 구류면을 착용하고 석을 신고 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순종의 십이장복 착용사진(그림 10)을 보면, 고종이 돌아가셨을 때의 제복 착용모습으로 면류관, 의, 상, 중단, 폐슬, 혁대, 패옥, 대대, 수, 말, 석, 규를 착용하였다.<sup>205</sup> 곤복에는 넓은 동정이 달려 있고 소매 끝과 도련단에 넓은 선이 둘러져 있다. 허리에는 혁대와 대대를 두르고, 허리에는 폐슬을 둘렀으며 양 옆에는 패옥을 늘어뜨렸다. 황제는 백옥으로 끝을 뽀족하게 만든 규를 들고 있으며, 「대한예전」제도에 없는 방심곡령을 착용하고 있다.<sup>206</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왕 대례복은 장문을 사용하여 크게 면류관, 의, 중단, 상, 대대, 수, 폐슬, 옥대, 패옥, 방심곡령, 말, 석, 규로 구성되어지며,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구장복을 착용하였으나 국말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면서 십이장복을 착용하였다. 이상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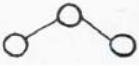














---

204) 김명숙(1994), 전계서, p.18.

205) 권오창(199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p.16.

206) 김명숙(1994), 전계서, pp.46-47.

<표 6> 십이장문(十二章紋)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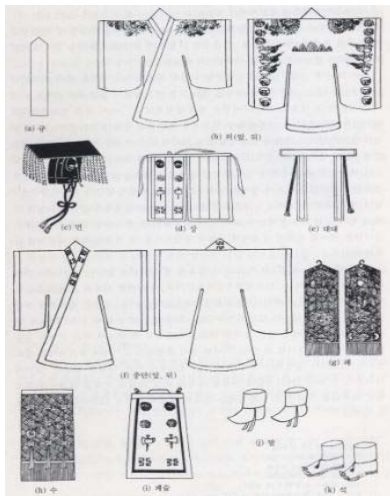
종류	그림	표현	상징적 의미
일(日) · 월(月)			일상(日象)의 조광(照光) 불로불사(不老不死)를 상징하였다.
성신 (星辰)			충의(忠義)로운 사람을 상징하였다.
산(山) · 용(龍)			산은 진정, 구름을 토하여 비와 이슬이 되어 만물에 혜택을 준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고, 용은 신기 변화를 나타내어 잘 적응한다는 뜻이다.
화충 (華蟲)			문채(文彩)가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평모양이다.
종이 (宗彝)			호랑이와 원숭이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있으므로 효(孝)의 의미이다.
조(藻)			청결과 화미(華美)로움을 상징한다.
화(火)			[조요광휘(照耀光輝)]을 나타낸 것이다.
분미 (粉米)			어진 백성[양민]을 뜻한다.
보(黼) · 불(黻)			보는 결단(決斷)을, 불은 [배악향선(背惡向善)] 정신을 표시한다.

<표 7> 왕 면복의 구성과 특징

구 성	구장복	십이장복
면(冕)	앞뒤에 늘어진 면류, 9류 9옥	12류 12옥
현의 (玄衣)	현색증, 양어깨에 용, 등 뒤에 산, 양 소매에 화. 화충. 종이의 오장문	어깨에 일과 월, 뒤에 성신과 산, 양 소매에 용과 화충의 육장문
중단 (中單)	백색 비단, 허리를 꿰매지 않고, 아래 폭을 가르지 않음, 깃, 도련, 수구의 청색선, 깃에는 불문 11개	불문 12개
상(裳)	훈색증, 전 3폭, 후 4폭의 7폭, 허리에는 무수한 벽적, 앞쪽에 조, 분미, 보, 불의 사장문	종이, 조, 화, 분미, 보, 불의 육장문
폐슬 (蔽膝)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허리 아래로 늘이는 장방형의 천, 훈색증. 위에는 비, 아래에는 준, 조, 분미, 보, 불 각 두 개씩 사장문	훈색라. 위에 용1개, 아래에 화 3개
수(綏)	뒤에 달아 늘이는 장식품. 홍화물을 들인 면으로 만들. 망수, 1쌍의 환. 조, 분미, 보, 불을 각 두 개씩 사장문	구장복의 것에 같은 색의 소수 3개추가. 용문을 가진 3개의 옥환을 간시
패옥 (佩玉)	허대에 걸어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린 옥 장식품. 패옥 받침은 훈색 바탕에 4채 (적, 백, 표, 녹)로 짠 소수	구장복의 패옥에 거 1개추가. 6채(황, 백, 적, 현, 표, 녹)으로 짠 소수
혁대 (革帶)	사여면복과 「국조오례의」에는 없었으나, 폐슬과 패옥 걸기 위해 필요	구장복과 동일
대대 (大帶)	허리부분과 그 아래로 늘어뜨리는 부분, 이를 매는 끈으로 구성, 비백색증	구장복과 동일
방심곡령 (方心曲領)	조복과 제복을 구별. 둥근 고리 모양의 흰 천으로 흰 비단. 하단에 네모난 방심.	구장복과 동일
말(襪), 석(屨)	적말, 적석	구장복과 동일
규(圭)	왕이 대례복을 입을 때 쥐는 서신	구장복과 동일



<그림 6> 고종 구장복 앞·뒷모습  
 (문화재청(2006), p.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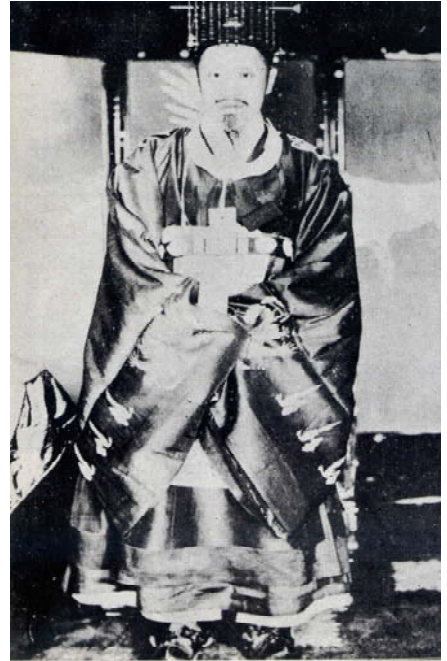
<그림 7> 「국조오례의서례」  
 국왕 면복 제도  
 (유송옥(1998), p.146)



<그림 8> 고종 구장복의 현의와 중단  
 (문화재청(2006), p.71)



<그림 9> 영친왕 구장복  
착용모습  
(국립고궁박물관(2012), p.29)



<그림 10> 순종 십이장복  
착용모습  
(국립고궁박물관(2012), p.20)

## (2) 조복(朝服)

조복은 조선시대 왕이 정월 초하루, 동짓날, 경축일이나 가례 때의 일부 의례에 참석할 때 입었던 옷<sup>207)</sup>이다. 뿐만 아니라 신하의 조현을 받을 때나 삭망(朔望), 조강(朝降), 진표(進表) 때에도 입었으며, 이는 대례복 다음가는 옷<sup>208)</sup>이라 할 수 있었다. 머리에는 관으로써 원유관을 쓰고 국말에는 원유관이 통천관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공민왕 19년(1370)에 명 태조에게 강사포(絳紗袍)를 사여 받은 이후 강사포를 착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구성과 제도가 대례복과 동일하나, 붉은색 사(沙)로 만들고 장문이 없고 백말과 검은색 목화를 신었다는 점이 다르다.

국왕의 조복구성은 ‘원유관, 강사포’제로 「국조오례의」 서례 관복도설에서 보면 관, 의, 중단, 상, 폐슬, 대대, 후수, 패옥, 옥대, 말, 석, 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1>은 왕의 대례복과 제도가 동일하나, 조복에는 면류관이 아닌 원유관을 착용하였고 강사포에는 장문이 없었다. 의는 소매가 넓고 끈은 깃이 달려 있으며 깃, 도련, 소매 끝에 몸판과 같은 붉은색 선(縵)을 둘러쌌다<sup>209)</sup>. 영조 27년(1751)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 소재 강사포의 제식은 동정, 옷고름이 없었으나, 창덕궁 소장 국말 황제국 선포 후 고종의 통천관, 강사포 착용 어진(御眞)(그림 12)에는 흰 동정이 달려 있고 옷고름이 있어 이는 국속화(國俗化)의 증거라 할 수 있다.<sup>210)</sup> 중단은 겉옷 속에 갖추어 입는 옷으로, 백라(白羅)에 깃, 소매끝, 길의 가장자리에 붉은색 선(縵)이 둘러져 있었고<sup>211)</sup>, 국말의 중단 깃에는 중국황제와 똑같이 불문(黻文) 13개를 금박하였다.<sup>212)</sup>

폐슬은 강색 라로 만들었으며 위에 비가 있고 아래에는 순(純)이 있었다.

207) 국립고궁박물관(2012), 전계서, p.64.

208) 엄정옥(2011), 조선왕조 친잠의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4.

209)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83.

210) 유송옥(1998), 전계서, p.153.

211) 홍순민(2005), 전계서, p.356.

212) 권오창(1998), 전계서, p.40.

대대는 비색과 백색의 라(羅)로 만들었으며<sup>213)</sup>, 옥대는 딱딱한 가죽대 위에 옥으로 된 과판(鈔板) 20개를 붙여 장식한 것이다. 상은 강색라로 만들었고 그 모양은 구장복과 같았다. 후수, 패옥, 말, 석은 왕의 구장복과 동일하였다. 여기에 규를 들고 원유관을 썼는데, 원유관은 현색 라(羅)로 만들어 9량(九梁)이었으며 금잠(金簪)을 꽂았고, 황, 창, 백, 주, 흑의 차례로 오채옥을 가지고 전후 9옥씩 장식하였다. 1897년 국말 고종이 황제위(皇帝位)에 오르면서 원유관은 중국천자(中國天子)가 착용하던 통천관(通天冠)으로 바뀌었다.<sup>214)</sup> 왕 조복의 구성과 특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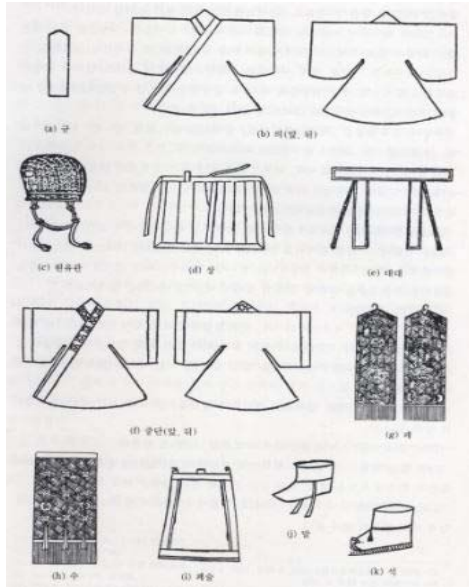
<그림 13>은 고종과 순종의 조복 착용 사진으로, 통천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있다. 또, 허리에는 옥대를 두르고 있고 손에는 규를 쥐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표 8> 왕 조복의 구성과 특징

구 성	특 징
원유관	현색 라, 9량, 금잠, 황, 창, 백, 주, 흑의 오채옥. 국말 통천관.
강사포	대례복 제도와 동일하나, 강사포 장문 없음. 소매가 넓고 끝은 깃. 깃, 도련, 소매 끝에 몸판과 같은 붉은색 선
중단	흰색의 라. 깃, 소매끝, 길의 가장자리에 붉은색 선.
상	강색라. 앞 3폭, 뒤 4폭으로 그 모양이 9장복의 상과 같음.
폐슬	강색라. 위에 비, 아래에 순.
대대	비색과 백색의 라.
옥대	겉옷 위에 띠는 딱딱한 대, 과판 20개를 붙여 장식.
후수, 패옥, 말, 석	구장복과 동일.

213) 유송옥(1998), 전계서, p.153.

214) 백영자·최해율(1993), 전계서, pp.189-190.



<그림 11> 「국조오례의서례」  
관복도설의 왕 조복제도  
(유송옥(1998), p.154)



<그림 12> 통천관, 강사포를  
착용한 고종황제의 어진  
(유희경·김문자(1998), p.203)



<그림 13> 고종과 순종의 조복 착용사진  
(국립고궁박물관(2010), p.203)

### (3) 상복(常服)

「국조오례의」에 나타난 왕이 상복을 착용하는 경우, 가례에서는 영조서의(迎詔書儀), 영칙서의(迎勅書儀), 조참의(朝參儀), 상참의(常參儀), 문무전시의(文武殿試儀), 무과의(武科儀), 생원방방의(生員放榜儀), 양노의(養老儀) 등이었다.<sup>215)</sup> 곤룡포는 색에 따라 청룡포(靑龍袍), 홍룡포(紅龍袍), 황룡포(黃龍袍)등이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단종 대와 성종 대의 영조서의(迎詔書儀)에 아청곤룡포를 착용하였음을 보아, 조선 초기 왕의 상복은 아청색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홍룡포를 입은 것은 세종 26년(1444)에 익선관(翼善冠)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사여(賜與)<sup>216)</sup>받아 착용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완성된 곤룡포 자체를 받기도 하고 옷감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하여 입기도 하였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왕을 황제로 칭하였고 왕의 홍룡포 역시 황제의 상복인 반령착수(盤領窄袖)의 황룡포로 바뀌어 착용하였다.<sup>217)</sup> 이는 「대한예전(大韓禮典)」의 상복규정<sup>218)</sup>에 명시되어 있으며, 「궁중발기(宮中件記)」에는 대한제국 선포 이전과 이후의 곤룡포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선포 이후인 1897년 이후 기록부터 용포가 황색으로 보이고 있어 일치 한다<sup>219)</sup>.

「국조오례의서례」 전하시사복도설(殿下視事服圖設)에서 보면 왕 상복의 구성은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 옥대, 화(靴)이다.<sup>220)</sup> (그림 14) 「국조오례의」 왕의 상복 구성으로 단령 형태에 용보가 부착된 곤룡포, 모체가 2단으로 턱이 지고 뒤에는 매미날개 모양의 소각 2개가 위쪽을 향해 달려 있는 익선관(그림 15)과 옥으로 장식을 붙인 옥대, 검은 가죽으로 만든 목이

215) 문공화(2004), 조선시대 團領의 着用規例와 實例에 관한 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40-46.

216) 임명미(1997), 전계서, p.191.

217) 금중숙, 고부자(2008), 조선시대 곤룡포 연구, 복식문화연구 16(5), p.937.

218) 大韓禮典, 卷之5, 常服.

219) 금중숙·고부자(2008), 전계서, pp.946-947.

220) 유송옥(1998), 전계서, p.156.

긴 신발인 흑피화가 일습을 이룬다.

곤룡포는 왕이 평상시 주로 입는 옷<sup>221)</sup>으로 여름에는 운문사(雲紋紗), 겨울에는 운문단(雲紋緞)으로 만들었으며, 곡령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단추를 끼워 고정 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22)</sup> 또한 왕을 상징하는 오조룡(五爪龍) 무늬를 가슴, 등, 양어깨에 짜 넣었는데 용의 발가락의 수에 차이를 두어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지위를 드러냈으며<sup>223)</sup>, 이로써 왕복, 세자복, 세손복을 구별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청룡포에는 조선 초 상복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있다. 국보 제 317호 조선 태조 어진(그림 16)의 복식을 살펴보면 의자에 앉아 소각이 위쪽을 향해 달려 있는 익선관과 보의 크기가 앞면을 다 덮을 정도로 큰 곤룡포를 착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형식은 (그림 17)의 대만 국립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의 명태조상(明太祖像)과 비슷하며 색상과 배색의 차이가 있다.

머리에 익선관을 쓰고 걸은 아청색, 안은 홍색의 곤룡포를 입고 있다. 단령(團領)으로 많이 파이지 않았으며, 삼각무가 트여져있는 형태로 소매는 어깨에서 손 쪽으로 내려올수록 점차 좁아지는 원령 착수포이다.<sup>224)</sup> 태조 어진 곤룡포의 가슴과 어깨에는 금색 원형 용무늬가 있는데 가슴의 용보의 크기는 가슴과 배 아래쪽까지 다 덮을 정도로 매우 크고, 양 어깨에 달린 용보는 그에 비해 작다.<sup>225)</sup> 다섯 개의 발톱이 그려진 오조룡보로, 용의 머리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용 문양 주위에 아무런 구획을 하지 않았다.<sup>226)</sup> 또한, 태조의 청색 곤룡포는 명으로부터 고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 명대의 복식제도가 도입되기 전, 고려의 영향이 남아 있던 조선 초

221) 국립고궁박물관(2013), 전계서, p.74.

222) 문화관광부(2001), 전계서, p.20.

223) 홍순민(2005), 전계서, p.359.

224) 임명미(1997), 전계서, p.195.

225)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84.

226) 이수미(2006), 경기전 태조 어진의 조형적 특징과 봉안의 의미, 미술사학보 vol. 26, pp.7-9.

창기의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sup>227)</sup> 어진에서는 홍단으로 대를 짠 홍정 옥대를 두르고 있으며<sup>228)</sup>, 머리에는 모체가 낮은 검정색의 익선관을 쓰고 흑피화를 신고 있다.

영조 20년(1744년)에 완성된 「국조속오례의」에 의해 홍룡포 제도가 정립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곤룡포는 대홍단으로 만들고 여름용은 대홍사로 만들며 포의 앞, 뒤, 양 어깨에 금오조룡원보를 붙인다.”고 하였다. 소매통이 넓고 소매길이가 짧으며, 보의 옷감과 색은 포와 같았고 금사 징금수로 정교하게 수놓았다. 용의 머리는 정면을 보고 있고<sup>229)</sup>, 보를 지나가는 중간선이 없어 문양 주위에 둥글게 선을 그어 별도의 보를 부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sup>230)</sup>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 932호 영조의 어진(그림 18)은 홍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황금색으로 수놓은 오조룡원보를 가슴과 양어깨에 부착한 모습이다.

현재 유일하게 현존하는 홍룡포 유물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영친왕(英親王)이 착용하였던 홍룡포(그림 19)로, 겉의 단령과 안의 직령이 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령은 홍색 운보문사(雲寶紋紗)이며, 직령은 남색 운보문사로 하였고, 동정은 짙은 옥색의 숙고사(熟庫紗)를 사용하였다. 깃은 넉넉히 파여져 있고, 안감은 남색이며, 무는 뒷길에 고정되어 있으며 그 아래는 트임을 주었다.<sup>231)</sup>

조선시대 말기 황제가 착용하던 상복은 황색에 홍색 안을 넣어 만든 황룡포(黃龍袍)로서, 광무 원년(1897)에 고종이 칭호를 황제로 바꾸면서 「대명회전」 관복조에 따라 황제 상복은 황색이며 황태자는 적색, 친왕, 세자, 군왕은 모두 황태자와 동일하게 바뀌어 황룡포를 입게 되었다<sup>232)</sup>. 조선 말기

227) 권오창(1998), 전계서, p.18.

228) 조선미(1980), 조선왕조시대의 초상화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3-64.

229) 권오창(1998), 전계서, p.167.

230) 이수미(2006), 전계서, p.8.

231)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pp.12-15.

232)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9.

황룡포의 모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의 황룡포 유물(그림 20)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데, 황색 곤룡포의 오조룡보(五爪龍補)는 용문이 태조나 영조의 것보다 작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의 형태, 보의 문양 주위에 둥글게 선을 그었다는 점이 영친왕의 홍룡포와 동일하나, 겹옷인 황룡포의 안쪽 목 부분에 안감과 같은 옷감으로 직령을 덧대어 깃이 두 개 달려 있었고, 소매가 좁은 착수포이다. 국말에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의제개혁(衣制改革)을 단행하여 간편하게 착용토록 하는 노력으로 고종 31년(1894)에 갑오개혁 시에는 조관(朝官)의 장복으로 사모와 소매가 좁은 반령착수포를 입도록 하였고, 대례복으로 넓은 소매의 단령으로 하였으며, 본 유물은 고종이 왕실에서 모범적으로 소매너비를 넓지 않게 만들도록 지시하여 착용한 것으로 추측 된다<sup>233)</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의 상복은 익선관, 곤룡포, 옥대, 화로 구성되어 어지며, 조선시대 초기에는 고려의 영향이 남아있어 청룡포를 사용하였고 영조 20년 홍룡포의 제도가 정립되었으며, 국말 고종이 황제위에 오르면서 황룡포를 착용하였다. 왕의 곤룡포의 종류 및 특징은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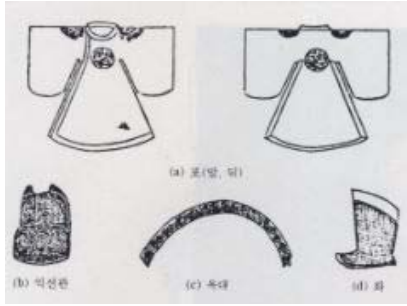
<그림 21>은 고종과 순종의 홍룡포 착용사진으로 1890년대 무렵 촬영되었다. 아직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기 이전이므로 고종 역시 홍룡포를 착용하였다. <그림 22>은 고종이 곤룡포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소매의 길이가 더욱 짧아지고 화장도 좁아진 형태를 보인다. <그림 23>은 고종의 가족 사진으로 곤룡포를 착용한 모습이다.

---

233) 상계서, p.61.

<표 9> 왕 곤룡포의 형태 및 특징

차 이	구 분			
	청 룡 포 (1425년)	홍 룡 포 (1744년)	황 룡 포 (1897년)	
깃의 형태 및 고정	곡령, 오른쪽 어깨에서 단추를 끼워 고정	청룡포와 동일	청룡포와 동일	
깃의 파임	많이 파이지 않음	깃이 넉넉히 파임	안쪽 목 부분에 안감과 같은 옷감으로 직령을 덧대어 깃이 두 개이며 파여져 있음	
보	크기	크기가 매우 크다	청룡포보다 작으나 황룡포보다 크다	청룡포와 홍룡포에 비해 가장 작다
	용머리 방향	왼쪽	정면	정면
	구획	용 모양 주위에 아무런 구획이 없음	금사징금수, 문양 주위에 둥글게 선을 그어 별도의 보를 부착	홍룡포와 동일
	그림	 태조 어진 (1872년)	 영조 어진 (1900년)	 고종 어진 (1913년)
겉감의 색	아청색	대홍색	황색	
안감의 색	홍색	남색	홍색	
소매	소매는 원령착수포	소매통이 넓고 소매길이가 짧음	소매가 좁은 착수포	
무의 형태	삼각무, 양옆이 트임	사다리꼴모양, 아래트임	홍룡포와 동일	
사여 및 제작	제작	「국조오례의서례」 참고 국속제작	「대한예전」 참고 국속제작	



<그림 14> 「국조오례의」 왕의  
상복 구성  
(「국조오례의」)



<그림 15> 고종 익선관 앞·뒷모습  
(문화재청(2006), p.26)



<그림 16> 태조 어진  
(문화재청(2006), p.25)



<그림 17> 명태조상  
(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8> 영조 어진  
(문화재청(2006), p.25)



<그림 19> 영친왕 곤룡포 앞·뒷모습  
(국립고궁박물관(2010), p.11,12)



<그림 20> 고종 황룡포 앞· 뒷모습  
(문화재청(2006), p.59)



<그림 21> 고종과 왕세자의  
익선관, 곤룡포 착용사진  
(국립고궁박물관(2012), p.75)



<그림 22> 고종의 곤룡포  
착용사진  
(국립고궁박물관(2012), p.75)



<그림 23> 고종의 가족사진  
(국립고궁박물관(2012), p.75)

## 2) 왕비복(王妃服)

조선시대 왕비는 가례, 제사, 연회, 친잠례 등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예복을 차려입었는데 색깔과 문양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 (1) 법복(法服)

적의는 조선시대 왕비의 법복(法服)<sup>234</sup>으로 가례의 절차 중에서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을 행할 때 입던 대례복<sup>235</sup>이다. 조선시대 최고 신분의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신분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그들의 신분적 위치와 권위의 상징으로 표상되기도 하였다. 적의에는 친애(親愛)·해로(偕老)를 상징하는 꿩 무늬를 수놓았다.<sup>236</sup>

조선시대 적의는 크게 초기 명에 의한 사여관복의 대삼 배자제와 영조 때 국속화시킨 적의제, 그리고 대한제국 성립 후 왕비가 황후로 승격되면서 제도화된 황후 적의제로 나눌 수 있다.

#### ① 대삼 배자제 (大衫 背子制)

명나라 영향기인 조선 전기에는 명으로부터 총 14번의 왕비관복사여(王妃冠服賜與)가 있었고 조선이 청에 굴복하기 까지 각 왕대(王代)마다 왕 면복과 함께 왕비복(王妃服)을 사여 받거나 새로 왕비를 맞이할 때 관복을 사여 받았다. 선조(宣祖)36년까지의 실록으로 보아 왕비의 관복사여는 대삼(大衫)의 형태로, 머리에 쓰는 칠적관(七翟冠), 옷은 배자, 하피, 상아홀(象牙笏)을 왕비에 복(禮服)으로 사여 받았다<sup>237</sup>. 명나라는 조선왕조를 그들의 친왕례(親王禮)로 예우하여 왕비의 예복을 친왕비례를 준용하여 대삼(大衫)을 보내었다. 대삼에는 배자, 하피(霞帔)와 부수복식으로 대대(大帶), 옥혁대(玉革帶), 수(綏), 옥패(玉佩), 말(襪), 석(舄), 옥규(玉圭)가 있었으며<sup>238</sup>, 그 특징을 각각 살펴보면 다

234) 유효순·최해울(2000), 전계서, p.179.

235) 박성실(1985), 전계서, p.24.

236)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116.

237) 홍나영, 유희경(1983), 전계서, pp.6~7.

238) 박희정, 간호섭(2001), 조선시대 궁중가례복식 중 왕비복을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연구 :

음과 같다.

대삼은 다홍색이고 문식(文飾)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배자는 청색바탕에 적계문(翟鷄文)을 수놓았다.<sup>239)</sup> 조선 전기에 사여된 하피는 청색바탕의 라직을 사용하여 명(明)의 명부품예복(命婦品禮服)에 해당하는 제도로 신분에 따라 구름무늬에 용, 봉, 적문을 수놓아 착용하였다. 하피 모양은 긴 한 폭과 같이 되어 있어 이것을 목에 걸치고 어깨의 앞뒤에 늘어뜨리는 것으로 등 뒤 흉배(胸背) 아래까지 늘이고 가슴 앞에서는 치마 끝까지 늘어뜨려 두 폭이 겹치지 않게 추자(墜子)로 맺는다<sup>240)</sup>. 대대는 홍라로 하였고 뒤에는 수를 늘렸으며, 옥패를 양옆에 차고 옥규를 들었다.<sup>241)</sup>

## ② 임진왜란 이후의 적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를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명 복식의 영향기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방식으로 적의제도가 변화<sup>242)</sup>되면서 점차 조선 복식 형성기로 접어들었다. 인조 16년(1638)에 거행된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를 통해서 왕비의 적의가 제작되었음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적의 일건차(翟衣 一件借)에서 입자 내제조(入自 內製造)란 기록이 나와 궁궐 안에서 제작하였음이 보인다.<sup>243)</sup>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고비로 왕비의 예복은 「대명회전」(그림 24)에 의해 적의제를 제정했다<sup>244)</sup>. 이후 가례도감의궤에는 적의로 기록되고 있다. 적의는 대홍색(大紅色)으로 적문(翟紋)도 왕의 장문(章紋)수에 대응하도록 구성하였다.<sup>245)</sup>

영조 때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 적의의 구성으로 의, 중단, 하피, 내의,

---

적의를 중심으로, 디자인포럼21. 4(-), p.151.

239) 박희정·간호섭(2001), 전계서, p.151.

240) 홍나영, 류희경(1983), 전계서, p.14.

241) 류희경 외(2001), 전계서, p.86.

242) 유효순·최배율(2000), 복식문화사, 신광출판사, p.179.

243)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학사, p.219.

244) 홍나영, 류희경(1983), 전계서, p.17.

245) 김경미(2011), 전계서, p.17.

상, 폐슬, 대대, 혁대, 패옥, 수, 말, 석, 규 등을 갖추어 적의일습의 제도적인 완성을 이루고 부분적으로 신분을 구분하여 사용토록 제도화 하였다.<sup>246)</sup> 의와 하피, 석, 규의 형태는 1638년 가례도감의궤에 나온 장렬왕후의 적의도상(그림 25)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적의제도는 다음과 같다.

선조 36년(1603)까지 십수차례 걸쳐 사여된 적의제도는 청색적의가 아닌 대홍대삼의 전단후장형이다. 전면의 좌우가 서로 마주 대하여 곧게 내려가는 형태로 앞길이는 치마 끝과 가지런하고, 뒷길이는 치마 끝에 1척 남짓 길도록 하였다.<sup>247)</sup> 적의 양 어깨와 앞뒤에 금사로 수놓은 오조원룡보를 붙이며, 앞면의 보 아래에는 좌우로 수놓은 원적(圓翟) 일곱 개를, 뒷면의 보 밑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아홉 개의 원적을 붙여 의단(衣端)에 이르게 하였다.<sup>248)</sup> 좌우 소매는 너비가 옷 앞길리와 같고 수구(袖口)의 겹면에도 원적을 왼쪽과 오른쪽에 아홉개를 붙여 그 수를 모두 51개<sup>249)</sup>로 구성하였다.

중단은 적의를 입을 때 겹옷 안에 갖추어 입는 옷으로 우리나라 왕비예복 제도에는 명의 황태자비복에 있는 중단이 없었는데, 왕비와 왕세자빈은 대홍향직 별의(別衣)를 중단으로 착용한 것으로 추정 된다.<sup>250)</sup> 가장자리에 홍색선을 두르고 깃에는 황후 13개, 황태자비 11개의 불문을 그렸다.<sup>251)</sup> 하피는 명태자비 적의에는 없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있는 장식으로서, 검은 소단 바탕에 분홍색 삼팔주를 넣어 겹으로 만들고 운문과 적의에 묘사된 적문과 달리 날개와 꼬리를 편적계문이 양쪽으로 13씩 중앙을 향하여 26개씩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sup>252)</sup>. 상은 영조 이후 적의제가 국속화되면서 사용되었고 청단(靑)으로 만드는데 앞은 세 폭으로 짧고 연(連)이었으며, 뒤의 네 폭은 길게

246)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3.

247) 유송옥(1998), 전계서, p.167.

248) 엄정옥(2011), 전계서, p.105.

249) 김영숙(1987), 조선말기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p.195.

250) 박희정·간호섭(2001), 전계서, p.152.

251) 국립고궁박물관(2013), 전계서, p.110.

252)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1.

하여 두 폭씩 꿰매 서로 겹치게 하였다. 전후에는 벽적이 있었으며 중간하 열에는 빈은 봉문, 비는 용문을 금박하여 사용하였다<sup>253</sup>). 폐슬은 「국조오례 의」에 나타난 왕의 것과 같고 무회(無繪)라 하였고, 대홍향직으로 하였으며, 훈색(纁色)바탕에 장문이 없고, 위에는 비(批), 아래는 순(純)이라는 본색의 연이 있었다<sup>254</sup>). 대대는 대홍단을 곁감으로 백릉(白綾)을 안감으로 하여 녹색연(綠緣)을 둘렀으며<sup>255</sup>, 혁대는 옥으로 장식한 것으로 옥혁명대하고 불리우며 왕비 관복 사여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적의를 만들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256</sup> 패옥은 2개로 되어 있으며 가운데는 거와 우, 밑에는 민옥의 쌍황, 층아, 쌍적이 있었다. 수는 홍화금으로 하고 쌍금환을 부착한 형태이다.<sup>257</sup> 말, 석, 규는 모두 전하의 것과 같았으나, 석단(濶端)에 홍록사(紅錄絲)의 화문 3개를 달았으며, 규는 백옥규(白玉圭)이다.<sup>258</sup>

### ③ 조선시대 말기의 적의

고종의 황제위에 오르자 고종이 황제의 복장을 착용하면서 적의도 명 황후의 것과 같은 규모의 적의를 제정하여 십이등 심청색 적의를 착용할 수 있었으며<sup>259</sup> 중국 적의의 적문 사이에 윤화를 넣었던 데 반하여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에는 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꽃으로 국속화된 이화문(李花文)이 수놓아져 있다<sup>260</sup>. 심청색 바탕에 적문과 이화문을 시문하였고, 그 배치 등급에 따라 신분적 차이를 두어 십이등적의는 황후용으로, 구등적의는 왕비와 황태자비용으로 구분하였다.<sup>261</sup>

적의는 현재 일반에 널리 알려진 형태로서 짙은 청색의 얇은 비단으로 지

253)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268.

254) 박희정, 간호섭(2001), 전계서. p.152.

255) 임명미(1997), 전계서, p.366.

256) 유희경(1972), 전계서, p.97..

257) 유희경·김문자(2006), 전계서, p.269.

258) 박희정, 간호섭(2001), 전계서. p.153.

259)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9.

260) 상계서, p.51.

261) 국립고궁박물관(2011). 국제 학술심포지엄 왕실복식적의, p.98.

었다. 황후의 적의는 여기에 12등분하여 적문을 넣었는데 대개 148쌍이었고<sup>262)</sup>, 왕비나 황태자비의 적의는 구등적으로 꿩 132쌍을 수놓았다.<sup>263)</sup> 깃, 소매단, 밑단에 홍색 선이 둘러져 있었으며 앞뒤에는 왕과 마찬가지로 금색 오조룡보를 붙였다.<sup>264)</sup> 옥색으로 지은 중단을 입었고, 적의 위에는 흑색단 위에 봉황문과 운문이 각각 26개씩 금박되어 있는 하피를 걸치었으며, 푸른 저사사라 폐슬을 입었다. 겹은 청색이고 안은 홍색인 운룡문을 직금한 대대와 옥혈대를 하였고, 패옥과 수를 장식하였다.<sup>265)</sup> 청색의 말과 석을 신었으며, 손에는 구부러진 옥규를 들었다.<sup>266)</sup>

현재까지 전하는 적의의 유물로는 세종대학교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와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친왕비의 구등적의, 역사박물관 소장 착용자 미상의 구등적의로 총 3점이나 착용자 확인이 가능한 2점의 유물만을 연구하여 재현 제작에 활용하였다.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의 1922년 순정효황후의 적의(그림 26)는 적문과 이화문(그림 26-f)을 나란히 하여 꿩 154쌍을 수놓은 십이등적의이다. 이 적의는 홑옷으로 끝은 깃에 옷 길이가 길며 소매와 품이 넓었고 화장도 길었으며 옷깃, 섶, 밑단에 홍색선이 둘러져 있었다. 적의의 화문은 윤화(輪花) 대신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대한제국 시기의 이화(李花)문을 직문한 것으로 자주성을 나타냈으며, 화문의 가운데 구등적의와 같은 소륜화 도안이 없어지면서 꽃술로 대체하였다. 꽃술은 흰색 선으로 표현하고 둘레에는 흰색에 붉은 선을 두른 5장의 꽃잎을 둘렀다<sup>267)</sup>. 적문은 오방색인 녹색, 백색, 홍색, 황색, 흑색의 실로 짜여있었다. 적의에 들어가는 꿩 무늬의 테두리는 금가루

262) 박희정·간호섭(2001), 전계서, p.153.

263) 권오창(1998), 전계서, p.102.

264) 박성실(1985), 전계서, p.39.

265) 이민희(2014), 조선시대 왕비적의에 관한 연구와 복원제작,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266) 유효순·최배율(2000), 전계서, p.180.

267) 국립고궁박물관(2011). 전계서, pp. 19-23.

로 그렸으며, 뒷길 도련 중앙 홍단(그림 27-c)에는 이음선이 있으며 화염문이 금직되어 있고 그 끝에도 쌍밑이 고리가 달려 있다.<sup>268)</sup> 적의 앞뒤에는 황금색 오조룡보를 부착하였다. <그림 27-b>의 용보는 두 쌍 중에 한 개를 제외하고 같은 방향으로 수를 높아 부착하였다.<sup>269)</sup> 여기에 옥색중단(그림 27-a)과 하피를 걸치었다. 폐슬은 심청색 바탕에 적문 두 쌍씩 상대하여 3단, 소륜화 한 개씩 두 줄로 4단이 직성 되어있고 홍선에는 적의와 같이 운용문과 모서리부분에 화염문이 금사로 제직되어 있다.<sup>270)</sup>(그림 27-d) 또한, 황후의 십이등 적의와 함께 청색 공단으로 만든 청석(靑鴛)(그림 27-e)을 신었다.

유물로 남아 있는 영친왕비(英親王妃)의 적의(그림 28-a,b)를 살펴보면, 심청색(深靑色)의 문단(紋緞)을 홀으로 지었고 138쌍의 꿩과 오얏꽃 형태의 소륜화(小輪花) 168개의 무늬가 구등으로 짜여 있었다. 깃, 도련, 섶과 수구에는 홍색 운봉문직금능(雲鳳紋織金綾)으로 선을 들렀는데 연금사(撚金絲)로 직금하였고<sup>271)</sup>, 중단은 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272)</sup> 적의 위에 폐슬과 하피(그림 28-c,d)를 착용하였다. <그림 29>는 영친왕비와 순정효황후의 적의 착용사진이다.

268)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0.

269) 홍나영(1983), 전계서, p.31.

270) 문화재청(2006), 전계서, p.51.

271) 신명호(2002), 조선왕실문화와 생활궁중문화, 돌베개,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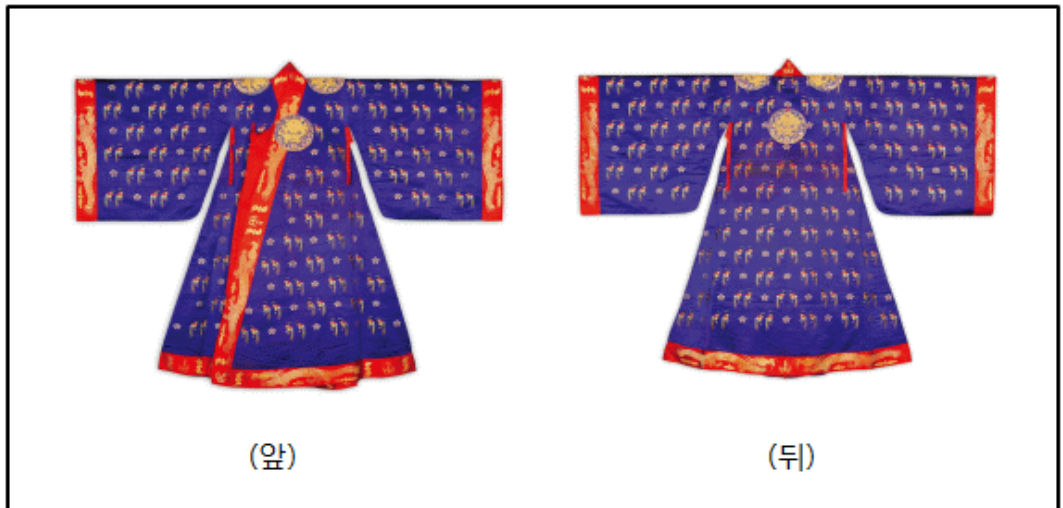
272) 국립고궁박물관(2011). 전계서, p.120.



<그림 24> 「대명회진」의  
적의도  
(국립고궁박물관(2011), p.26)



<그림 25> 「가례도감의궤」의 장렬왕후  
적의도상(1638년)  
(문화재청(2012), p.11)



<그림 26> 순정효황후 십이등적의 앞·뒷모습  
(문화재청(2006), p.47,49)



<그림 27> 순정효황후 십이등적의 중단, 보, 밑단, 폐슬, 하피, 석, 문양  
 (문화재청(2006), p.46, 48, 50, 52, 53, 55)



(a)



(b)



(c)



(d)

<그림 28> 영친왕비 구등적의 앞·뒷모습, 폐슬, 하피  
 (국립고궁박물관(2010), p.42,43, 문화재청(2007), p.99,110)



<그림 29> 영친왕비와 순정효황후의 적의 착용사진  
(국립고궁박물관(2012), p.101)

## (2) 상복(常服)

### ① 노의

노의는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하여 원삼 이상으로 중시되었던 예복으로 길례, 가례 시에 착용된 것으로 보인다. 노의는 조선시대 초기까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의 구분 없이 착용되어지다가 점차 의례화되어 홍색의 원적 무늬가 금박으로 놓여져 있었고 상궁이하는 착용하지 못하였다.<sup>273)</sup> 「국혼정례」에 지정된 바 있는 노의를 보면 대홍향직(大紅鄉織)을 사용했으며, 소매 끝에는 남색한삼이 붙어 있고 여기에 자색라(紫色羅)로 된 노의대(露衣帶)를 띠었다.<sup>274)</sup> 남자의 단령과 같이 넓고 크다는 기록이 있고, 인조장렬 후 가례에 그려놓은 노의의 형태를 보아 적의와 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sup>275)</sup> 「가례도감의궤」, 「국혼정례」와 「상방정례」에 기록된 비빈(妃嬪), 대군부인, 공·옹주의 노의를 살펴보면, 노의의 색은 대홍색으로 모두 같으나, 왕비의 노의는 금수(金壽)한 흉배(胸背)를 달며, 대군부인이나 공·옹주의 것은 비빈과 의차(衣次)에서 차이를 보인다.<sup>276)</sup> 노의 속에는 황사(黃紗)로 만든 중삼(中衫)을 입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황중삼은 흰 동정이 달린 홑옷으로<sup>277)</sup>소매가 크고 길이가 긴 예복으로 보인다.<sup>278)</sup> 조선 초기 노의의 형태는 둥근 깃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로 대를 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 목록에 나타난 신분별 노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전과 빈궁의 금원문 노의는 대홍색 향단으로 소재가 같으나 명칭상 중전의 노의에만 흉배를 장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구에는 한삼이 달려있고 자색 라로 된 노의대를 둘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숙의 이하 군부인, 공주, 옹주의 단노의는 대홍색 광적을 사용하며 금원문의 기록이 없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노의 유물인 청연군주 노의

273) 안명숙·김용서(2006), 전계서, p.117.

274) 이순홍(1992), 韓國傳統婚姻考, 학연문화사, pp.194-195.

275) 김연자(2002), 조선왕조 왕세자빈 적의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계서, pp.23-24.

276) 권혜진(2009), 전계서, pp.19-20.

277) 유송옥(1991), 전계서. pp.208-230.

278) 임영미(1997), 전계서, p.356.

의 경우 복식 전체에 원앙 금원문 금박 장식이 나타나 있어, 기록과는 달리 실제 제작에 있어서는 화려한 금원문 장식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sup>279)</sup>. 노의의 형태는 앞은 뒤보다 짧고 뒤는 끝릴 정도로 길으며 수구에는 남색태수가 달려있다. 부금한 자색 대를 늘이고 전면에는 315개의 쌍봉문을 부금하여 화려하다. (그림 30, 31)

## ② 장삼

중국계 포의(袍衣)의 하나로 왕비의 상복이며 4품 이상 정처(正妻)의 예복으로 착용되어 왔다.<sup>280)</sup> 원삼과 비슷한 모양이나 소매나 옷 길이가 짧은 형태이다. 「국혼정례」에 나오는 장삼은 겹으로 대홍색이며, 흥배와 한삼이 달려있고, 대홍라(大紅羅)로 된 대를 띠었다.<sup>281)</sup> 복색은 주로 대홍색이며 종류에 따라 자색(紫色)과 녹색(綠色)도 사용되었다. 또한 안감은 곁감과 같은 대홍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남색을 대어 보색을 이룬 것도 있었다.<sup>282)</sup> 옆이 트이지 않은 두루마기 형태이며, 노의에는 없는 동정이 장삼에는 달려있다. 장삼은 조선 전반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복이었다가 중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원삼과 당의로 예복이 집약되면서 없어져 갔다.<sup>283)</sup> (그림 32)

279) 권혜진(2009), 전계서, pp.15-23.

280) 김명숙(1984),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 8(3), p.247.

281) 유희경, 김문자(2010), 전계서, p.271.

282) 김정규(2010), 朝鮮時代 婚禮儀式에 관한 研究: 女子婚禮服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6.

283) 이혜진(2010), 전계서, p.37.



<그림 30> 노의 형태와 직금 문양  
(임영미(1997), p.359)



<그림 31> 청연군주 노의 복원  
(구혜자, 한국궁중복식연구원)



<그림 32> 장삼 복원  
(황복희, 한국궁중복식연구원)

### ③ 원삼

원삼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여성의 상복이다. 대금형(對衿形)의 맞깃이며 뒷길이 앞길보다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이 대부분이며, 길이가 바닥까지 이르는 긴 포의 형태를 하고 있다. 겨드랑이 아래로 길게 트임이 있고, 섶과 무가 없으며, 두리 소매로 소매 끝에는 색동과 백색의 한삼(汗衫)을 연결하였다. 길의 안쪽 둘레에 청색 선을 둘렀고 길이가 길어 별도의 대를 착용하였다.<sup>284)</sup> 원삼에는 신분에 따라 보나 흥배를 단 것도 있었으며, 지위에 따라 색과 무늬를 달리하여, 황후는 황원삼, 왕비는 흥원삼, 왕세자비는 자적원삼, 공주와 옹주는 녹원삼을 착용하였다.<sup>285)</sup>

흥원삼은 왕비의 붉은 자주색 원삼으로, 옷과 대에는 봉황무늬를 금실로 짜서 넣었다.<sup>286)</sup> <그림 33-a,b>는 영친왕비가 착용했던 원삼으로 대홍색 겹감과 황색 안감을 겹으로 바느질하여 만들었다. 겹감은 구름과 봉황 무늬가 시문된 운봉문단이며, 안감은 수자(壽字), 박쥐(蝙蝠), 표주박(瓠蘆緞)이 시문된 황색 편복문이다. 운봉문단에 편금사를 넣어 봉문을 직금하였는데, 어깨와 배래, 도련에 운봉문을 장식하였다.<sup>287)</sup> 화장은 긴 편이고 소매 끝에는 황색과 남색의 두 줄 색동이 있다. 백색의 한삼(汗衫)이 달려 있는데 큼직한 모란과 보상화가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백·청·황의 순서로 경사를 걸고 수자직으로 직조하면서 편금사(片金絲)로 문양을 직금한 것이다<sup>288)</sup>. 국경일과 같은 날에 대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오조룡의 운룡문을 금수한 원보를 양어깨와 앞, 뒤에 가식하였으며, 왕의 경사 때 소례복으로 착용하여 쌍룡문을 금수한 흥배를 앞뒤에 가식하였고, 좌우 맞깃의 형태이다.<sup>289)</sup> 원삼에는 흥대(紅帶)(그림 33-c)를 띠었는데, 앞에서 뒤

284) 임현주(2011), 조선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pp.12-15.

2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286) 유효순·최배율(2000), 전계서, p.181.

287) 임현주(2011), 전계서, pp. 142-143.

288) 문화재청(2007), 조선조왕조복식, 문화재청, p.116.

로 돌려 매고 나머지는 아래로 한 번 더 매듭을 짓고 드리운다.<sup>290)</sup>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함께 왕비 역시 황후로 승격되고 원삼도 황후의 복색을 좇아 황원삼으로 바뀌었다.<sup>291)</sup> 황원삼 유물의 형태 특징으로 소매 끝에는 홍·청 화문직금단의 왕실전용의 두 줄 색동이 달려있다. 연이어 흰색 직금단 한삼이 홀으로 달려있다. 모란과 보상화문의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으나 금사의 변색이 심하다. 안감은 홍색 비단으로 호리병, 박쥐, 화염문, 동그란 모양의 수자문이 있는 호로문단(胡虜文緞)이다. 색동선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에 남색 비단선을 돌려 주었다. 도련의 남색선은 안감의 도련에만 대어주었다. 소매배래 부분이 4겹으로 바느질되어 있어 간소화된 왕실 바느질법의 변화를 보인다<sup>292)</sup>.

<그림 34-a,b>의 순정효황후 황원삼의 겉감은 황색 문자화문단(文字花紋緞)으로 백수(百壽), 복(福), 다남(多男), 복숭아(桃), 석류(石榴), 각종 보문(補文) 등의 길상무늬가 시문되어 있었다. 안감을 색동부분까지 연결하고 끝부분과 안감의 도련에 청색 선(線)을 돌려 주었다. 황금색 문단(紋緞) 직물에 화려한 직금(織金) 장식과 금사(金絲)로 수놓은 용보(龍補)(그림 34-c)가 달려있으며<sup>293)</sup>, 금단추 디테일까지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여 황실의 위엄과 권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순정효황후의 황원삼 착장 모습(그림 35)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36>의 순정효황후가 착장한 황원삼을 살펴보면, 저고리 삼작을 입은 후에 황원삼을 입고, 남색 대란치마 위에 자주색 대란치마를 입었다. 대대는 대홍단으로 하고 대대 앞에 대삼작노리개와 진주낭자를 찻으며 황색 비단 석을 신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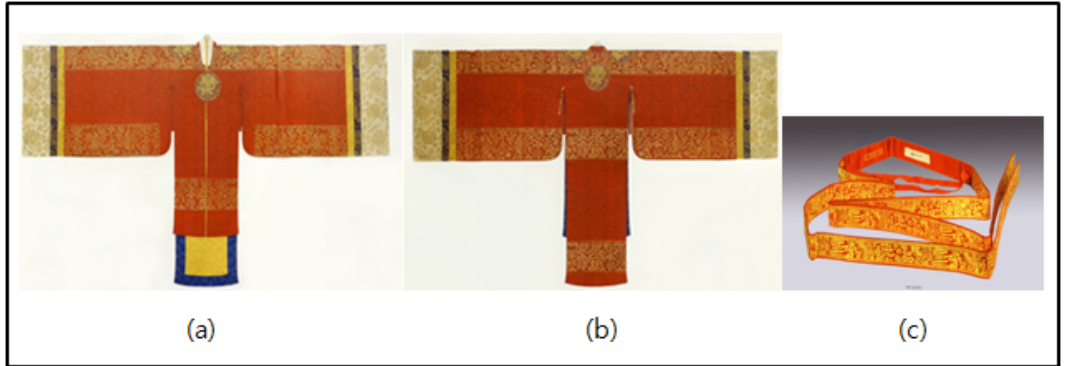
289) 백애현(2007), 아름다운 우리옷, 죽심, pp.57-57.

290)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관(1999), 조선조후기궁중복식 : 영왕복식중심, 문화재청 궁중유물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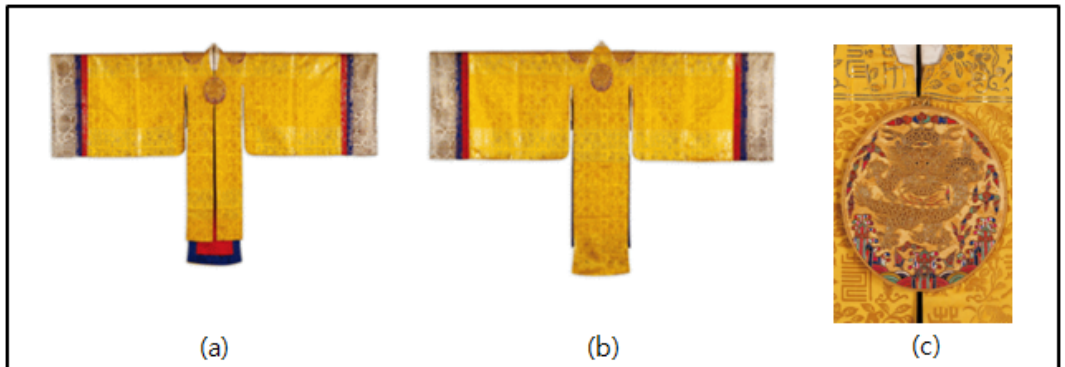
291) 금기숙(1998),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p.87.

292) 문화재청(2006). 전계서. p.41.

293) 임현주(2011), 전계서 pp.129-130.



<그림 33> 영친왕비 홍원삼 앞·뒷모습과 홍대  
 (국립고궁박물관(2006), p.52,53,-)



<그림 34> 순정효황후 황원삼 앞·뒷모습과 보  
 (문화재청(2006), p.39,40)



<그림 35> 순정효황후 원삼  
착용사진 I  
(국립고궁박물관(2012), p.120)



<그림 36> 순정효황후 원삼  
착용사진 II  
(국립고궁박물관(2012), p.120)

### Ⅲ.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 재현 제작

본 연구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을 재현 제작하는 것으로 왕의 복식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이 착용하였던 순인갑사로 만든 구장복과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書例)」에 기록된 제도를 참고하여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제작하였으며 십이장복 유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순종의 사진으로 착용을 확인할 수 있기에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실려 있는 십이장복의 현의, 중단, 상, 폐슬을 재현하였다. 왕의 제복인 강사포 유물은 현존하지 않으나 순종과 고종의 사진으로 착용여부를 알 수 있고 「국조오례의서례」의 관복도설에 왕의 원유관복이 실려 있어 강사포, 중단, 상, 폐슬의 형태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왕의 상복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황룡포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홍룡포를 재현하였다.

왕비의 복식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가 착용하였던 십이등적의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구등적의를 각각 적의, 중단, 폐슬, 대, 하피로 재현하였으며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황원삼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홍원삼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복식 재현

		복식	부속품	착용자	유물	사진	그림
왕	면복	구장복	현의 중단 상 폐슬	고종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십이장복	현의 중단 상 폐슬	순종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
	제복	강사포	현의 중단 상 폐슬	고종(좌) 순종(우)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
	상복	황룡포	황룡포	고종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홍룡포	홍룡포	영친왕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왕비	범복	십이등 적의	적의 중단 폐슬 대 하피	순정효 황후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구등적의	적의 중단 폐슬 대 하피	영친왕비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상복	황원삼	황원삼 대대	순정효 황후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홍원삼	홍원삼 대대	영친왕비	국립고궁 박물관 소장		

## 1. 왕의 면복(구장복)

왕의 대례복으로 구장복, 십이장복이 있는데 십이장복의 유물은 없으므로 바느질 방법 비교가 불가능하여 구장복을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구장복 유물은 총 2점으로 고종이 착용한 은조사 구장복과 순인갑사 구장복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장복 현의와 중단을 고종의 순인갑사 유물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전래된 2점의 구장복의 치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고, 갑사 구장복 제작 시 화장, 진동, 고대, 소매너비, 수구, 단 너비, 동정길이만 알 수 있어 나머지 치수는 은조사 구장복을 참고하였다. 상과 폐슬은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1474년 성종 때 편찬된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의 면복도설(冕服圖說)에 기록된 제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갑사 구장복은 산(山) · 용(龍) · 화(火) · 화충(華蟲) · 종이(宗彝) · 조(藻) · 미(米) · 보(黼) · 불(黻)문 등 장문이 9개가 있는데 그 중 현의에 용 · 산 · 화 · 화충 · 종이 등 5개 장문을 그린다. 양쪽 어깨에는 용, 등에는 산이 그려져 있으며, 소매 뒤쪽에는 화 3개, 화충 3개, 종이 3개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위치해 있다.

현의는 흑색의 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길이 119cm, 화장 96.5cm, 품 48cm, 진동 21.5cm, 고대 17.5cm, 소매너비 63cm, 수구 22cm에는 박쥐매듭 단추를 달아주었다. 수구 · 섯선 · 밑단에 너비 8.5cm의 흑색의 밑단을 안으로 들렀고, 순인갑사로 된 65.5cm의 흰 동정을 달았다. 어깨바대와 겨드랑이 바대가 부착되어 있고 겨드랑이 사이에 길고 좁은 끈이 달려있다. 시접 처리는 통솔 바느질을 많이 사용하였다. 고름은 안길 쪽이 파손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속고름까지 남아있다. 뒷고대 중심에서 23.5cm 내려온 부분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17cm 나아간 부분까지 단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는 방심곡령, 수, 대대를 착용할 때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단은 청색 순인으로 만들었으며 홀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는 124cm로 현의보다 길고 소매너비는 62cm로 겹보다 1cm 작게 하여 수구는 같은 위치에서 실로 고정하여 수구 밑은 바느질로 막았다. 중단이 구장복 보다 길이가 긴 것은 현의와 중단 사이에 두르는 붉은색 상이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의와 같이 수구 · 섯선 · 밑단에 흑색 선을 대었고 흑색 고름이 달려 있으며 깃에는 아자(亞字)형 불문 11개가 부금되어 있다.<sup>294)</sup>

상은 앞의 3폭과 뒤의 4폭을 따로 만들어 하나의 허리말기에 이어붙인 형태로 앞쪽 중 첫째 폭과 셋째 폭에 조 · 미 · 보 · 불의 4가지 장문이 수놓아져 있다. 폐슬은 세로로 긴 사각형으로 위쪽 가장자리에 고리나 끈이 달려 있고 앞에 조 · 미 · 보 · 불의 4개 장문이 수놓아져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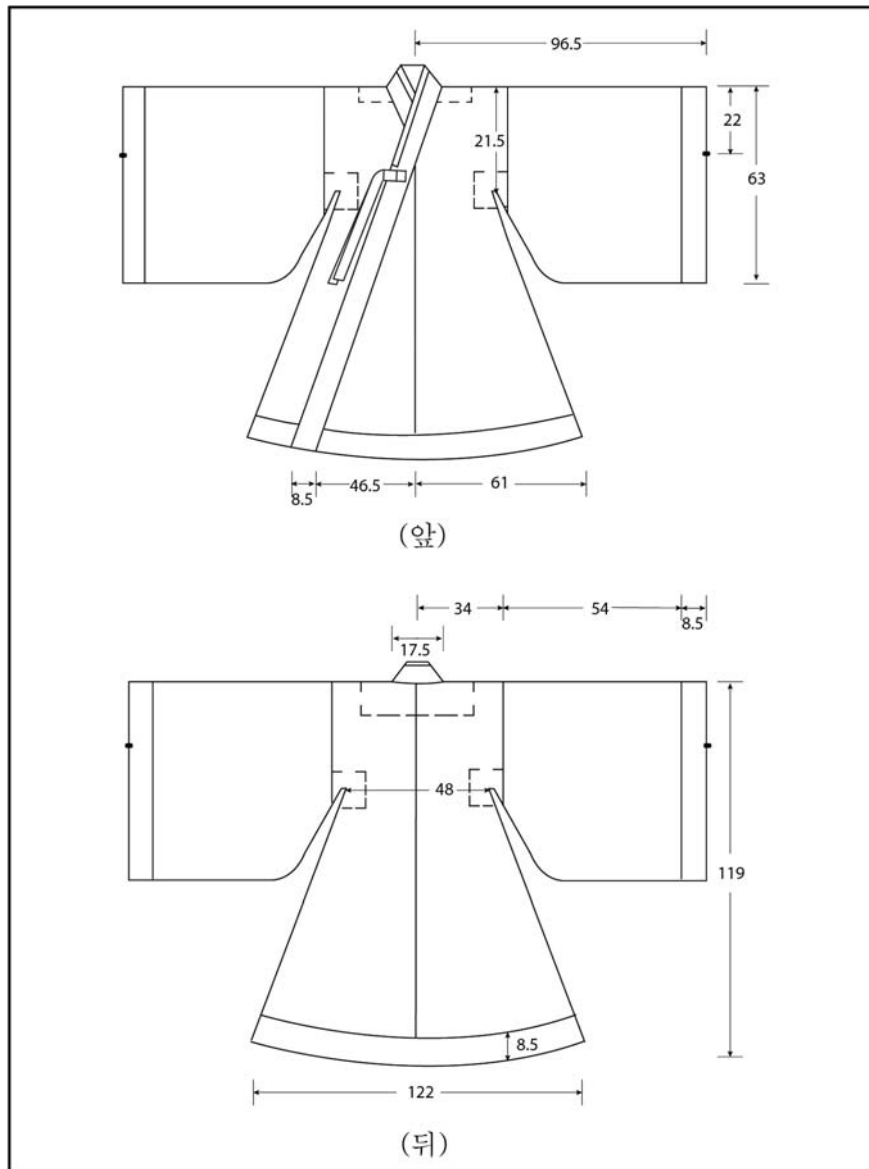
294) 문화재청(2006), 전계서, p.71.

1) 구장복

(1) 구장복 현의

① 도식화

구장복 현의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구장복 현의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구장복 현의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순인갑사이고 각 치수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구장복 현의 소재 및 치수

구장복 현의			
구성	홀		
색상	현(玄)색, 백(白)색		
소재	순인갑사(silk)		
원단소요량	겉감(현색) - 폭 110cm, 길이 1040cm 동정(백색) - 폭 110cm, 길이 70cm		
치수 (cm)	길	뒷길이	119
		앞길 아래너비	61
		뒷길 아래너비	61
		화장	96.5
		품	48
		고대	17.5
	소매	진동	21.5
		두리	10
		너비	63
		수구	22(박쥐매듭)
		소매길이	54
	깃	길이 × 너비	260 × 8.5
	섶	겉섶 길이	101.5(內)
		겉섶 너비	46.5(下)
		안섶 길이	92(內) 116.5(外)
		안섶 너비	39(下)
	등바대	가로 × 세로	52 × 18
	겉바대	가로 × 세로	8 × 8
	고름	긴고름 길이 × 너비	82.5 × 7
		짧은고름 길이 × 너비	75 × 7
		안고름 길이 × 너비	50 × 4
		대대고리 길이 × 너비	70 × 1.5
	동정길이×너비		65.5 × 5
소매단 / 밑단		8.5 / 8.5	

### ③ 마름질 방법

길에서 앞길은 길이 119cm, 아래너비 71cm, 윗너비는 1/2품 24cm에 두리 10cm를 더한 34cm로 하고,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1.5cm, 두리는 1cm를 두어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뒷길은 앞길과 동일하나 아래너비를 51cm로 하여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앞길의 아래너비 10cm가 뒷길로 넘겨져서 완성된 옷의 모양은 앞, 뒤가 동일하게 61cm가 되게 한다.

소매는 길이 54cm, 너비 126cm의 양쪽으로 시접을 1.5cm씩 두어 두 장을 마른다.

겉선은 사선 길이 101.5cm, 아래너비 46.5cm, 안선은 길이 92cm, 아래너비 39cm에 시접을 1.5cm로 두고 한 장씩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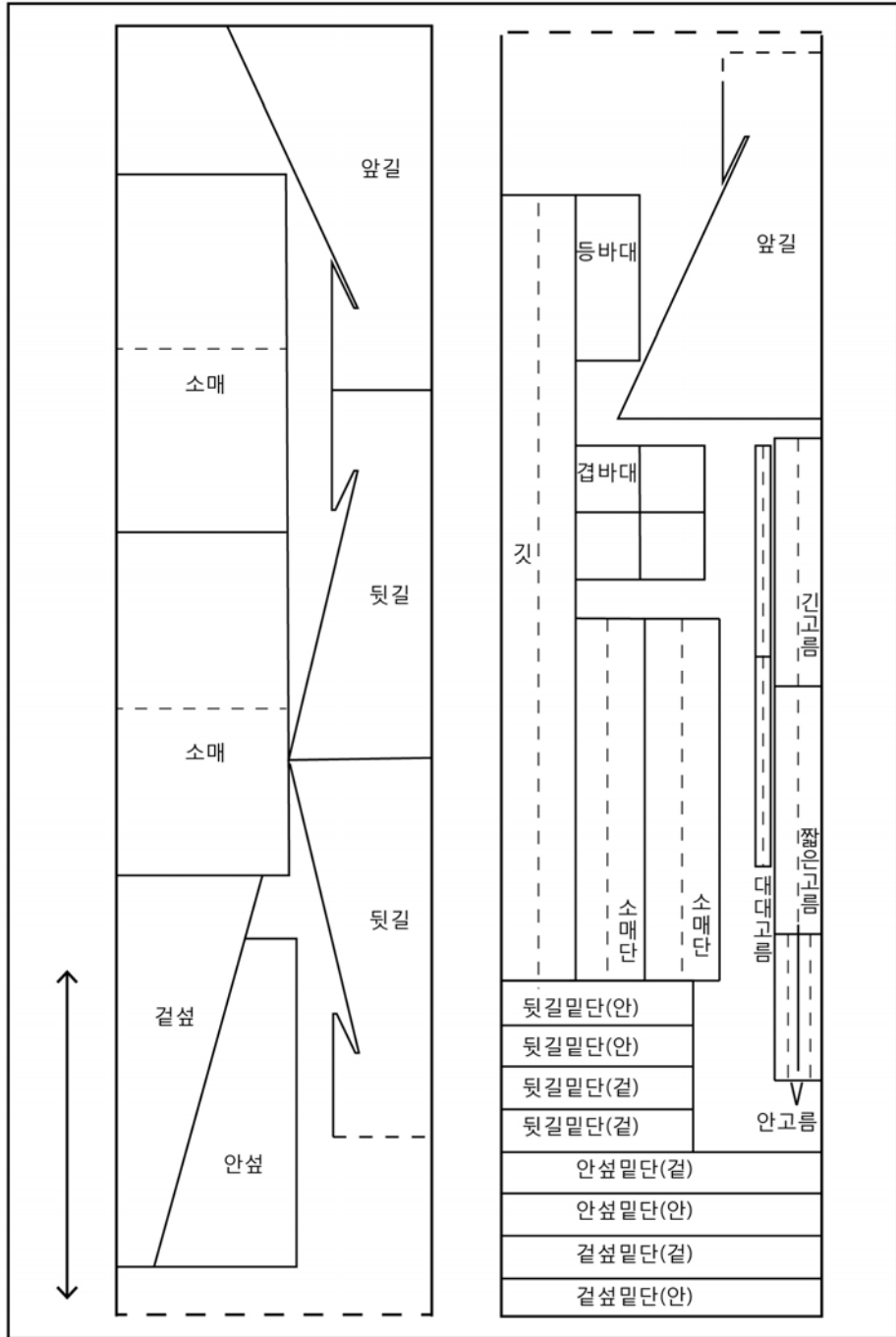
깃은 길이 260cm 너비를 8.5cm로 하여 골선으로 재단하는데 양쪽 3cm씩 시접을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8.5cm로 하여 양쪽 시접 3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은 122cm이므로 61cm씩 네 장을 마르고, 겉선 밑단은 107.5cm로 두 장, 안선 밑단도 100cm로 두 장을 마른다. 소매단은 126cm로 하여 시접을 포함하고 골선으로 두 장 마른다. 모든 아랫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겉고름은 너비를 7cm로 하고 골선으로 마르며 길이는 긴 고름 82.5cm, 짧은 고름 75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4cm에 길이 50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골선으로 두 장을 마른다.

대대 고리는 너비 1.5cm에 길이 70cm로 두 장을 골선으로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52cm, 세로 18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한 장을 마르고, 겉바대는 가로와 세로를 8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네 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8>와 같다.



<그림 38> 구장북 현의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 a. 등솔

어깨와 진동을 시침실로 표시하고 등솔 두 장을 시침하여 고대 중심점에서 도련 길 쪽으로 싹솔 바느질 한다.

처음 시작 부분을 다리판 위에 편으로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하면 당기는 힘에 의하여 바느질하기가 편리하다.

바느질한 부분은 다리미로 곱게 다려 싹솔 바느질 할 준비를 하는데 넘기는 쪽 시점은 1.5cm, 싸이는 쪽 시점은 0.5cm로 하고, 0.5cm 시점을 1.5cm로 감싸 접어서 시침질한 다음 바느질을 하며, 시점 방향이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완성선을 꺾어 다린다.

##### b. 등바대

등바대는 어깨선을 중심으로 앞길과 뒷길에 걸쳐 고대지점을 잘 맞추어 단다. 시점을 등바대 안쪽으로 넣은 후 0.2cm 간격으로 감침질을 하는데 이때 실을 너무 당기지 않도록 곱게 바느질 한다.

##### c. 소매단

소매의 겹감 쪽 수구 위에서 단 너비만큼 들어간 부분에 소매단을 올려놓은 후 시침하고 바느질한다. 소매단은 골선으로 마름질하였으므로 반을 접은 후 시점을 1cm로 정리하여 소매단 안으로 넣고 공그르기 바느질 방법으로 연결한다.

##### d. 셔 연결

겉셔는 길의 사선에 셔의 직선을 놓고 시침한 후 바느질하며, 도련 쪽은 사선이다. 안셔는 길의 직선 위에 셔의 사선을 놓고 시침한 후 바느질하며, 도련 쪽은 직선이다. 시점은 싹솔 바느질 방법으로 처리하고 겉셔는 시점을 겉셔 쪽으로 넘기며, 안셔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 e. 소매 연결하기

두리와 소매를 잘 맞추어 밀리지 않도록 시침질한 후 바느질 한다. 시점

은 쌍술 바느질하고 소매 시접은 몸판 쪽으로 넘긴다.

f. 배래하는 방법

소매는 골선이므로 안과 안을 마주대어 진동, 두리, 수구를 맞추고 시침한다. 완성선에서 0.5cm 나가 바느질 한 다음 배래모양대로 자른 뒤 다시 겹과 겹이 마주하도록 뒤집어 완성선을 바느질 한다. 겹으로 뒤집어 다림질하여 시접은 뒤쪽으로 가도록 한다.

g. 옆선 연결하기

뒷길과 앞길의 옆선을 통술 바느질로 연결한다.

h. 도련

먼저 도련을 정리하고 정리한 도련에 맞추어 선단을 마름질한다.

뒷길의 도련 모양이 약간 굴러진 형태이므로 소매단 · 섯단(깃)과 다르게 골선이 아닌 안감과 겹감으로 2개를 마름질하였다. 뒷길 도련에서 단 너비인 8.5cm만큼 올라가 선을 그은 다음 겹감용 뒷길 밑단을 올린 뒤 시침하여 바느질한다. 겹감용 뒷길 밑단과 안감용 뒷길 밑단을 겹을 마주대고 연결한 뒤 시접을 정리한다. 밑단은 3겹으로 구성된다.

앞길의 도련 모양도 곡선으로 안감과 겹감용으로 2장을 마름질하였다. 단 연결하는 방법은 뒷길과 동일하다.

밑단끼리 옆선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바느질 한 후 전체 도련의 안쪽 단의 시접을 정리하여 공그르기 바느질로 현의 안쪽에 고정한다.

i. 깃과 섯단

구장복 현의는 깃과 섯단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뒷길의 등술에서 0.5cm 내려온 지점과 고대 점을 맞추고, 0.5cm 내려온 지점을 중심으로 고대너비의 1/2인 8.8cm만큼 직선으로 놓은 후 깃모양을 잡는다.

깃에서부터 안섯과 겹섯을 따라 도련까지 깃을 핀으로 고정한다. 도련부터 핀을 빼면서 바느질하고 시접을 1cm로 자른다. 안쪽으로 단을 넘겨 나머지 시접을 현의 안쪽에 공그르기 바느질로 처리하였다. 밑단 위에 섯단을

연결할 때 미리 시침하여 단이 밀리지 않도록 한다.

j. 고름 만들기

고름은 뒤집는 부분의 시점은 안감 쪽으로 접어놓은 후 바느질 한다. 시점은 심감이 없는 쪽으로 길이로 먼저 접고 너비를 나중에 접는다. 시점을 접어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고름을 뒤집어 다린다.

긴 고름은 고름 너비의 중심이 깃과 섹 사이에 놓고 짧은 고름은 고름의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긴 고름과 마주보게 놓아 바느질한다.

k. 안고름 달기

한 장은 제비부리로 만들어 사슬뜨기 하여 왼쪽 진동 부분에 달고 나머지는 안깃의 끝에 단다.

l. 대대고름 달기

대대고름을 2 장 만들어 양쪽 진동에 아래에 단다.

m. 단추 고리 달기

뒷고대 중심에서 23.5cm 내려온 부분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17cm 나아간 부분까지 모두 3개의 단추 고리를 단다.

n. 동정 달기

흰색 동정을 만든 후 깃 위에 바느질하여 고정한다.

o. 장문 그리기

양 어깨에 용, 등에는 산을 그리며, 양쪽 소매 뒤쪽에는 화 3개, 화충 3개, 종이3개를 그린다.

⑤ 완성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구장복 현의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39>, <그림 40>과 같다.



<그림 39> 구장복 현의 재현 작품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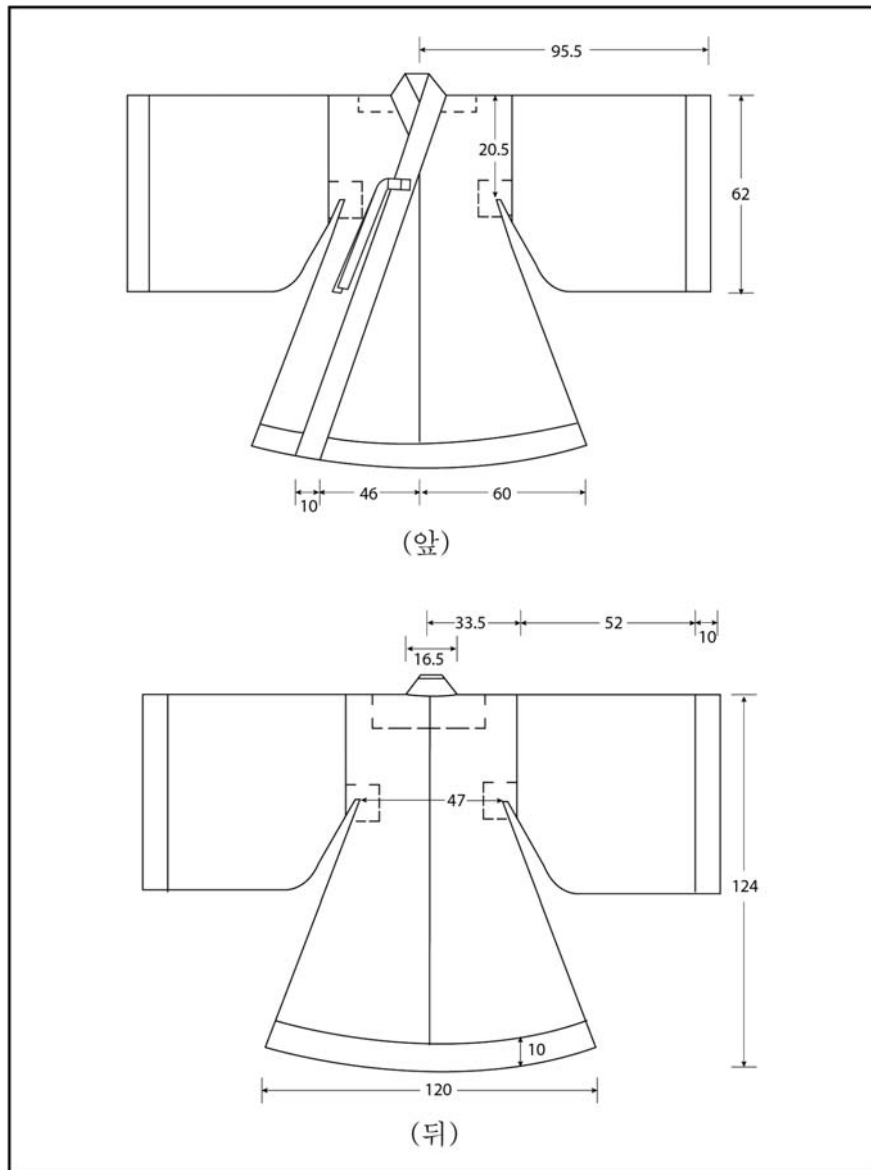


<그림 40> 구장복 현의 재현 작품 (뒤)

(2) 구장복 중단(中單)

① 도식화

구장복 중단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41>와 같다.



<그림 41> 구장복 중단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구장복 중단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순인갑사이고 각 치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구장복 중단 소재 및 치수

구장복 중단			
구성	홀		
색상	흑(黑)색, 청(靑)색		
소재	순인갑사(silk)		
원단소요량	겉감, 안고름(청색) - 폭 110cm 길이 530cm 깃, 단, 겹고름(흑색) - 폭 110cm 길이 280cm		
치수 (cm)	길	뒷길이	124
		앞길 아래너비	60
		뒷길 아래너비	60
		화장	95.5
		폼	47
		고대	16.5
	소매	진동	20.5
		두리	10
		너비	62
		수구	22
		소매길이	52
	깃	길이 × 너비	276 × 10
	썸	길이	100
		아래너비	46
	등바대	길이 × 너비	51 × 17
	결바대	길이 × 너비	7 × 7
	고름	긴고름 길이 × 너비	82 × 6.5
		짧은고름 길이 × 너비	74.5 × 6.5
		안고름 길이 × 너비	49.5 × 3.5
	소매단 / 밑단		10 / 10

### ③ 마름질 방법

길에서 앞길은 길이 124cm, 아래너비 70cm, 윗너비는 1/2품 23.5cm에 두리 10cm를 더한 33.5cm로 하고,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1.5cm, 두리는 1cm를 두어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뒷길은 앞길과 동일하나 아래너비를 50cm로 하여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앞길의 아래너비 10cm가 뒷길로 넘겨져서 완성된 옷의 모양은 앞, 뒤가 동일하게 60cm가 되게 한다.

소매는 길이 52cm, 너비 124cm의 양쪽으로 시접을 1.5cm씩 두어 두 장을 마른다.

섶은 길이 100cm, 아래너비 46cm에 시접을 1.5cm로 두고 두 장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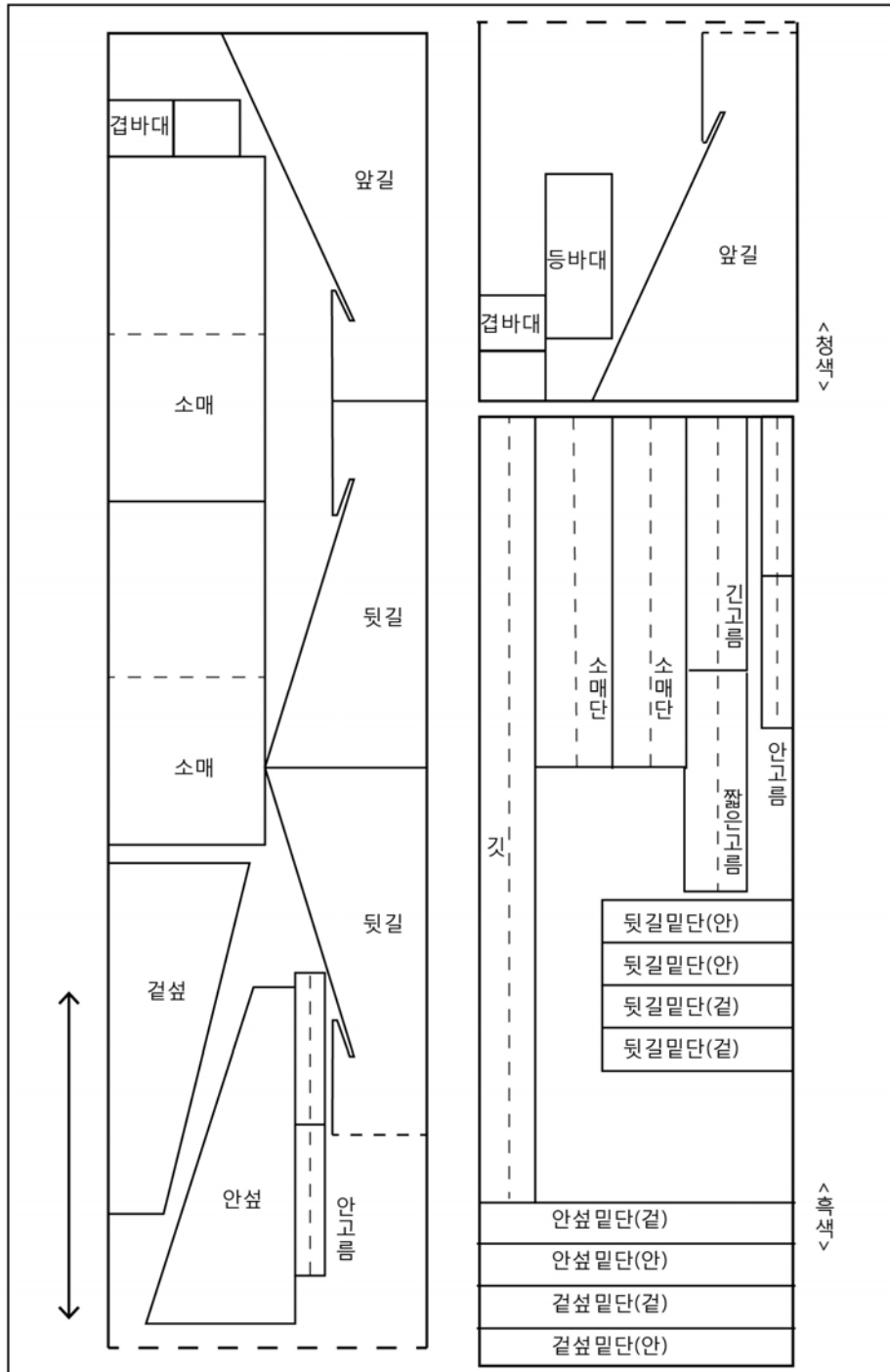
깃은 길이 276cm 너비를 10cm로 하여 골선으로 재단하는데 양쪽 3cm씩 시접을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길이 방향으로 한 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10cm로 하여 양쪽 시접 3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은 120cm이므로 60cm씩 네 장을 마르고, 섶 아랫단은 길이 106cm로 안섶과 겹섶 포함하여 네 장을 마른다. 소매단은 124cm로 하여 시접을 포함하고 골선으로 두 장 마른다. 모든 밑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겉고름은 너비를 6.5cm로 하고 골선으로 마르며 길이는 긴 고름 82cm, 짧은 고름 74.5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3.5cm에 길이 49.5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골선으로 두 장을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51cm, 세로 17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한 장을 마르고, 걸바대는 가로와 세로를 7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네 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2>과 같다.



<그림 42> 구장복 중단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 a. 등솔

어깨와 진동을 시침실로 표시하고 등솔 두 장을 시침하여 고대 중심점에서 도련 길 쪽으로 싹솔 바느질 한다.

처음 시작 부분을 다리판 위에 핀으로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하면 당기는 힘에 의하여 바느질하기가 편리하다.

바느질한 부분은 다리미로 곱게 다려 싹솔 바느질 할 준비를 하는데 넘기는 쪽 시점은 1.5cm, 싸이는 쪽 시점은 0.5cm로 하고, 0.5cm 시점을 1.5cm로 감싸 접어서 시침질한 다음 바느질을 하며, 시점 방향이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완성선을 꺾어 다린다.

##### b. 등바대

등바대는 어깨선을 중심으로 앞길과 뒷길에 걸쳐 고대지점을 잘 맞추어 단다. 시점을 등바대 안쪽으로 넣은 후 0.2cm 간격으로 감침질을 하는데 이때 실을 너무 당기지 않도록 곱게 바느질 한다.

##### c. 소매 단

청색 소매의 겹감 쪽 수구 위에 소매단 너비만큼 들어간 지점에 흑색 소매단을 올려놓은 후 시침하고 바느질 한다. 소매단은 골선으로 마름질하였으므로 반으로 접은 후 시점을 1cm로 정리하여 소매단 안으로 넣고 공그르기 바느질 방법으로 연결한다.

##### d. 셔 연결

겉셔는 길의 사선에 셔의 직선을 놓고 시침한 후 바느질하며, 도련 쪽은 사선이다. 안셔는 길의 직선 위에 셔의 사선을 놓고 시침한 후 바느질하며, 도련 쪽은 직선이다. 시점은 싹솔 바느질하고 겉셔는 시점을 겉셔 쪽으로 넘기며, 안셔는 길 쪽으로 꺾어 다린다.

##### e. 소매 연결하기

두리와 소매를 잘 맞추어 밀리지 않도록 시침질한 후 바느질 한다. 시점

은 싹술 바느질하고 소매 시접은 몸판 쪽으로 넘긴다.

f. 배래하는 방법

소매는 골선이므로 안과 안을 마주대어 진동, 두리, 수구를 맞추고 시침한다. 완성선에서 0.5cm 나가 바느질 한 다음 배래모양대로 자른 뒤 다시 겉과 겉이 마주하도록 뒤집어 완성선을 바느질 한다. 겉으로 뒤집어 다림질하여 시접은 뒤쪽으로 가도록 한다.

g. 옆선 연결하기

뒷길과 앞길의 옆선을 통술 바느질로 연결한다.

h. 도련

뒷길의 도련 모양이 약간 굴러진 형태이므로 소매단 · 섯단(깃)과 다르게 골선이 아닌 안감과 겉감으로 2개를 마름질하였다. 뒷길 도련에서 단 너비인 8.5cm만큼 올라가 선을 그은 다음 겉감용 뒷길 밑단을 올린 뒤 시침하여 바느질한다. 겉감용 뒷길 밑단과 안감용 뒷길 밑단을 겉을 마주대고 연결한 뒤 시접을 정리한다. 밑단은 3겹으로 구성된다.

앞길의 도련 모양도 곡선으로 안감과 겉감용으로 2장을 마름질하였다. 단 연결하는 방법은 뒷길과 동일하다.

밑단끼리 옆선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바느질 한 후 전체 도련의 안쪽 단의 시접을 정리하여 공그르기 바느질로 현의 안쪽에 고정한다.

i. 깃과 섯단

구장복 중단은 깃과 섯단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다. 뒷길의 등술에서 0.5cm 내려온 지점과 고대 점을 맞추고, 0.5cm 내려온 지점을 중심으로 고대너비의 1/2인 8.3cm만큼 직선으로 놓은 후 깃모양을 잡는다.

깃에서부터 안섯과 겉섯을 따라 도련까지 깃을 편으로 고정한다. 도련부터 편을 빼면서 바느질하고 시접을 1cm로 자른다. 안쪽으로 단을 넘겨 나머지 시접을 현의 안쪽에 공그르기 바느질로 처리하였다. 밑단 위에 섯단을 연결할 때 미리 시침하여 단이 밀리지 않도록 한다.

#### j. 고름 만들기

고름은 뒤집는 부분의 시접은 안감 쪽으로 접어놓은 후 바느질 한다. 시접은 심감이 없는 쪽으로 길이로 먼저 접고 너비를 나중에 접는다. 시접을 접어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삼각형 모양으로 자르고 고름을 뒤집어 다린다.

긴 고름은 고름 너비의 중심이 깃과 쉼 사이에 놓고 짧은 고름은 고름의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긴 고름과 마주보게 놓아 바느질한다.

#### k. 안고름 달기

한 장은 제비부리로 만들어 사슬뜨기 하여 왼쪽 진동 부분에 달고 나머지는 안깃의 끝에 단다.

##### 1. 깃에 불문 금박하기

깃에 고대 중심점을 기준으로 아(亞)자형 불문 11개를 금박한다.

⑤ 완성 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구장복 현의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4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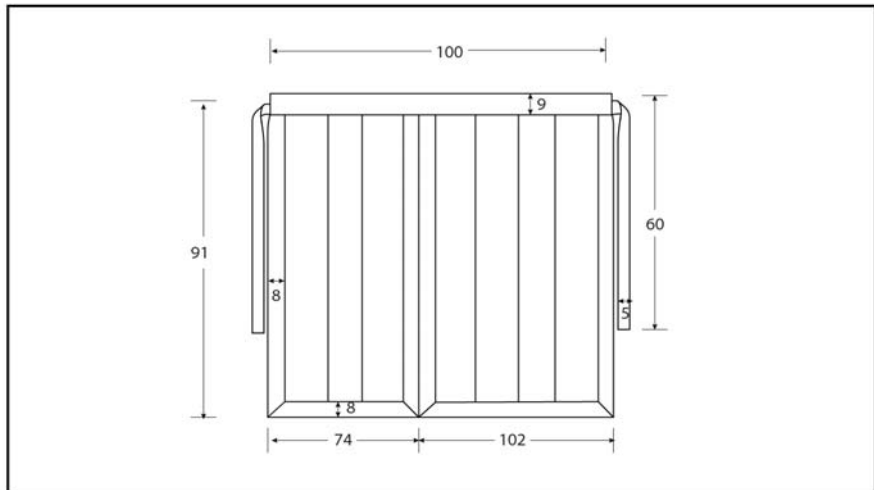


<그림 43> 구장복 중단 재현 작품

(3) 구장복 상

① 도식화

구장복 상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구장복 상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구장복 상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공단이고 각 치수는 <표 13>과 같다.

<표 13> 구장복 상 소재 및 치수

구장복 상			
구성	겹		
색상	홍(紅)색, 흑(黑)색, 백(白)색		
소재	공단(silk)		
원단소요량	겹감,안감(홍색) - 폭 110cm 길이 330cm 단(흑색) - 폭 110cm 길이 110cm 허리말기,허리끈(백색) - 폭 110cm 길이 105cm		
치수 (cm)	길이×너비	겹감	74 × 18.5(자수)
			74 × 21
		안감	82 × 74(전상)
			82 × 87(후상)
		단	82 / 211 / 276 × 8
허리말기	100× 9		
허리끈	60 × 5		

### ③ 마름질 방법

구장복 상의 전상의 첫째 폭과 셋째 폭에는 조 · 미 · 보 · 불의 장문이 수놓아진 원단을 사용한다. 겹감과 안감은 전체에 심감을 대고, 허리말기는 겹감 쪽 너비만큼만 심감을 대서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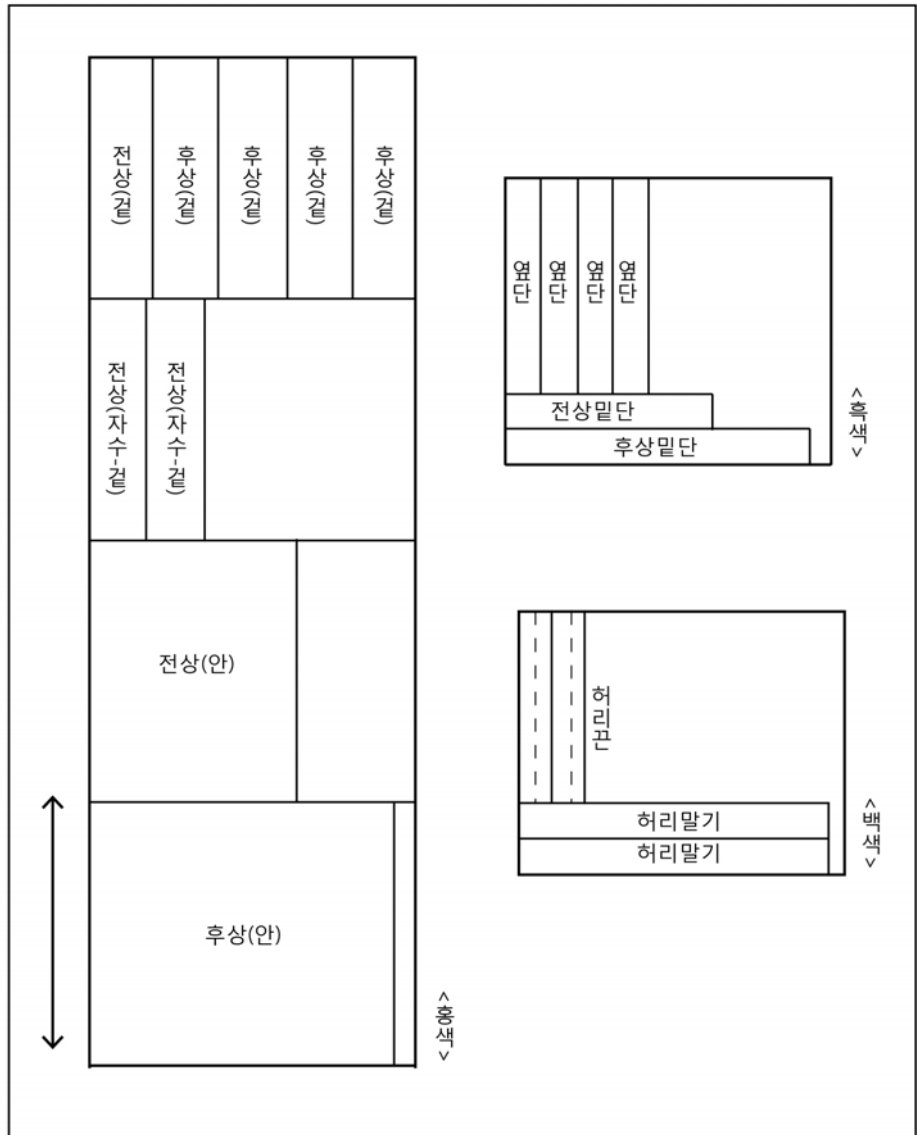
겹감은 자수가 놓아진 원단을 길이 74cm, 너비 18.5cm를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자수가 없는 원단을 길이 74cm, 너비 21cm 5장 마른다.

안감은 길이 82cm, 너비 74cm를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르고, 길이 82cm, 너비 102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단은 너비를 8cm로 하여 시접 2cm를 주어 마르는데, 옆선 단은 길이 82cm로 4장을 마르고, 전상 아랫단은 길이 74cm로 1장, 후상 아랫단은 길이 102cm로 1장을 마른다. 모든 밑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허리말기는 길이 100cm, 너비 9cm를 골선으로 하고 시접은 2cm로 1장 마른다. 허리끈은 길이 60cm, 너비 5cm로 시접은 2cm를 포함하여 2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구장복 상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구장복 상은 3폭의 전상, 4폭의 후상, 허리말기와 허리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상의 제작 방법은 자수가 놓여진 2장의 겉감 사이에 자수가 없는 1장의 원단과 함께 3장을 바느질하여 연결하고 시접 정리 후 가름솔로 다린다. 3장이 연결된 전상의 좌·우와 밑에 단으로 선을 돌려 바느질을 한다. 시접은 단 쪽으로 꺾어 다린다.

전상의 마름질 안감에 겉감과 같이 단을 돌려 바느질 하여 시접정리 한다. 전상의 겉감과 안감을 겹을 마주대고 좌·우와 밑단 부분을 바느질하고 시접을 자르고 뒤집는다.

전상의 윗부분은 겉감 쪽에서 주름을 잡는데 주름방향은 왼편으로 가게 하며, 주름을 잡으면서 시침핀을 세로로 꽂아 완성선을 실로 시침한다. 이는 주름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함이다. 4폭으로 이루어진 후상도 전상과 같이 제작한다.

허리끈을 만들어 허리 말기 양 끝에 끼운 다음 양 옆을 바느질 한다. 전상과 후상을 위에 허리말기의 겹을 놓은 뒤 완성선에 맞게 가지런히 놓는다. 완성선에서 0.2cm 아래에 재봉틀을 사용하여 허리말기와 전상을 연결하고 시접은 허리말기 쪽으로 꺾는다. 허리 말기를 뒤집어 시접부분을 접은 뒤 감침질 바느질방법으로 마무리한다.

⑤ 완성 작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구장복 상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4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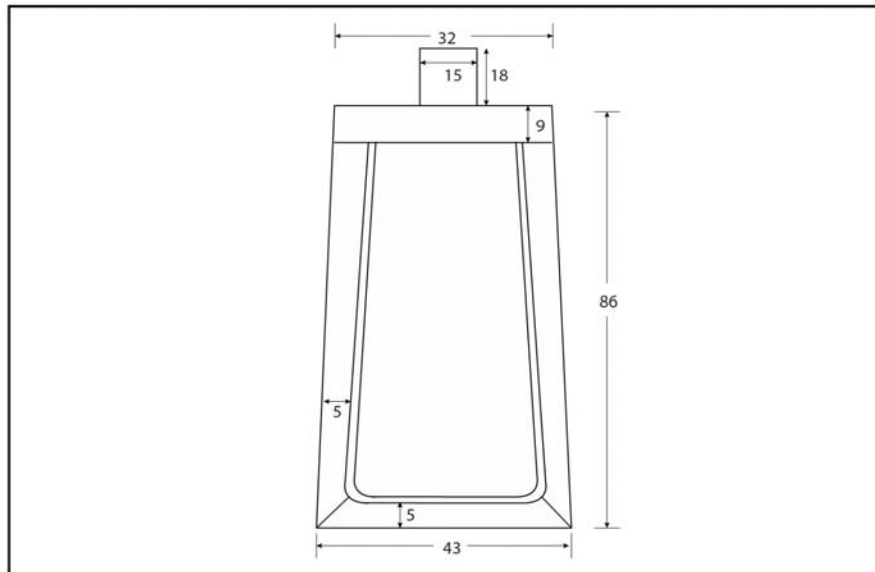


<그림 46> 구장복 상 재현 작품

(4) 구장복 폐슬

① 도식화

구장복 폐슬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47>와 같다.



<그림 47> 구장복 폐슬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구장복 폐슬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공단이고 각 치수는 <표 14>와 같다.

<표 14> 구장복 폐슬 소재 및 치수

구장복 폐슬			
구성	겹		
색상	홍(紅)색, 흑(黑)색, 백(白)색		
소재	공단(silk)		
원단소요량	겹감, 안감(홍색) - 폭 110cm 길이 82cm 단(흑색) - 폭 110cm 길이 82cm 비, 대고리(백색) - 폭 110cm 길이 20cm		
치수 (cm)	길이 × 너비	겹감	72 × 22(上) / 33(下)
		안감	77 × 32(上) / 43(下)
		단	43/77 × 5
		비	32 × 9
		대고리	18 × 15

③ 마름질 방법

구장복 폐슬에는 조 · 미 · 보 · 불의 장문을 수놓은 곁감을 사용한다. 곁감과 안감에 심감을 대고, 비는 곁감 쪽 너비만큼 한 쪽에 심감을 대서 마른다.

수놓아진 곁감을 길이 72cm, 윗너비 22cm. 아래너비 33cm로 하고 시접은 2cm로 1장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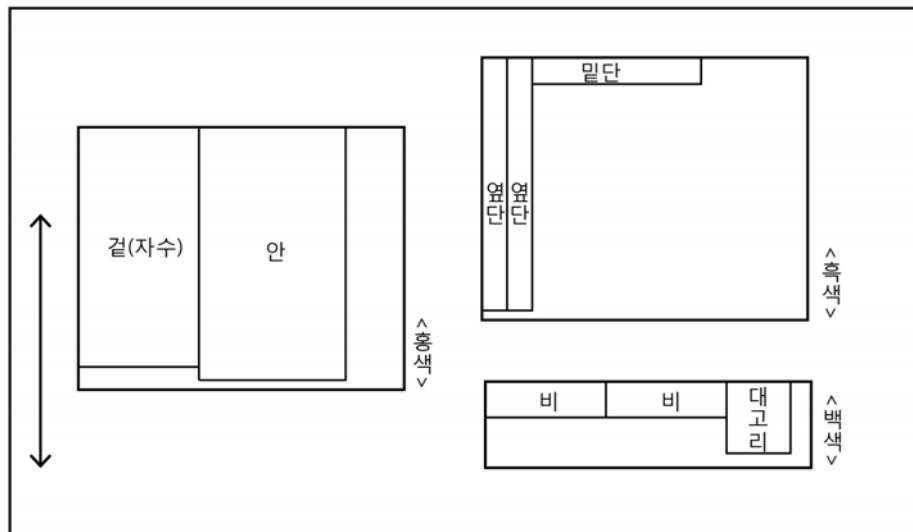
안감을 길이 77cm, 윗너비 32cm, 아래너비 43cm은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단에서 옆단은 너비 5cm, 길이 77cm로 2장을 시접 2cm 포함해서 마르고, 밑단은 너비 5cm, 길이 43cm는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밑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비는 너비 9cm, 길이 32cm 로 2장을 시접 2cm 포함하여 마른다.

대고리는 길이 18cm ,너비 15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 구장복 폐슬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자수가 놓인 겉감 부분에 길이 76.5cm의 흑색 단 2개를 옆선에 올린 후 바느질한다. 이때 완성된 단의 위치는 윗너비가 31.5cm, 아래너비가 41.5cm에 길이가 76.5cm가 되도록 위치를 조절하여 좌우에 단을 바느질 한다. 밑은 길이 51.5cm의 단을 연결하여 완성된 밑단의 길이가 41.5cm가 되도록 한다.

옆단과 밑단이 만나는 부분의 바느질은 사선으로 처리되게 한다. 단을 연결하고 시접을 정리한다.

겉감 위에 안감의 겉을 마주보게 하여 양옆과 밑을 바느질하고 시접 정리 후 뒤집는다.

폐슬의 겉감 윗부분에 비를 올린 뒤 바느질한다. 시접을 자른 뒤 말기 쪽으로 꺾어 시침질한다. 비의 가운데 길이 18cm과 너비 15cm의 대고리를 끼워 넣어 손바느질로 고정한 다음 남은 한 장의 비를 이은 다음 손바느질로 시접을 처리한다.

완성된 폐슬 위에 오색조를 놓고 시침을 한 후 바느질로 고정한다.

⑤ 완성 작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고종의 구장복 폐슬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49>와 같다.



<그림 49> 구장복 폐슬 재현 작품

## 2. 황제의 면복(십이장복)

현재 십이장복은 순종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십이장복의 착용여부를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현존 유물이 없으므로 1898년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예전(大韓禮典)』의 면복제식(冕服制式)의 기록으로 십이장복의 형태 및 특징을 제작 과정에 참고 하였으며 앞서 서술한 고종의 순인갑사 구장복과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황제의 면복인 십이장복은 산(山) · 용(龍) · 화(火) · 화충(華蟲) · 종이(宗彝) · 조(藻) · 미(米) · 보(黼) · 불(黻) 의 기존의 구장복의 9가지 장문에서 일(日) · 월(月) · 성신(星辰) 이 더해져 총 12개 장문이 그려져 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십이장복의 현의는 현색의 홉옷으로 일·월은 어깨에, 성신·산은 등에, 용·화충은 양쪽 소매에 6가지 장문을 수 놓는다. 현의의 길이가 상의 육장문을 덮지 않게 한다. 현의는 현존 유물이 없으므로 고종의 순인갑사 구장복 현의와 동일한 소재와 치수로 마름질하고 제작하였으며 장문의 수와 직성방식이 다르다. 고종의 순인갑사 구장복 현의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십이장복은 다음 <그림 50>, <그림 51>과 같다.

중단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소사(素紗)로 만들었으며 깃, 도련, 수구는 청색의 연(緣)을 둘렀고 깃에 불문 13개를 직성하였다. 본 연구는 구장복 중단의 마름질 방법과 소재 및 치수를 참고하여 깃 부분에 13개의 불문을 새겼으며 제작 과정은 구장복 중단과 동일하게 하였다. 고종의 구장복 중단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중단은 <그림 52>와 같다.

상은 훈색(暈色)으로 앞 3폭, 뒤 4폭을 이어 화·종이·조가 2줄이 되고, 분미·보·불이 2줄이 되게 총 6가지의 장문을 수놓은 형태로 구장복 상의 4개 장문에서 화와 종이가 더해져 6장문으로 나타난다. 고종의 구장복 상을 참고하여 만든 상은 다음 <그림 53>과 같다.

폐슬은 상색(裳色)을 따르며 라로 한다. 윗부분에 1개의 용과 밑에 3개의

화 문장을 수놓아 현대에 걸며 구장복의 경우 상과 폐슬의 문장이 같은데 십이장복은 다르다. 고종의 구장복 폐슬을 참고하여 만든 폐슬은 <그림 5 4>와 같다.



<그림 50> 십이장복 현의 재현 작품 (앞)



<그림 51> 십이장복 현의 재현 작품 (뒤)



<그림 52> 십이장복 중단 재현 작품



<그림 53> 십이장복 상 재현 작품



<그림 54> 십이장복 폐슬 재현 작품

### 3. 황제의 조복(강사포)

황제의 조복인 강사포는 현재 전래되는 유물은 없으나, 「국조오례의서례」 중 「가례(家例)」 관복도설에 왕의 원유관복이 실려 있으며, 원유관에 강사포를 착용하고 있는 순종의 사진과 통천관에 강사포를 착용하고 있는 고종의 사진을 참고하였다. 현존 유물이 없으므로 고종의 순인갑사 구장복 현의, 중단, 상, 폐슬와 치수를 동일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강사포는 강라(絳羅)로 만들며 구장복과 다르게 장문이 없으며 끈은 깃 형태이다. 유물이 없으므로 재현 제작 시 고종의 순인갑사 구장복 현의의 치수를 참고하며 깃만 제외하고 마름질 방법과 제작 방법이 동일하다. 구장복 현의를 바탕으로 만든 강사포는 <그림 55>, <그림 56>과 같다.

중단은 은색 라이며 깃, 도련, 소매 끝에 붉은색 단을 달았으며, 깃에는 불문 11개를 금박하였다. 유물이 없으므로 고종의 갑사 구장복 중단의 치수를 참고하였으며 만드는 과정은 구장복 중단과 같게 한다. 강사포의 중단 재현 작품은 다음 <그림 57>과 같다.

상과 폐슬도 강라로 만들며 구장복의 상과 폐슬 형태가 같아 치수 및 제작 방법이 동일하며 장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강사포 상 재현 작품은 <그림 58>이며, 강사포의 폐슬의 재현 작품은 <그림 59>와 같다.



<그림 55> 강사포 재현 작품 (앞)



<그림 56> 강사포 재현 작품 (뒤)



<그림 57> 강사포 중단 재현 작품



<그림 58> 강사포 상 재현 작품



<그림 59> 강사포 폐슬 재현 작품

#### 4. 황제의 상복(황룡포)

현존하는 황룡포 유물은 황제인 고종이 착용하였으며 홍룡포 유물은 영친왕이 착용하였다. 황룡포는 고종이 황제에 등극되면서 홍룡포보다 늦게 출현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시기에 따른 바느질 방법 차이에 중점을 두어 홍룡포보다 황룡포를 먼저 서술하였다.

황룡포 유물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의 황룡포가 전래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재현하였다. 고종의 황룡포는 황색 운보문사 단령 겹감과 다홍색 운보문사로 만든 직령인 안감으로 구성되어 겹감과 안감의 솔기를 함께 박아 겹으로 만들었다. 시점이 겹감과 안감사이에 들어가 있다. 겹고름은 겹섹부분에 보와 나란한 위치에 달려 있으며 황색과 홍색의 쌍고름으로 달려 있고 동정은 다홍색 은조사를 사용하였다. 보는 지름이 19cm이며 오조룡보를 양 어깨와 가슴, 등에 부착되어 있으며 양 어깨에 달린 용보는 후에 제작되어 가슴과 등의 용보와 제작상태가 다르다.

유물의 치수는 총길이 127cm, 화장 95cm, 품 54cm, 고대 20cm, 진동 27cm, 수구 40.5cm, 수구 아래 18.5cm로 별도의 장식은 없으며, 깃 너비 4.3cm 이며 겹섹 끝에 쌍밑이 단추와 우측 고대에 고리가 달려있다. 고름은 너비 10cm, 길이 93.5cm이며, 수구 안단은 6.5cm, 너비로 25cm까지 내려와 달려있고 도련은 6cm의 안단이 달려있다. 진동 부분에 너비 2.0cm, 길이 13.5cm의 대대고리를 10.5cm 길이로 달아주어 3cm의 여유가 있는데 이는 옥대를 고정하기 위한 것이며 겨드랑이 사이로 너비 2.1cm, 길이 68cm의 겹으로 만든 끈이 6cm 차이를 두고 달려있다. 가로 18cm, 세로 21cm의 겨드랑이 바대가 달려있다. 겹섹 너비는 위 12cm, 아래 43cm이며 길 너비는 28cm로 뒤로 접혀진 무는 옆길이 99cm, 무길이 109cm이며 윗부분 사선 14.5cm, 꼭지점에서 33cm 내려온 부분까지 징렸으며 아래는 터져있다.<sup>29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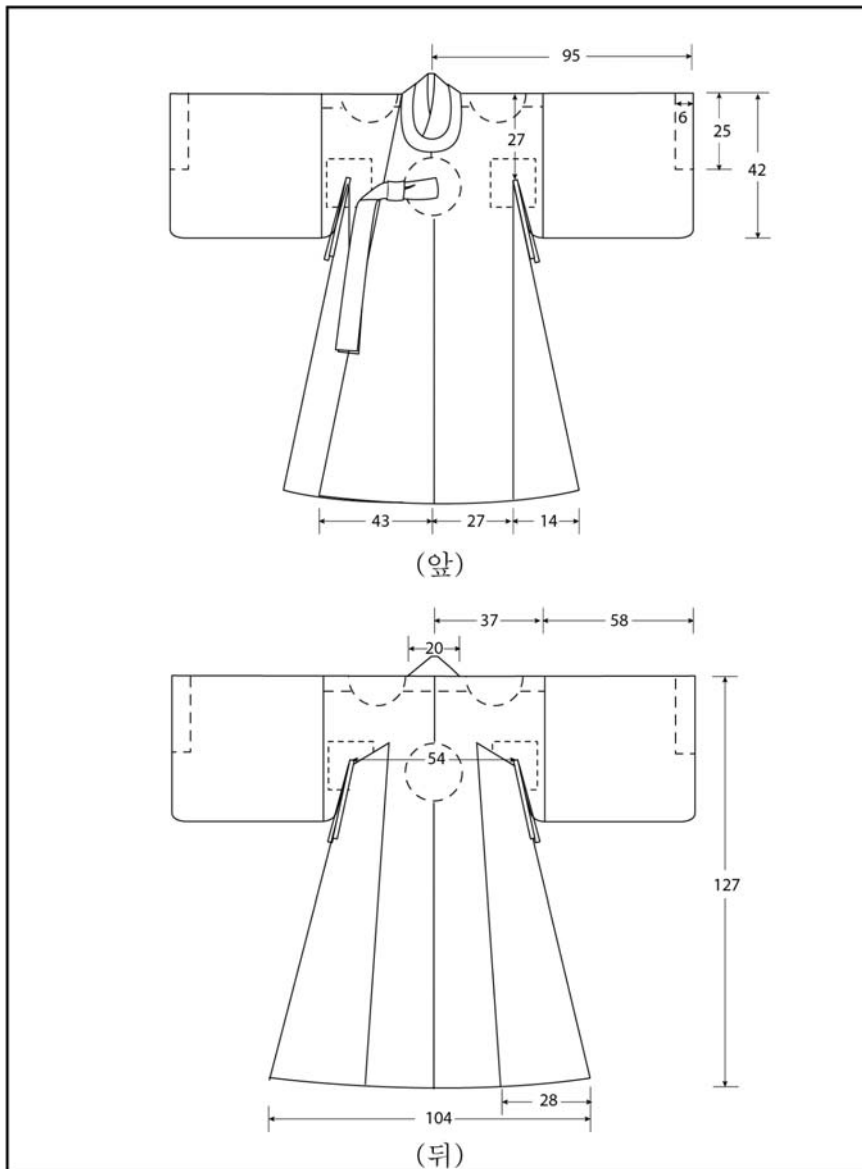
295) 문화재대관(2006), 전개서, pp.60-61.

1) 황룡포

(1) 황룡포

① 도식화

황룡포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60>와 같다.



<그림 60> 황룡포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황룡포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겹감과 안감은 운보문사, 동정은 은조사이고 각 치수는 <표 15>와 같다.

<표 15> 황룡포 소재 및 치수

		황룡포	
구성	겹		
색상	황(黃)색, 홍(紅)색		
소재	운보문사(silk) - 겹감, 안감 은조사(silk) - 동정		
옷감너비	겹감(황색) - 폭 110cm 길이 765cm 안감(홍색) - 폭 110cm 길이 650cm 동정(홍색) - 폭 110cm 길이 90cm		
치수 (cm)	길	뒷길이	127
		앞길 아래너비	27
		뒷길 아래너비	27
		화장	95
		뒤폭	54
		고대	20
	소매	진동	27
		소매너비	42
		수구	40.5 (18.5아래 고정)
		소매길이	58
		두리	10
	겹깃	깃 너비	4.3
	안깃	길이×너비	85×8.5
	섶	겹섶 길이	127
		겹섶 너비(上/下)	11(고대만큼)/43
		안섶 길이	107
	무	안섶 너비(上/下)	8/33
		길이	109
	등바대	무 너비(上/下)	14.5/42
		가로×세로	35×7.5
	겹바대	가로×세로	9×9
		고름	긴고름 길이×너비
	짧은고름 길이×너비		90×10
	안고름 길이×너비		60×10
	대대고름 길이×너비		40×2
	각띠고리 길이×너비		62×5
	보 지름		19
	동정 길이×너비		85×8.5
	수구안단 길이		25
	단 너비		6

### ③ 마름질 방법

#### a. 곁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27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33cm, 윗너비는 1/2품 27cm에 두리 10cm를 더한 37cm, 아래너비 1/2품 27cm로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2cm로 하여 어깨선에서 뒷길과 골로 마른다. 뒷길은 치수가 앞길과 동일하며,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수구에 제물단으로 바느질하며 길이 58cm에 제물단 6cm를 포함한 64cm이며, 소매 너비는 84cm에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을 마른다.

겉선은 길이가 127cm, 윗너비(고대만큼)는 11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로 14.5cm이며, 아래너비는 43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해 46.5cm로 1장 마른다. 안선은 길이가 107cm, 윗너비는 8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하여 15.5cm이며, 아래너비는 33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한 40.5cm로 1장 마른다.

큰 무는 길이 109cm에 밑단 분량 6cm를 포함한 115cm, 아래너비 42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작은 무는 길이 109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14cm, 아래너비 41cm,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단은 겉선의 안단으로 쓰이며 길이 127cm, 너비 4cm로 하여 골선으로 1장 마른다.

깃은 너비 4.3cm를 정바이어스 방향 골선으로 시접 2cm로 1장 마른다.

겉고름은 너비를 10cm로 하고 골선으로 마르며 길이는 긴 고름 93.5cm, 짧은 고름 90cm에 시접 1cm를 두고 각각 1장씩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10cm, 길이 60cm에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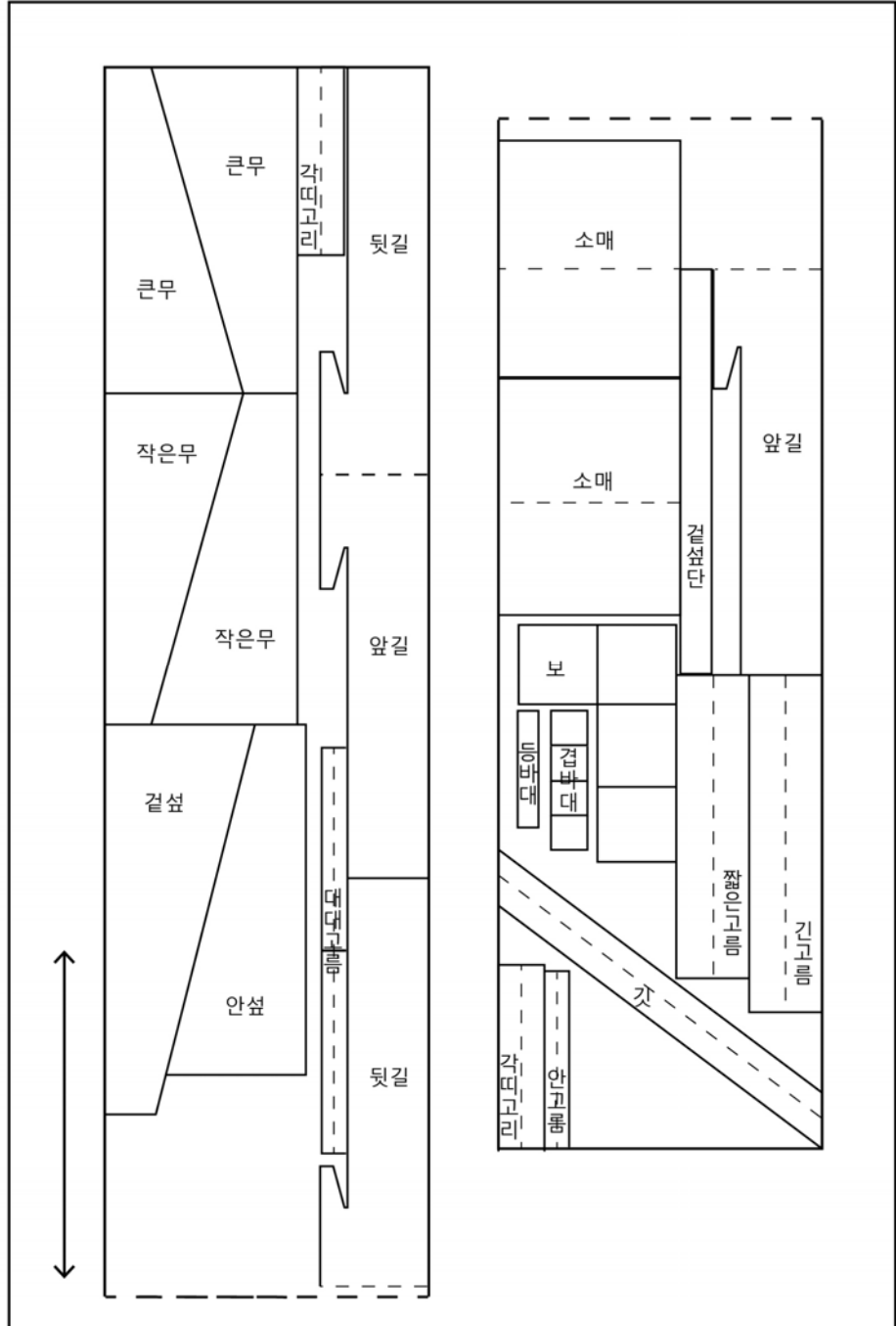
대대 고름은 길이 40cm, 너비 2cm로 시접 1cm를 포함하여 골선으로 2장 마른다. 각띠 고리는 길이 62cm, 너비 5cm로 시접 1cm 포함하여 골선으로

2장 마른다.

보 20cm를 4 장을 시접 5cm를 포함하여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35cm, 세로 7.5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한 장을 마르고,  
곁바대는 가로와 세로를 9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네 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황룡포 걸감 재단도

b. 안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27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33cm, 윗너비는 1/2품 27cm에 두리 10cm를 더한 37cm, 아래너비 1/2품 27cm로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2cm로 하여 어깨선에서 뒷길과 골로 마른다. 뒷길은 치수가 앞길과 동일하며,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수구에 제물단으로 바느질하며 길이 58cm에 제물단 6cm를 포함한 64cm이며, 소매 너비는 84cm에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을 마른다.

겉선은 길이가 127cm, 윗너비(고대만큼)는 11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로 14.5cm이며, 아래너비는 43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해 46.5cm로 1장 마른다. 안선은 길이가 107cm, 윗너비는 8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하여 15.5cm이며, 아래너비는 33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한 40.5cm로 1장 마른다.

큰 무는 길이 109cm에 밑단 분량 6cm를 포함한 115cm, 아래너비 42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작은 무는 길이 109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14cm, 아래너비 41cm,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단은 겉선의 안단으로 쓰이며 길이 127cm, 너비 4cm로 하여 골선으로 1장 마른다.

깃은 길이 85cm, 너비 8.5cm로 시접 1cm를 주어 2장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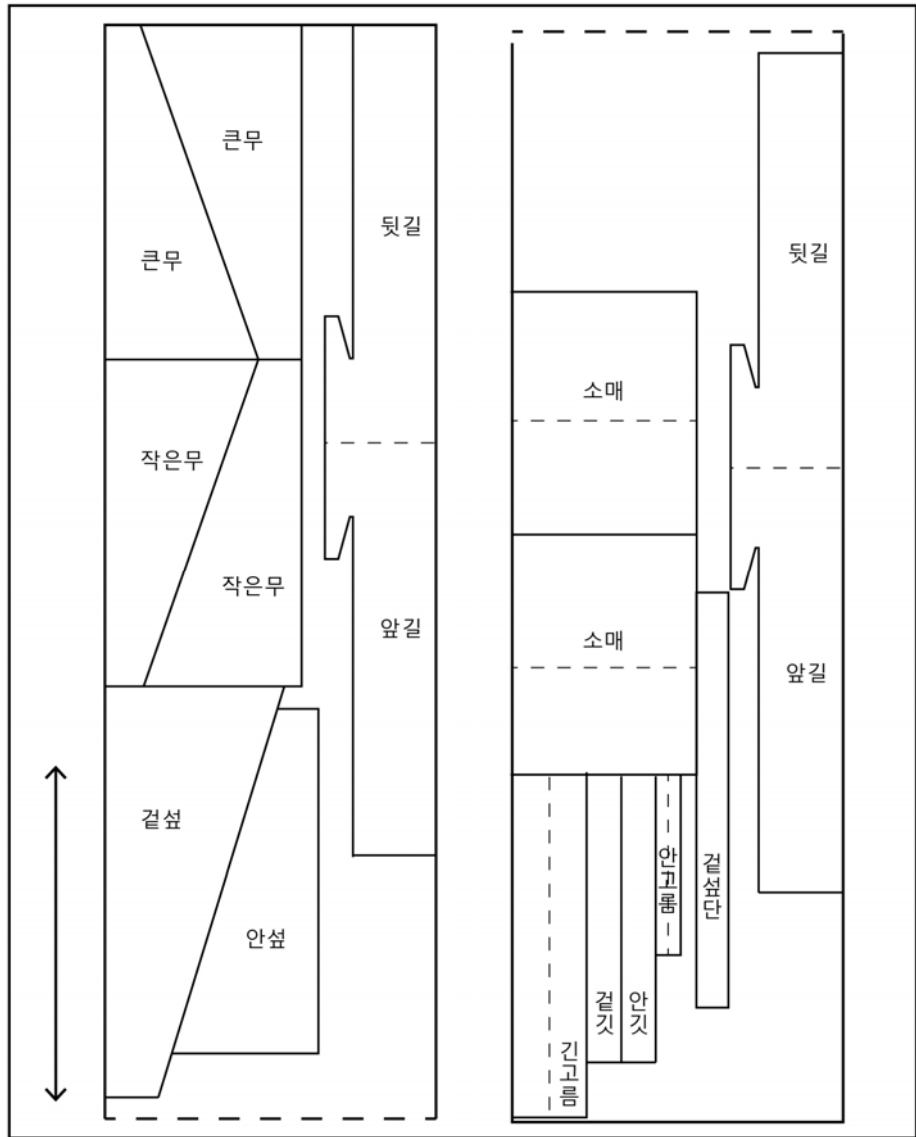
긴고름은 이중고름으로 구성되어 안감색의 긴고름을 마르는데, 길이 93.5cm, 너비 10cm로 하고 골선으로 시접 1cm를 두어 1장 마른다.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길이 60cm, 너비 3cm에 시접 1cm를 포함하여 골선으로 1장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62>와 같다

동정은 안감 깃에 부착하며, 붉은색 은조사를 사용하여 길이 85cm, 너비

8.5cm를 시집 1cm씩 주어 마른다.



<그림 62> 황룡포 안감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 a. 길 바느질

겉감의 뒷길 좌우는 겉끼리 잘 맞도록 등술 시접 1.5cm에 0.5cm 나가 시침질하고 안감 뒷길의 좌우는 겉끼리 맞추어 겉감과 같이 시침한다. 어깨선에서 5cm와 아랫단에서 시접분(15cm)만큼은 겉감은 겉감끼리 안감은 안감끼리 시침하여 바느질한다. 시침한 안감은 아래에 두고 겉감 두 겹을 위에 놓아서 등술은 5cm 아래부터 바느질하여 아랫단 15cm는 남기고 박는다.

위쪽의 겉감 한 장과 아래쪽의 안감 한 장을 펼친 후 등술 시접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시접을 넘긴다.

##### b. 단 바느질 법

겉감의 겹섷·안섷, 안감의 겹섷·안섷의 단과 소매의 수구단에 치수를 잘 맞춘 후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 c. 겹섷 바느질

왼쪽 길의 겹과 섷의 겹을 마주보게 하여 앞 중심점의 시접1.5cm 로 하고 0.5cm 나가 시침바느질한다. 안감은 안감 왼쪽 길의 겹쪽에 안감 겹섷의 겹을 마주보게 하여 겉감과 같이 시접 1.5cm 로 시침바느질을 한다. 겉감 밑에 안감을 두고 중심선에서 2cm 지점에 바느질한다. 시접은 길 방향으로 한다. 단너비의 시접만큼은 겹과 안을 따로 바느질한다.

##### d. 안섷 바느질

섷단은 공그르기 바느질을 하고 겉감 안섷과 안감 안섷은 겹쪽이 밖으로 향하도록 안쪽끼리 마주하고 사선 쪽의 시접 1.5cm 에 0.2cm 나가서 시침한다. 겉감 오른쪽 길과 안감 오른쪽 길 사이는 시침바느질 된 안섷을 끼워 넣어 1.5cm 시접으로 바느질한다. 겉감 오른쪽 앞길과 안감 오른쪽 앞길은 마주 보게 펴고 모으면 시접이 길 쪽 방향으로 가게 되며 앞길 쪽 안섷 바느질이 된다. 아랫단 너비의 시접은 겹과 안을 따로 바느질을 한다.

#### e. 큰 무 바느질

겉감인 큰 무와 안감의 큰 무는 겉과 겉을 마주하여 길과 연결되는 사선 솔기는 두고 윗선의 직선 솔기만 바느질하여 안감에서 겉감 쪽 시접을 접어 뒤집어준다. 다른 하나의 큰 무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뒤집는다.

큰 무는 앞길의 옆선 솔기는 바느질로 붙이고 오른쪽에 붙일 무와 왼쪽에 붙을 무는 같은 쪽 방향이 되지 않도록 한다. 큰 무의 사선의 솔기는 겉과 안이 어긋나지 않도록 시접에 시침바느질한다.

겉감 앞길의 진동 아래 옆선 솔기와 시접과 무 사선 솔기를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안감의 길은 앞으로 돌린 후 무의 안감과 길의 안감은 마주닿게 바느질하여 무는 길과 길 사이에서 빼어낸다.

겉과 안의 길 사이의 무가 끼워진 바느질 방법으로 솔기는 길 쪽으로 안감 길을 위에 올려 싸고 바느질해서 솔기가 길 쪽의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 f. 작은 무 바느질

큰 무 바느질 방법과 동일하며 뒷길의 양쪽 옆선에 바느질하며, 아랫단 너비의 시접은 15cm로 겉감 안감은 각각 바느질을 한다.

#### g. 아랫단 바느질

도련을 접어 단 너비가 6cm로 겉과 안은 각각 공그른다. 바느질 된 단의 겉과 안은 합친 후 다시 공그르기 해서 양쪽 섶도 도련과 같이 공그르기 한다. 겉섶 쪽 도련은 위에서 35cm를 두어 아래로 공그르기하고 안섶 쪽은 55cm 두고 공그르기 한다.

#### h. 겉깃 만들기

깃머리를 만들고 깃 중심 부분에 줄을 넣어서 반박음질 방법으로 바느질하여 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너비 10cm 부분이 앞깃의 중심이 되며 깃의 중심을 늘려 둥글게 모양을 만든다. 줄을 당겨 깃의 본대로 깃 모양을 잘 조절 하여 만드는데 사선이라 옷감의 울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깃의 중심 부분에 주름이 조금 접혀질

때 물을 뿌린 후 원단을 놓고 다림질을 하면 깃이 편편하게 펴지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다림질을 해야 된다.

#### i. 겹깃 달기

깃 다는 방법은 우선 안깃을 만들어 먼저 달아 놓고 겹깃을 단다. 동정을 달아 안깃과 겹깃을 정리하고 고정한다. 안깃은 정리하여 안깃의 끝 부분에 안고름 위치를 정하여 둔다.

겹깃 모양은 둥글게 잡아 깃의 파임이 15cm로 하여 좌 우 대칭이 잘 맞도록 위치를 잡고 시접을 두고 둥글게 자른다.

겹감의 깃은 겹과 안 사이의 길의 깃이 달리는 부분에 시접을 끼워 넣어 핀으로 고정하며 자리를 잡아본다. 깃고대, 등쪽의 고대 중심점과 깃고대로 연결되면서 겹감의 안섷으로 내려 안깃의 길이를 놓아본다. 안섷 쪽에 깃을 놓을 때 겹섷에 둥근 깃이 밖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 맞추어 본다.

시침하여 깃의 완성선을 잡고 바깥 쪽의 깃과 길의 시접, 안쪽 깃을 같이 바느질한다.

#### j. 안깃 달기

안감의 깃고대는 겹감의 깃고대보다 0.5cm 적게 정하고 안감깃을 달아 동정을 달고 겹깃은 조절하여 완성한다.

#### k. 겹고름 달기

둥근깃의 끝에서 평행선으로 연결 되는 겹섷의 도련선에 큰고름을 놓아 겹감과 안감 사이의 6cm정도의 공간에 고름을 넣어 위에서 반박음 바느질을 한다. 황색 고름 아래에 홍색 고름을 놓아 솔기 쪽에서 30cm 콩그르기 바느질을 하여 고정한다.

#### l. 대대 고름 달기

대대고름 너비만큼 나가서 겹고름과 나란히 놓아 반박음질 바느질을 한다.

#### m. 안고름 달기

홍색 아래 황색을 놓아 25cm 만 공구르기 바느질을 하여 안깃의 끝 지점에서 안고름을 달고 왼쪽은 진동 아래에 사슬뜨기를 하여 단다.

n. 각띠 매는 고름

길이 70cm에 30cm 와 40cm 로 잡아서 4.5 cm 나비로 접어 고정한다.

o. 각띠고리 달기

진동에서 아래쪽으로 1cm, 길쪽으로 1cm 간 지점에 45cm의 각띠고리를 이등분하여 고리길이의 8cm 만 박음질하고 박은선 아래에 접어 4겹을 박는다. 4겹 중간 지점에 위에 한 장 안에서 3겹을 박아 고리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p. 매듭단추 만들기

길이 25cm, 너비 6cm에 바이어스로 방향으로 재단하여 길이방향으로 접고, 0.5cm 너비로 박아 뒤집어서 나머지는 심이 되도록 한다. 단추맺는 방법을 사용하여 매듭단추를 만든다.

q. 단추고리 만들기

매듭단추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손으로 잡아당겨 늘어지면 가늘게 되는데 고리를 위한 줄을 한쪽으로 꼬아 끝과 끝은 합치면 다시 꼬인 고리가 된다.

오른쪽 어깨고대에서 1cm들어간 겹깃 속에 넣어서 고리를 박아 겹깃의 겹머리 1cm 안에 넣는다.

r. 동정 달기

홍색 은조사에 한지를 넣어서 사용하는데 안감 깃의 안쪽에 시접 1cm 로 박아 겹쪽으로 넘겨서 공구르기 한다.

s. 보 달기

4개의 용보를 양 어깨, 가슴, 등에 위치를 정한 후 공구르기 바느질로 부착한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고종의 황룡포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63>, <그림 64>과 같다.



<그림 63> 황룡포 재현 작품 (앞)



<그림 64> 황룡포 재현 작품 (뒤)

## 5. 왕의 상복(홍룡포)

현재 현존하는 유일한 홍룡포는 영친왕이 착용하였으며 고궁박물관 소장이다. 이 유물은 광무 원년 복제(服制)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조선시대 마지막 왕복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겉감인 홍색 운보문사 단령과 안감인 남색 운보문사 직령이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정은 옥색 숙고사이다. 운보문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황제나 왕, 왕세자 등의 용포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겉감과 안감을 각각 홀로 만든 후 징귀 겹으로 만든 형태이며 단을 맞대어 도련과 쏠선을 따라 고정하였다. 금사로 수놓은 오조룡보는 총 4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양 어깨의 보 지름은 20cm이고 가슴과 등의 보 지름은 21cm로 다르다. 보의 부착 위치는 어깨는 고대 옆, 가슴에는 단령 깃 바로 아래, 등은 뒷목 점에서 10cm 내려간 점이다. 단령 깃에 매듭단추를 달아 오른쪽 어깨에 천을 가늘게 말아 만든 쌍밑이 기법으로 단추 고리를 달아 깃을 고정하도록 되어 있다. 겉고름 중 긴 고름은 홍색과 남색으로 이루어진 이중고름 형태로 홍색 고름은 길이 96.3cm, 너비 8cm, 남색 고름은 길이 94.5cm, 너비 8cm이며 고름 고정 부분부터 40cm까지 시침하여 두 고름을 고정시켰다. 대대 고리는 길이 15.5cm, 너비 1cm가 4.5cm가 접히도록 겨드랑이 아래 부착되어 있으며 길 쪽에 하나 더 있다. 무는 사다리꼴 형태로 100cm의 길이가 앞길과 연결되어 있고 아래너비가 55cm이고 21cm만큼 뒤로 젖혀져 있다. 무의 윗부분은 사선 길이로 14.5cm 부분과 꼭지점에서 34cm 아래까지 뒷길에 바느질되어 고정되어 있고 그 아래는 트여있다.<sup>296)</sup>

황룡포와 다르게 뒷길, 무, 쏠이 안감과 겉감이 함께 봉제되어 있으며 배래는 안감과 겉감이 따로 바느질 되어 있고 수구부분에 박쥐매듭이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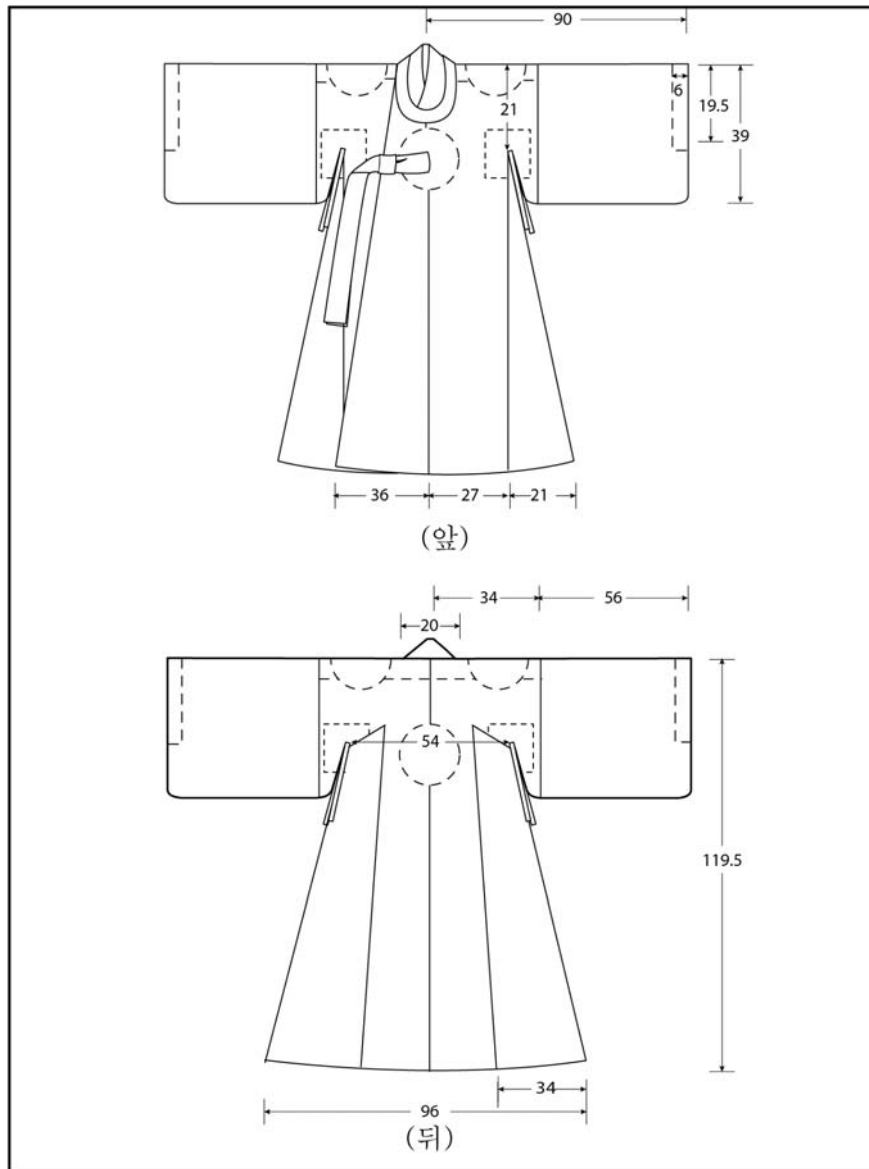
296) 국립고궁박물관(2010), 전계서, pp.12-13.

1) 홍룡포

(1) 홍룡포

① 도식화

홍룡포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65>와 같다.



<그림 65> 홍룡포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홍룡포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겹감과 안감은 운보문단, 동정은 명주이며 각 치수는 <표 16>와 같다.

<표 16> 홍룡포 소재 및 치수

홍룡포			
구성	겹		
색상	홍(紅)색, 청(靑)색, 청록(靑綠)색		
소재	운보문단(silk) - 겹감, 안감 명주(silk) - 동정		
원단소요량	겹감(홍색) - 폭 110cm 길이 830cm 안감(청색) - 폭 110cm 길이 690cm 동정(청록색) - 폭110cm 길이 80cm		
치수	길	뒷길이	119.5
		앞길 아래너비	27
		뒷길 아래너비	27
		화장	90
		폼	54
		고대	20
	소매	진동	21
		두리	7
		소매너비	39
		수구	19.5
		길이	56
	깃	겹깃 길이 너비	101 / 4
		안깃 너비	7
	섶	겹섶길이	118(外)
		겹섶너비(上/下)	20/36
		안섶길이	85(外)
		안섶너비(上/下)	10/37
	무	길이	길연결100
		너비(上/下)	14.5/앞21+뒤34=55
	겹바대	가로×세로	8×8
	등바대	가로×세로	68×13
	고름	긴 고름 길이×너비	96.3×8
		긴 고름 길이×너비(안감)	94.5×8
		짧은 고름 길이×너비	83×8
		안고름 길이×너비	50×3
		대대고름 길이×너비	40×2
각띠고리 길이×너비		40×5	
보 지름		20	
동정 길이×너비		75×9	
소매단 / 밑단		6 / 6	

### ③ 마름질 방법

#### a. 곁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19.5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25.5cm, 윗너비는 1/2품 27cm에 두리 7cm를 더한 34cm, 아래너비 1/2품 27cm로 시접은 등술과 도련은 2cm로 하여 어깨선에서 뒷길과 골로 마른다. 뒷길은 치수가 앞길과 동일하며,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수구에 제물단으로 바느질하며 길이 56cm에 제물단 6cm를 포함한 62cm이며, 소매 너비는 78cm에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을 마른다.

겉선은 길이가 118cm, 윗너비(고대만큼)는 20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로 23.5cm이며, 아래너비는 36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해 39.5cm로 1장 마른다. 안선은 길이가 85cm, 윗너비는 8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하여 15.5cm이며, 아래너비는 37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한 44.5cm로 1장 마른다.

무는 길이 100cm에 밑단 분량 6cm를 포함한 106cm, 아래너비 55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4장 마른다.

단은 겉선의 안단으로 쓰이며 길이 118cm, 너비 4cm로 하여 골선으로 1장 마른다.

깃은 길이 101cm,너비 8cm를 정바이어스 방향 골선으로 시접 2cm로 1장 마른다.

겉고름에서 긴 고름은 길이 96.3cm, 고름너비 8cm,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짧은 고름은 길이 83cm, 고름너비 6cm,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길이 50cm, 고름너비 3cm,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대대 고름은 길이 40cm, 너비 2cm로 시접 1cm를 포함하여 골선으로 2장

마른다. 각띠 고름은 길이 62cm, 너비 5cm로 시접 1cm 포함하여 골선으로 2장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35cm, 세로 7.5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한 장을 마르고, 걸바대는 가로와 세로를 9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네 장을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66>과 같다.



b. 안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19.5cm에 밑단 분량 6cm 포함한 125.5cm, 윗너비는 1/2품 27cm에 두리 7cm를 더한 34cm, 아래너비 1/2품 27cm로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2cm로 하여 어깨선에서 뒷길과 골로 마른다. 뒷길은 치수가 앞길과 동일하며,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수구에 제물단으로 바느질하며 길이 56cm에 제물단 6cm를 포함한 62cm이며, 소매 너비는 78cm에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을 마른다.

겉선은 길이가 118cm, 윗너비(고대만큼)는 20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로 23.5cm이며, 아래너비는 36cm에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해 39.5cm로 1장 마른다. 안선은 길이가 85cm, 윗너비는 8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하여 15.5cm이며, 아래너비는 37cm에 제물단 4cm, 직선시접 2cm, 사선시접 1.5cm를 더한 44.5cm로 1장 마른다.

무는 길이 100cm에 밑단 분량 6cm를 포함한 106cm, 아래너비 55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4장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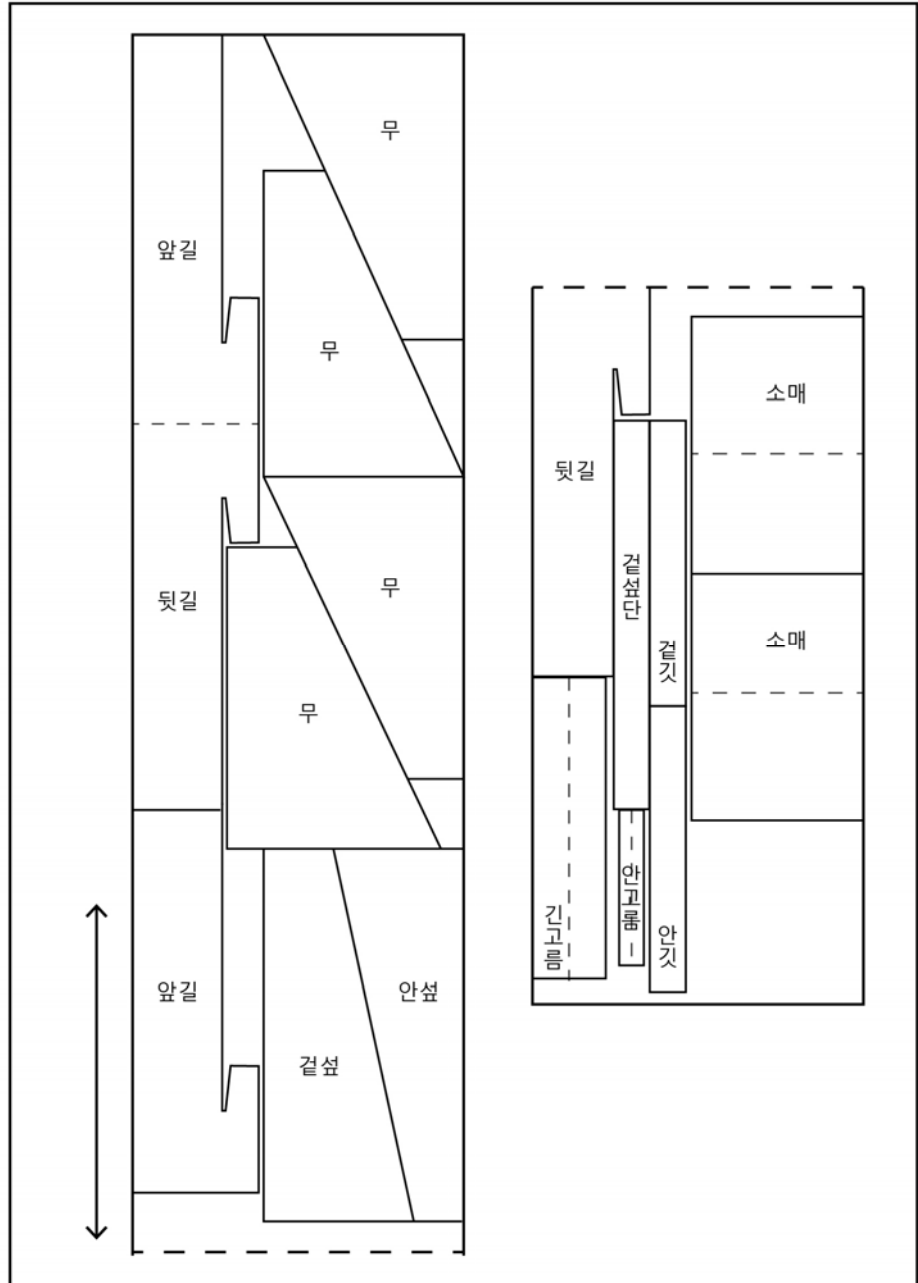
단은 겉선의 안단으로 쓰이며 길이 118cm, 너비 4cm로 하여 골선으로 1장 마른다.

깃은 길이 85cm, 너비 8.5cm로 시접 1cm를 주어 2장을 마른다.

긴 고름은 길이 96.3cm, 고름너비 8cm,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긴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길이 50cm, 고름너비 3cm, 시접 1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홍룡포 안감에 대한 재단도는 다음 <그림 67>와 같다.

동정은 안감 깃에 부착하며 청록색 원단으로 너비 9cm, 길이 75cm를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그림 67> 홍룡포 안감 차단도

#### ④ 제작 방법

##### a. 길 바느질

등술 시점은 1.5cm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바느질하고 솔기는 오른쪽으로 넘긴다.어깨 솔기는 등술기 중심에서 고대를 두고 바느질하여 시점은 등쪽으로 각 한다.

안감의 길 바느질은 겉감과 동일하며 등술 시점은 겉감과 어긋나게 접는다. 등바대와 겹바대는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하는데 안감 쪽에는 등바대만 붙인다.

##### b. 겉섄 바느질

겉섄은 단 6cm 섄단의 한쪽에 1cm 의 시점을 일정하게 접어 겉섄의 겉쪽 사선 시점위에 놓아서 시침하여 사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바느질하는데 사선은 밑에 놓아서 바느질한다.

시점은 단 쪽에서 섄 쪽에으로 접어 단의 시점이 안쪽으로 0.1cm 로 밀려들게 하는데 섄단 6cm는 접되 섄 안쪽에서 시침한 다음 1cm 간격으로 공그르기 한다.

##### c. 안섄단 바느질

안섄은 도련선이 직선이므로 체물단으로 마름질이 되어있고 바느질의 시점 1.5cm와 단너비 4cm 로 접어 섄 안쪽에서 1cm로 공그르기 한다.

##### d. 수구단 바느질

수구단은 겉섄단과 같이 6cm로 해서 바느질의 시점은 1.5cm로 하여 소매 안쪽에서 공그르기 한다.

##### e. 큰무 바느질

큰 무와 작은 무는 구분한 후 큰 무는 앞길의 양쪽 옆선에서 바느질하고 작은 무는 뒷길의 옆선에 바느질한다.

앞길의 옆선 직선은 진동 밑에서부터 1cm 시점으로 접어 큰 무의 사선 시점 1.5cm에 붙여 바느질하며, 안감의 큰 무도 동일하게 바느질한다.

f. 작은 무 바느질

뒷길 양쪽의 옆선에 직선 시접은 접어서 작은 무의 사선에 붙여 바느질하고 안감의 작은 무도 동일한 바느질로 한다. 무의 바느질 할 때 사선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길의 직선 위에 놓고 무 사선은 아래에 놓아서 바느질한다.

g. 겹섶 바느질

섶단은 만들고 바느질한 겹섶은 입었을 때 왼쪽의 앞길 중심선에 섶의 직선을 놓아 붙이고 안감 겹섶도 동일하게 바느질 한다.

시접은 섶 쪽으로 접는데 겹감 안감의 섶이 동일한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h. 안섶 바느질

안섶은 직선 도련선에 섶단을 만들어 바느질하여 입어서 오른쪽 앞길을 안섶의 사선부분에 붙이며 안감의 안섶도 동일하게 바느질한다. 시접은 길 쪽으로 접는다.

i. 소매 바느질

겹감 소매와 안감 소매는 따로 바느질해서 시접은 갈라준다.

j. 밑단 바느질

겹감의 뒷중심선에서 도련선을 정한 후 무의 옆선이 직각이 되어 각이 지지 않도록 도련선을 정하고 단 너비 6cm는 접어서 공그르며 안감 단도 겹감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어 공그르기 하여 겹감 보다 0.2cm 짧게 한다.

k. 겹감과 안감의 무 연결 바느질

겹감과 안감의 솔기 부분은 각각 바느질이 되어 있으므로 겹과 안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겹감의 큰 무와 작은 무는 마주하여 바느질한다. 시접은 안감 쪽에서 겹감 방향으로 접어 뒤집는다.

l. 뒤집기

뒷길의 겹감과 안감 사이에 앞길 좌·우를 끼워 넣고 소매는 빼내어 겹과

안을 포개 배래를 바느질 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수구는 19.5cm로 하고 배래는 39cm 로 하여 바느질한다.

m. 도련 단 공그르기

아랫단, 섯단, 수구단은 겹은 겹, 안과 안을 다시 공그르고 겹감과 안감을 각각 만들어 합친 후 공그르기 한다.

n. 무 의 정리

앞길의 큰 무와 뒷길의 작은 무를 맞붙이는데 작은 무가 큰 무의 바깥으로 밀려 나지 않도록 위에서 30cm로 공그른다.

맞붙여진 무는 뒷길 쪽으로 접어 어깨선과 등술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무는 균형이 되게 뒷길에서 고정하여 위에서 30cm 까지 3땀 상침 바느질을 한다.

o. 깃, 고름, 동정, 매듭단추 바느질과 용보 다는 방법은 황룡포와 동일하다.

⑤ 완성 작품

국립박물관 소장 영친왕의 홍룡포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68>, <그림 69>와 같다.



<그림 68> 홍룡포 재현 작품 (앞)



<그림 69> 홍룡포 재현 작품 (뒤)

## 6. 황후의 법복(십이등적의)

황후 및 왕비의 법복 유물은 십이등적의와 구등적의가 있으며 십이등적의는 최고 여자 신분인 황후의 법복(法服)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물은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純貞效皇后)의 십이등적의와 중단, 폐슬, 하피가 있으며, 황후의 적의로는 유일하다. 구등적의는 영친왕비가 착용한 유물이 전래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시기에 따른 복식의 바느질 방법에 중점을 두어 구등적의보다 십이등적의를 먼저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느질법으로 재현 가능한 십이등적의, 중단, 폐슬, 하피를 제작하였으며, 제작에 필요한 치수는 순정효황후 유물의 치수를 참고하였다.

십이등적의는 청색에 적문과 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꽃으로 국속화된 이화문이 수놓아진 문단을 사용하여 홀으로 제작되었으며, 앞면의 좌우가 서로 마주 대하여 끈게 내려가 여미어지지 않고, 쇠의 적문이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깃 부분과 도련, 수구에는 9.5cm의 홍단(紅短)에 용과 구름을 직금으로 제작한 직금운용문(織金雲龍文)이 둘러져 있으며 사이사이에 불꽃을 상징하는 화염문(火焰文)이 장식되어 있다. 안단선은 무늬가 없는 홍색명주로 대어 주었고 아래 도련에는 가선 부분이 없다. 또한 아래 도련 끝에서 22cm 올라간 부분까지는 무늬가 직성 되어 있지 않아 청색으로 남아있다. 적의는 총길이 155cm, 화장 101cm, 품 53cm, 진동 23cm, 고대 17cm, 수구 72cm이며, 수구 상단에서 20cm 내려온 부분에 박쥐매듭으로 고정해주었다. 어깨바대는 너비 10cm, 길이 54cm로 고대를 중심으로 달려있고, 겨드랑이 바대는 너비 16cm, 길이 22cm의 크기로 진동주위에 달아주었다. 겨드랑이 사이에는 대(帶)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리를 다는데 홍색 비단으로 너비 1.5cm, 길이 84cm의 끈은 9.0cm를 접어 고리를 만들어 고정시켜 놓고 각각 30cm, 36cm의 길이로 늘어져 있다. 홍단의 고름은 너비가 8.0cm, 길이 88cm로 동일한

치수로 달려 있다. 고대 양쪽에 쌍밀이 단추 고리가 달려 있으며 뒷고대 중심에서 내려온 부분에 용보(龍補)가 달리고 용보의 상단 중심과 좌우 18cm 부분에 쌍밀이 고리 세 개가 나란히 달려있다. 또한 뒷길 도련 중앙 흉단에는 이음선이 있으며 화염문이 금직 되어 있고 그 끝에도 달려 있다. 하피에는 같은 위치에 쌍밀이 단추가 달려있어 단추에 적의의 고리를 끼워주어 하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다. 쌍미리 고리는 하피를 고정시키기 위한 기능을 맡고 있다.<sup>297)</sup> 적의 후면은 등술을 중심으로 좌우의 꿩이 마주 향해 있으며, 보는 오조룡보로 적의와 같은 재질에 굵은 금사로 원형의 가선(加線)을 나타냈다. 보 4개를 다는데 그 중 3개는 용의 꼬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어 꼬리가 오른쪽을 향하는 나머지 1개의 용과 마주본다.

중단은 은색의 무문견(無紋絹)으로 홉으로 만들며, 깃·도련·소매끝에는 홍색의 단 8.5cm 너비로 선을 두르는데, 아래도련에는 거죽에만 둘러있다. 깃 둘레에는 뒷고대를 중심으로 11개의 아(亞)자형 불문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다. 불문은 광무원년 시행되는 제도에 근거하면 황후용은 옥색사(玉色絲)에 13개, 황태자빈은 11개로 구분되고 있으나 영친왕비의 9등적의 중단과 동일한 개수의 불문이 있어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단은 적의 속 받쳐 입는 홉옷으로 적의보다 미세한차이로 작게 제작하였다.

폐슬 유물은 하단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직사각형이며 청색 단에 홍색의 단을 둘러다. 적문은 3등으로 좌우 쌍이 대칭되도록 6쌍이 수놓아져 있으며 화문은 한 개씩 2줄로 4단으로 8개 수놓아져 있다. 홍색의 단에 운룡문이 제작되어 있다.

하피 유물은 짙은 자색 무문단(無紋緞)에 연분홍 삼팔주로 된 안을 넣어 만들었으며 봉문 26개와 운문 26개가 부금 되어있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봉이 날고 있으며 두 줄의 금선을 둘레에 둘러져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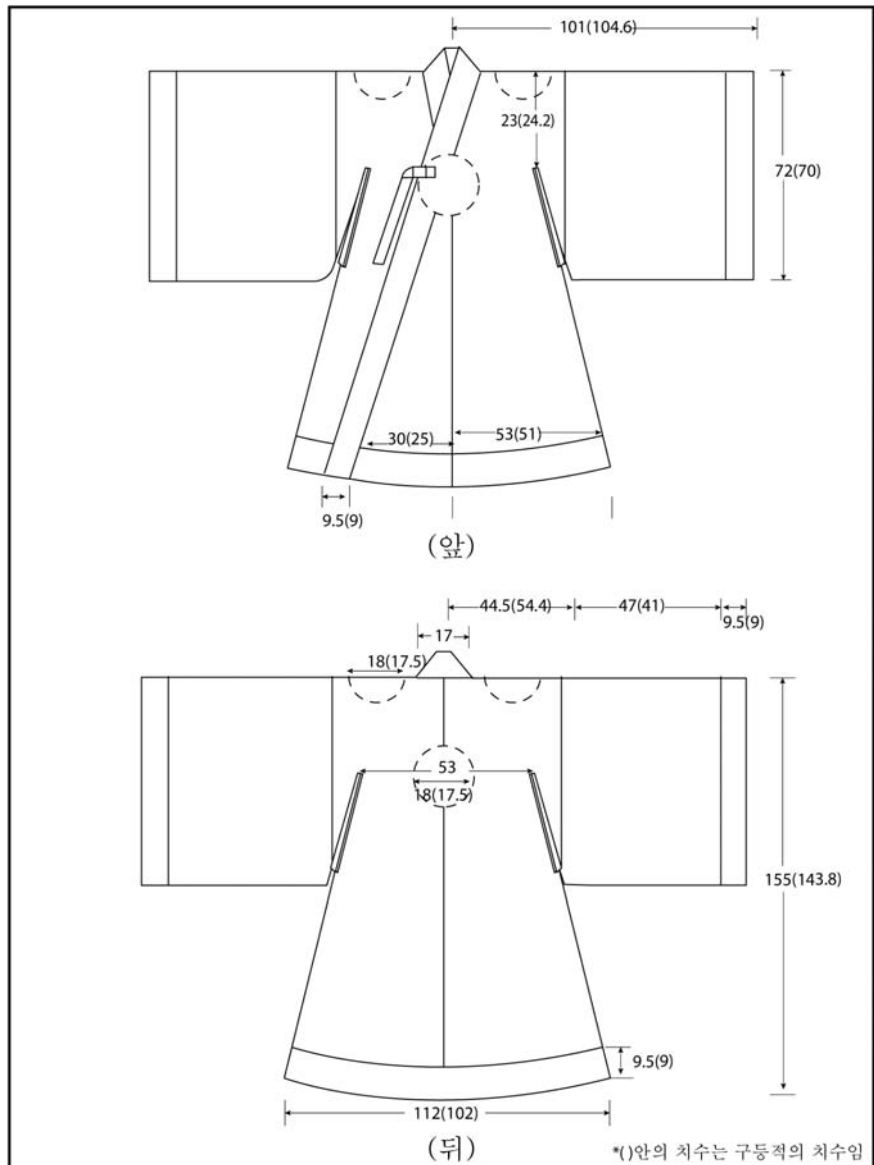
297) 문화재청(2006), 전게서. p.51.

1) 십이등적의

(1) 십이등적의

① 도식화

십이등적의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70>와 같다.



<그림 70> 십이등적의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겉감은 적문이 수놓아진 청색 공단, 단은 용문이 직금되어진 홍색 공단, 고름·등바대·결바대는 공단을 사용하였으며 각 치수는 <표 17>와 같다.

<표 17> 십이등적의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구성	홀		
색상	청(靑)색, 홍(紅)색		
소재	적문 공단(silk) - 겉감 용문직금 공단(silk) - 단 공단(silk) - 고름, 등바대, 결바대		
옷감소요량	겉감(적문 청색) - 폭 70cm 길이 1062cm 단(용문 홍색) - 폭 70cm 길이 380cm 고름(홍색) - 폭 110cm 길이 cm		
치수 (cm)	길	뒷길이	155
		앞길 아래너비	53
		뒷길 아래너비	56
		화장	101
		품	53
		고대	17
	소매	진동	23
		두리	18
		수구(박쥐매듭)	20
		너비	72
		길이	47
	깃	길이×너비	300 × 9.5
	섶	겉섶 길이	111
		겉섶 너비	30
		안섶 길이	111
		안섶 너비	30
	등바대	가로 × 세로	54 × 10
	결바대	가로 × 세로	22 × 16
	고름	긴고름 길이 × 너비	88 × 8
		짧은고름 길이 × 너비	88 × 8
		안고름 길이 × 너비	53 × 2.5
		대대고리 길이 × 너비	84 × 1.5
	보	지름	18
소매단 / 밑단		9.5 / 9.5	

### ③ 마름질 방법

겉감은 12등의 적문 사이에 이화문이 수놓아진 공단을 사용하여 마름질 하였고, 단은 운룡문(雲龍文)을 직금 한 공단으로 마름질하였다.

겉에서 앞길은 길이 155cm, 아래너비 53cm, 윗너비는 1/2품 26.5cm에 두리 18cm를 더한 44.5cm이며 뒷길은 아래너비가 56cm이며 길이와 윗너비는 앞길과 동일하다. 어깨에서 골로 마름질하고 등술과 도련시접은 2cm를 포함하여 좌·우 2장을 마른다.

소매는 길이 47cm, 너비 144cm의 양쪽으로 시접을 2cm씩 두어 2장 마른다.

겉섶은 길이 111cm, 아래너비 30cm에, 안섶은 길이 111cm, 너비 30cm에 각각 시접 2cm 포함하여 1장씩 마른다. 섶의 적문이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게 주의하여 마른다.

깃은 길이 300cm 너비를 10cm로 하여 안깃과 겉깃을 연결하여 골선으로 재단하는데 양쪽 3cm씩 시접을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길이 방향으로 한 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9.5cm로 하여 양쪽 시접 2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 길이는 112cm이므로 56cm로 2 장을 마르고, 겉섶 밑단은 92.5cm로 1 장, 안섶 밑단도 92.5cm로 1장을 마른다. 소매단 길이는 144cm로 하여 시접을 포함하고 골선으로 2장 마른다. 모든 아랫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겉고름은 너비를 8cm로 하고 골선으로 마르며 길이는 긴 고름 88cm, 짧은 고름 88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2.54cm에 길이 53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골선으로 두 장을 마른다.

대대 고름은 너비 1.5cm에 길이 84cm로 두 장을 골선으로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54cm, 세로 10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1장 마르고, 겉바대는 가로는 22cm, 세로는 16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4장 마른다.



#### ④ 제작 방법

##### a. 등솔

어깨와 진동을 시침하여 완성선을 표시하고 뒷길 2장을 겹감끼리 마주 보게 하여 시침 한다. 고대 중심점에서 도련 쪽으로 바느질한 후 다리미로 다린다. 바느질이 된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켜 다리면 판판하게 된다. 다림질 후 손으로 스치면 열 고정에 의하여 반듯해지며 등솔은 가르고 접어서 시침 후 공그르기 바느질로 고정한다.

##### b. 등바대와 곁바대

등바대는 뒷고대를 중심으로 앞길과 뒷길에 걸쳐 잘 맞추어 공그르기로 고정하고, 시접을 등바대 안쪽으로 넣은 후 0.2cm 간격으로 공그르기 바느질로 고정한다. 겨드랑이점에는 곁바대를 다는데 방법은 등바대와 동일하다.

##### c. 쇄 바느질

겉쇠는 길 쪽으로 겉쇠의 왼쪽 길에 어긋한 솔기를 놓은 후 시침한다. 쇄의 적문이 앞길 오른쪽의 적문과 마주하게 하여 양쪽 무늬가 잘 맞도록 주의하여 시침한 후, 바느질 한다. 시접방향은 쇄의 겉쇠 방향으로 넘겨 곱게 다려 꺾는다.

안쇠는 길 쪽으로 안쇠의 오른쪽 길에 어긋한 솔기를 놓은 후 시침한다. 겉쇠와 마찬가지로 쇄의 양쪽 무늬가 잘 맞도록 주의하여 시침한 후 바느질 하고 시접방향은 쇄의 겉쪽 방향으로 넘겨 곱게 다린다.

##### d. 소매단 바느질

소매에 끝선 표시를 하여 시치는 방법으로 중심점을 정한다. 소매단을 겹감 위에 올려놓고 소매단을 연결하여 시침 후 바느질한다.

##### e. 소매 연결하기

두리와 소매의 중심을 잘 맞추어 시침한 후 바느질 한다. 솔기는 가름솔로 접어 공그르기로 바느질하여 다린다.

##### f. 적의 옆선 연결

앞길과 뒷길의 옆선을 곁감 쪽에서 마주하여 시침한 후 바느질 한다. 다리미로 다리고 시점은 안감 쪽에서 통솔 바느질로 정리한다.

g. 배래하는 방법

곁쪽에서 배래와 소매단을 맞추어 시침하고 곁감 쪽에서 바느질한다. 바느질한 부분은 다림질하여 시점 정리한 후 뒤집어 안쪽에서 통솔 바느질 한다. 곁쪽으로 뒤집고 시점은 소매 뒤쪽을 향하도록 다린다.

h. 밑단 연결하기

밑단은 약간 굴러진 형태이며, 도련에는 안단이 달리지 않는다.

길의 안감 아래쪽에 단의 곁감 부분을 올려놓고 양쪽 옆선을 맞추어 시침한 후 단 양쪽을 바느질한다. 양 옆선이 잘 맞는지 앞 아랫단과 뒷길 아랫단의 길이를 확인한다. 단을 곁감과 바느질하여 곁감 쪽으로 꺾고 시점을 단 쪽으로 넣어 시침한 후 공그르기 바느질하여 다린다.

i. 깃(쇳단) 연결하기

깃과 쇳단은 연결 되어 있는 형태로, 깃 안쪽에 심지를 올려 시침한다.

깃은 뒷길의 등솔 중심에서 0.5cm 내려 고대 중심지점에 맞추어 핀으로 고정한다. 좌·우 고대 너비의 1/2의 길이만큼 직선으로 놓고 안쇳과 곁쇳을 따라서 도련까지 핀으로 고정한 후, 도련에서부터 핀을 하나씩 빼가며 곁에서 시침을 한다. 고대지점에서 쇳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시침한 후 바느질을 한다.

안감 쪽으로 단을 넘겨 시점을 정리하고 시침한 후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밑단 위에 쇳단을 올려 시침하고 바느질을 하여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인 시침바느질은 바늘길이 만큼 떠서하는 것이 적당하다.

j. 곁고름 바느질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창구멍 쪽의 안감 쪽으로 접어 넣은 후 창구멍을 제외하고 바느질 한다. 시점은 심감이 없는 쪽으로 하며 길을 먼저 꺾은 후, 너비 부분을 꺾어 다리고 모서리는 삼각형 모양으로 자른다. 고름은 뒤집어

바느질선만 다림질하고, 매었을 때 바느질 시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긴 고름은 고름의 중심이 깃과 섯 사이에 놓이게 하고, 짧은 고름은 고름의 너비만큼 간격을 두어서 긴 고름과 마주보게 바느질한다.

#### k. 안고름 바느질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2장 만들어, 1장은 제비부리로 만들어 사슬뜨기하여 왼쪽 진동 부분에 달고 다른 1장은 안깃의 끝에 단다.

고름은 뒤집을 수 있는 입구 쪽의 시점은 포개서 접어 바느질하여 시점을 접어 길이로 먼저 접고 너비를 나중에 접고 접어서 만나는 모서리는 삼각 모양으로 정리한다.

#### l. 대대 고리 바느질

심감을 대지 않고 2장을 만들어 양쪽 진동 부분에 단다. 37cm 지점에서 반으로 접어 8.5cm 부분에 바느질하여 고리를 만든 후 바느질한 부분을 거드랑이 밑에 두고 박음질 바느질방법으로 고정한다.

#### m. 보 달기

용문이 수놓아진 4개의 보를 양 어깨에, 가슴과 등에 단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72>, <그림 73>과 같다.



<그림 72> 십이등적의 재현 작품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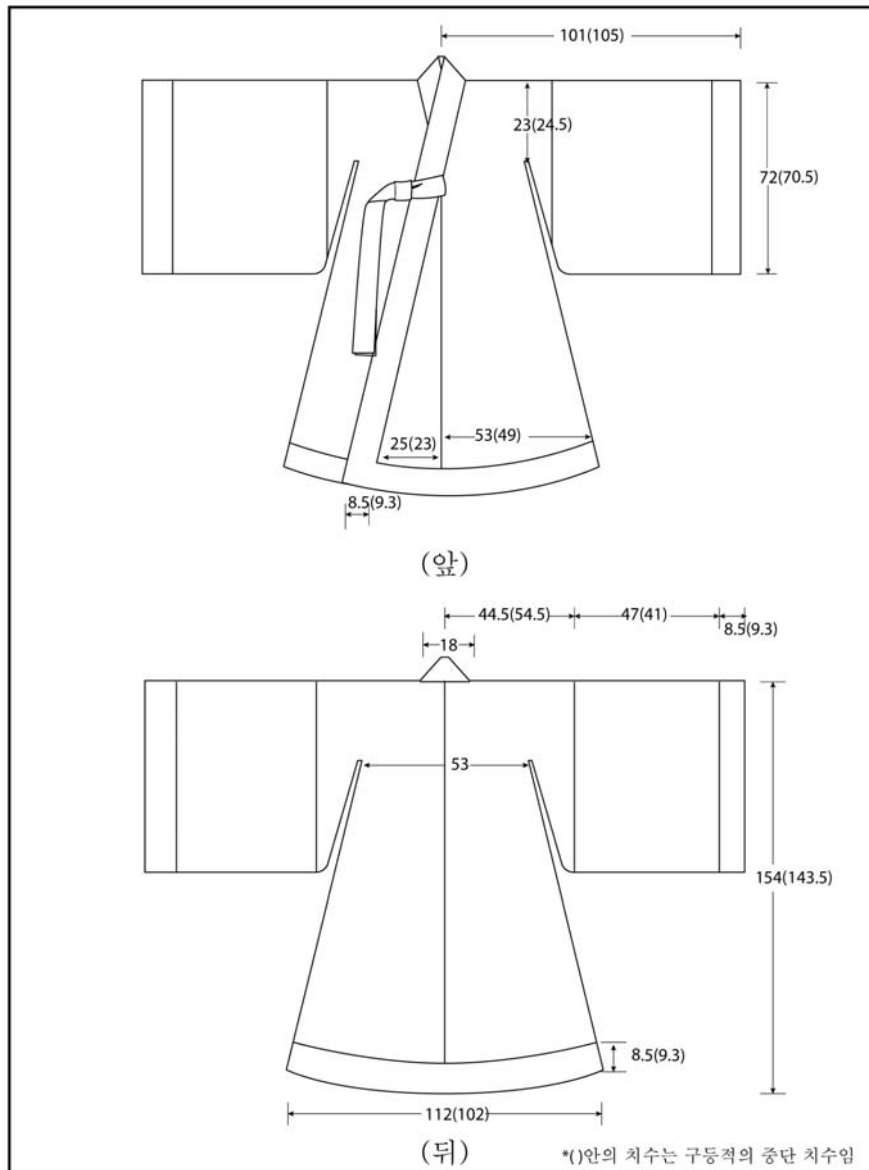


<그림 73> 십이등적의 재현 작품 (뒤)

(2) 십이등적의 중단

① 도식화

십이등적의 중단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74>와 같다.



<그림 74> 십이등적의 중단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중단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무문견이고 각 치수는 <표 18>과 같다.

<표 18> 십이등적의 중단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중단			
구성	홀		
색상	은(銀)색, 홍(紅)색		
소재	무문견(silk)		
원단소요량	길감(은색) - 폭 110cm 길이 585cm 단(홍색) - 폭 110cm 길이 300cm		
치수 (cm)	길	뒷길이	154
		앞길 아래너비	53
		뒷길 아래너비	56
		화장	101
		품	53
		고대	18
	소매	진동	23
		두리	18
		수구	20.5
		너비	72
		길이	47
	깃	깃깃 길이 × 너비	330 × 8.5
	섶	겉섶 길이	122
		겉섶 아래너비	25
		안섶 길이	121
		안섶 아래너비	23
	등바대	가로 × 세로	54 × 10
	겹바대	가로 × 세로	22 × 16
	고름	긴고름 길이 × 너비	93 × 8
		짧은고름 길이 × 너비	87 × 8
		안고름 길이×너비	93 × 8 / 86 × 8
	소매 단 / 밑단		8.5 / 8.5

### ③ 마름질 방법

길에서 앞길은 길이 154cm, 아래너비 53cm, 윗너비는 1/2품 26.5cm에 두리 18cm를 더한 44.5cm이며 뒷길은 아래너비가 56cm이며 길이와 윗너비는 앞길과 동일하다. 어깨에서 골로 마름질하고 등술과 도련시접은 2cm를 포함하여 좌·우 2장을 마른다.

소매는 길이 47cm, 너비 144cm의 양쪽으로 시접을 2cm씩 두어 2장 마른다.

겉섶은 길이 122cm, 아래너비 25cm에, 안섶은 길이 121cm, 아래너비 23cm에 각각 시접 2cm 포함하여 1장씩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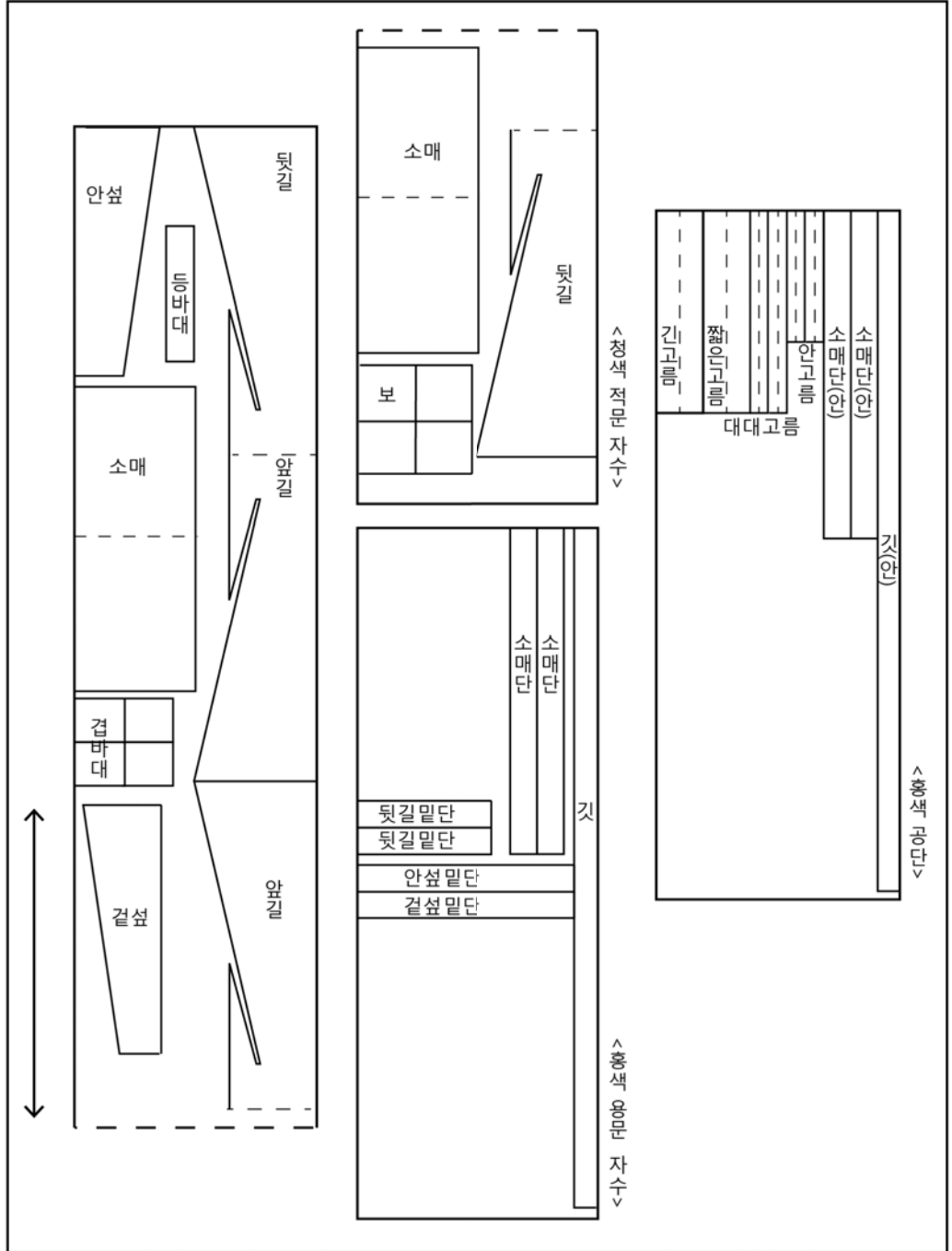
깃은 길이 330cm, 너비 8.5cm로 하여 안깃과 겉깃을 연결하여 골선으로 재단하는데 양쪽 3cm씩 시접을 포함하여 1장 마른다. 길이 방향으로 한 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8.5cm로 하여 양쪽 시접 2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 길이는 112cm이므로 56cm로 2장을 마르고, 겉섶 밑단은 86.5cm로 1장, 안섶 밑단도 84.5cm로 1장을 마른다. 소매단 길이는 144cm로 하여 시접을 포함하고 골선으로 2장 마른다. 모든 밑단은 가로옷감으로 마름질 한다.

겉고름은 너비를 8cm로 하고 골선으로 마르며 길이는 긴 고름 93cm, 짧은 고름 87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마른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은 길이 방향으로 한쪽 너비에만 심감을 대어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8cm에 길이 93cm와 너비 8cm에 길이 86cm 2장을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골선으로 마른다.

등바대는 가로 54cm, 세로 10cm로 하여 시접 1cm를 주고 1장 마르고, 결바대는 가로는 22cm, 세로는 16cm로 하고 시접 1cm로 주어 4장 마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75>와 같다.



<그림 75> 십이등적의 중단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 a. 등솔 바느질

뒷길은 어깨와 진동에 시침으로 완성선 표시하고 뒷길 2장을 겹감끼리 마주보게 하고 시침하여 고대 중심점에서 도런 쪽으로 바느질 한다.

바느질이 된 자리는 다림판 위에 바느질이 된 끝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켜 다린다. 다림질 후 손으로 스치면 열 고정에 의하여 반듯해지며 등솔은 가름솔로 하여 접어 시침 후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 b. 설피 바느질

겉설피는 은색의 등솔 길 위에 놓은 후 시침하여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느질한다. 시접의 방향은 겉설피 쪽으로 꺾어 접어서 곱게 다림질 한다.

안설피는 오른쪽 길 안설피의 사선에 붙여 시침해서 바느질한다. 시접의 방향은 설피 쪽으로 꺾어서 접고 곱게 다림질 한다.

##### c. 소매단 바느질

소매에 골선 표시를 하여 시침하는 방법으로 중심점을 정한다. 홍색은 겹감 쪽에 올려서 소매 단을 연결하여 시침한다. 바느질을 하여 다린 후 시접은 안 쪽으로 꺾어 넘기고 시침하여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 d. 소매 연결하기

소매와 두리의 중심을 잘 맞추어 시침한 후 바느질 한다. 솔기는 가름솔로 접어 공그르기로 바느질하여 다린다.

##### e. 배래 바느질

배래는 겹감에서 배래와 소매단을 잘 맞춘 후 시침하여 겹감 쪽에서 바느질한 후 다린다. 뒤집어서 안쪽에 통솔 바느질하여 겹감으로 뒤집고 시접은 소매 뒤쪽으로 향하도록 다림질을 한다.

##### f. 밑단 연결하기

은색의 뒷도런 단은 약간 굴러진 형태이기 때문에 겹 감길 겹감에 홍색 도런 단을 올려놓고 시침해서 바느질 한다. 다리미로 곱게 다린 후에 뒷길

아랫단과 옆단을 연결한 후 은색 겹감 아래 단에 홍색 단을 바느질 한다. 연결된 홍색의 단은 안쪽으로 접어 넘겨 접어서 단 정리해서 손질하여 시침을 하고 공그르기로 바느질한 후 다리미로 곱게 다린다.

#### g. 깃(쇳단) 연결하기

깃과 쇳단은 연결 되어 있는 형태로, 깃 안쪽에 심지를 올려 시침한다.

깃은 뒷길의 등술 중심에서 0.5cm 내려 고대 중심지점에 맞추어 핀으로 고정한다. 좌·우 고대 너비의 1/2의 길이만큼 직선으로 놓고 안쇳과 겹쇳을 따라서 도련까지 핀으로 고정한 후, 도련에서부터 핀을 하나씩 빼가며 겹에서 시침을 한다. 고대지점에서 쇳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시침한 후 바느질을 한다.

안감 쪽으로 단을 넘겨 시침을 정리하고 시침한 후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밑단 위에 쇳단을 올려 시침하고 바느질을 하여 밀리지 않게 하는 방법인 시침바느질은 바늘길이 만큼 떠서하는 것이 적당하다.

#### h. 곁고름 달기

긴 곁고름과 짧은 곁고름을 바느질 하고 곁고름은 뒤집을 수 있는 입구 쪽의 시침은 포개 접어 바느질 한다. 시침을 접어 길이로 먼저 접고 너비를 나중에 접고 모서리는 삼각형으로 정리하며 곁고름을 뒤집어 바느질선만 다린다. 곁고름은 매었을 때 바느질 시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긴 곁고름은 곁고름의 중심이 깃과 쇳 사이에 놓이게 바느질 하고 짧은 곁고름은 곁고름의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긴 곁고름과 마주보게 바느질한다.

#### i. 안고름 달기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2장 만든다. 1장은 제비부리로 만들어 사슬뜨기하여 왼쪽 진동 부분에 달고 다른 1장은 안깃의 끝에 단다.

#### j. 깃에 불문 금박하기

깃 부분에 아(亞)자형 불문 13개를 금박한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 중단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7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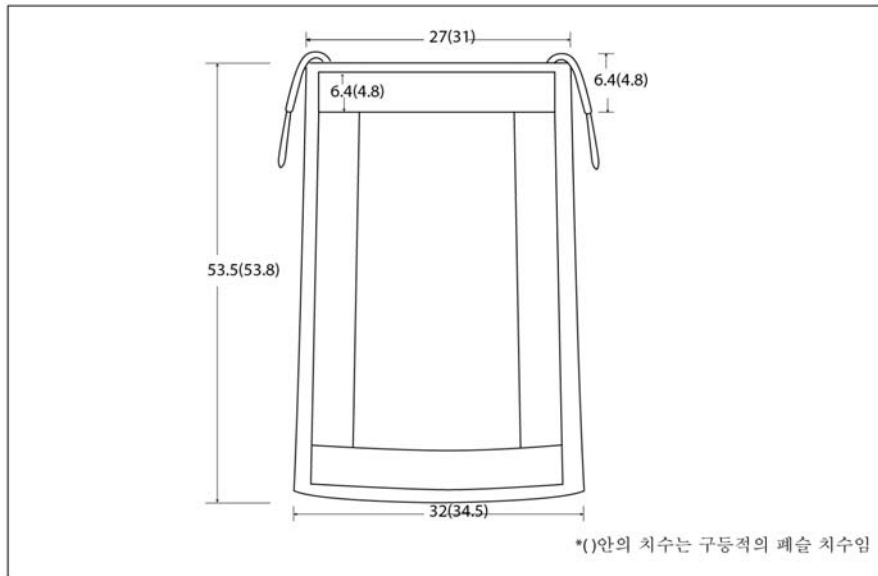


<그림 76> 십이등적의 중단 재현 작품

(3) 십이등적의 폐슬

① 도식화

십이등적의 폐슬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77>과 같다.



<그림 77> 십이등적의 폐슬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폐슬에 사용된 소재는 적문과 이화문이 수놓아진 청색 공단인 곁감과, 운룡문이 금직된 홍색 공단인 단이며 각 치수는 <표 19>와 같다.

<표 19> 십이등적의 폐슬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폐슬		
구성	겹	
색상	청(靑)색, 홍(紅)색	
소재	적문 공단(silk) - 곁감 / 운룡문 금직 공단(silk) - 단 / 공단(silk) - 안감	
원단소요량	곁감(적문 청색/심청문단) - 길이 110cm 폭 36cm 단(운룡문 제직 홍색) - 길이 174cm 폭 9cm 안감(청색) - 길이 110cm 폭 cm	
치수 (cm)	너비	27(上) / 32(下)
	길이	53.5
	단 너비	6.4

### ③ 마름질 방법

겉감은 적문 3줄 사이에 이화문 4줄이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수놓아져 있는 공단과 단은 운룡문이 직금되어 있는 공단으로 마름질 하였다.

적문의 좌우쌍이 대칭되도록 미리 수를 놓은 심청문단과 단은 운룡문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겉감은 아래너비 19.2cm, 윗너비 14.2cm, 길이 40.7cm, 시접 2cm를 포함하여 심감을 올린 후 1장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6.4cm로 하여 밑단은 길이 32cm, 위쪽 단 길이는 27cm에 시접 2cm를 포함하여 1장씩 마른다. 옆단은 길이 40.7cm로 시접 2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안감은 아래너비 32cm, 윗너비 27cm, 길이 53.5cm, 시접 2cm 포함하여 1장 마른다.

### ④ 제작 방법

마름질한 원단과 심감을 준비하여 치수를 확인하고 시침을 한 후 바느질을 하는데 옆단을 먼저 시치고 아랫단을 시침한다. 뒷면과 앞면을 겹쪽 부분끼리 마주보게 하고 시침하여 바느질을 한다.

시접은 안쪽으로 꺾어 넘기고 다림질하여 뒤집는다. 대대고리는 만들어 뒤쪽에 붙이는데 너비 1cm 길이 10.5cm로 2개를 만들어서 단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7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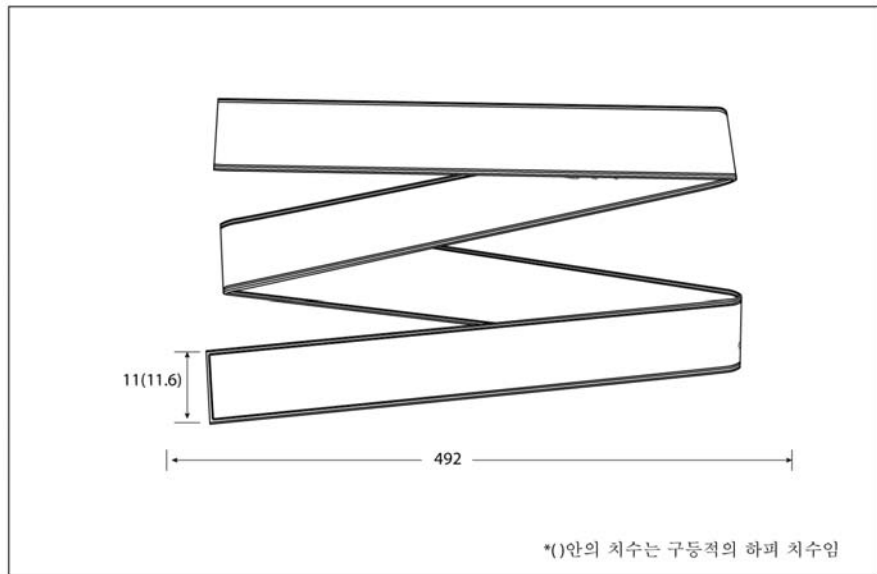


<그림 78> 십이등적의 폐슬 재현 작품

(4) 십이등적의 하피

① 도식화

십이등적의 하피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79>와 같다.



<그림 79> 십이등적의 하피 도식화

②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하피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무문견이고 각 치수는 <표 20>과 같다.

<표 20> 십이등적의 하피 소재 및 치수

십이등적의 하피		
구성	겹	
색상	흑(黑)색, 연홍(軟紅)색	
소재	무문견(silk)	
원단소요량	겉감(흑색) - 길이 110cm 폭 81cm 안감(연홍색) - 길이 110cm 폭 81cm	
치수 (cm)	너비	11
	길이	495

③ 마름질 방법

겉감과 안감은 길이 495cm, 너비 11cm로 시접 1cm를 포함하여 마른다.

④ 제작 방법

겉감에 심감을 올려놓아서 시침하고, 겉감과 안감을 겹끼리 마주보게 하여 시침바느질을 한다. 창구멍은 하피 끝 쪽에 만들고 뒤집어 공그르기 바느질로 마무리한다.

완성 후 봉문 26개와 운문 26개와 두 줄의 금선을 둘레에 부금한다.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봉문이 대칭되어 있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십이등적의 하피를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80>과 같다.



<그림 80> 십이등적의 하피 재현 작품

## 7. 왕비의 범복(구등적의)

적의는 왕비의 범복으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영친왕비의 구등 적의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착용자 미상의 구등적의 2점이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바느질법으로 재현 가능한 적의, 중단, 폐슬, 하피, 대를 제작하고자 하며, 제작에 필요한 치수는 영친왕비의 유물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구등적의는 친애와 해로를 상징하는 꿩과 소륵화문을 넣어 짠 심청색 문단(文緞)을 사용하여 홑으로 지었으며, 적문의 기본적인 색채와 모습은 십이등적의와 같으나 화문은 대한제국의 이화문과 유사하게 도안된 소륵화문으로 다르다. 적의의 형태와 마름질, 제작방법은 밑단 두르는 방법을 제외하고 십이등적의와 같으며 크기가 다르고, 쇄과 길의 적문이 마주 향하는 점이 달라 직조된 천의 방향을 주의하여 션을 단다.

깃, 도련, 소매에는 9cm의 홍단에 운봉문이 직금되어 있으며, 안단선은 십이등적의와 같이 무늬가 없는 홍색 명주로 대었다. 적의는 총길이 143.8cm, 화장 104.6cm, 품 53cm, 진동 24.2cm, 고대 17cm, 수구 70cm이며, 수구 상단에서 19.5cm 내려온 부분에 박쥐매듭으로 고정하였다.

어깨바대는 너비 11cm, 길이 77cm로 고대를 중심으로 달려있고, 겨드랑이 바대는 너비 20cm, 길이 20cm로 진동주위에 달아주었다. 대대고리는 홍색 비단으로 만들며 너비 2cm, 길이 84cm로 만들어 고정시킨다. 겉 고름은 홍단으로 너비는 각각 8.3cm이나 길이는 긴고름은 93cm, 짧은 고름은 83cm로 차이가 있다. 적의에 쌍미리 단추 고리를 달고 하피에 쌍미리 단추를 달아 하피를 고정한다. 적의 후면은 적문의 문양 방향과 오조룡보로 십이등적의와 같았다.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구등적의는 <그림 81>, <그림 82>과 같다.

중단은 총길이 143.5cm, 화장 105cm, 품 53cm, 고대 18cm, 진동 24.5cm,

수구 70.7cm로 적의와 비슷한 치수로 제작되었고, 형태가 십이등적의 중단과 같으나 제작방법 중 도련에 단을 두르는 방법이 달랐다. 십이등적의는 도련에서 거죽에만 단을 대는데, 구등적의 중단은 옷의 겉쪽에 홍색 단을 올려놓고 시침하여 바느질 한 후, 연결된 홍색 단을 안쪽으로 접어 넘겨 단 정리하고 시침하여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하였다.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구등적의는 중단은 <그림 83>와 같다.

폐슬은 적문의 각 좌우쌍이 대칭되도록 짜여졌고, 적문 4쌍과 소륀화 6송이가 직성되어 있으며, 십이등적의는 적문 6쌍과 이화문 8송이가 수놓아져 있어 문양 개수의 차이가 있다. 12등적의 폐슬의 치수는 길이 53.9cm, 윗너비 31cm, 아랫너비 34.5cm, 단 너비 4.8cm로 하며 제작 과정은 십이등적의의 폐슬과 같다. 폐슬 상부에 금구가 부착된 끈을 길이 1cm, 길이 10.5cm로 하여 제작한다. 폐슬의 홍색 단에는 봉문과 화염문이 직금되었고, 십이등적의에는 운룡문이 제직되어져 폐슬 문양도 차이를 보인다.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구등적의 폐슬은 <그림 84>와 같다.

하피는 십이등적의 하피와 형태가 같으나, 치수를 길이 492cm, 너비 11.6cm로 하며, 제작 방법은 십이등적의 하피와 같다.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구등적의 하피는 <그림 85>와 같다.

대는 봉대로 홍색 단으로 만들고 운봉문으로 부금하여 제작방법이 십이등적의와 같고 문양이 십이등적의와 다르다. 대의 안쪽 중앙에는 허리 뒤쪽에서 묶어 고정할 수 있는 끈이 달려있다. 안쪽에 적의대(翟衣帶)라고 쓰여진 한지가 부착되어 있다. 9등적의 대는 홍색 단으로 길이 354cm, 너비 5.5cm에 시침 1cm를 주고 골로 마른 후, 심감을 올려놓고 시침하여 가장자리를 바느질 한다. 대의 중앙지점에 창구멍을 내어 귀집고 공그르기 하여 마감한 뒤, 운봉금을 금박한다. 유물을 참고하여 만든 구등적의 대는 <그림 86>와 같다.



<그림 81> 구등적의 재현 작품 (앞)



<그림 82> 구등적의 재현 작품 (뒤)



<그림 83> 구동적의 중단 재현 작품



<그림 84> 구등적의 paesul 재현 작품



<그림 85> 구등적의 하피 재현 작품



<그림 86> 구등적의 대 재현 작품

## 8. 황후의 상복(황원삼)

황원삼은 황후가 착용한 복식으로 현존하는 유물은 순정효황후가 착용하였고 홍원삼은 영친왕이 착용하여 시기에 따른 바느질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황원삼을 먼저 서술하였다.

황원삼은 조선 말기 황후가 가례(嘉禮) 등의 큰 의식에 입던 대례복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황원삼 유물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순정효황후 유물로 유일하여 이 유물의 치수를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대대의 필요한 치수는 영친왕비 대대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황원삼은 직금원단을 사용하여 겹으로 만드는데, 둥근 맞깃이 달려있고 앞중심과 양 옆이 트여있으며 뒷자락보다 앞자락이 짧은 전단후장(前短後長)형이다. 소매가 넓고 소매끝은 홍색과 청색으로 화문직금단이 두 줄 색동으로 달려있으며 색동 옆으로 백색직금단의 한삼이 홀으로 달린다. 밑단 부분에서 약간 바깥 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황원삼의 겹감은 황색단에 남색으로 단을 대며 앞부분 어깨 상단, 뒷면 상단, 하단, 뒷길 중앙과 앞뒤길 무릎 부분에 황색 문자화문단(文字花紋緞)으로 백수(白壽), 백복(百福), 다남(多男), 도류(桃榴)문, 보문 등 길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안감은 홍색 비단으로 호리병, 박쥐, 화염문, 동그란 모양의 수자문이 있는 호로문단(胡虜文緞)이다. 색동선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에 남색 비단선을 둘러 주었다. 남색선은 안감의 도련에도 대어주었으며, 소매배래 부분이 간소화된 왕실바느질법으로 4겹으로 바느질되어 있다.

겹으로 된 원삼이지만 겹과 안을 따로 바느질 하였으며 깃은 안깃과 겹깃의 구성이 다르다. 겹깃의 경우 직금단을 이용하여 깃 도련이 둥글게 굴러진 배자형 맞깃이 겹으로 달리고 주변을 정교한 박음질로 마무리하였다. 반면 안깃은 안감과 동일한 소재로 목판깃을 달고 위에 안감과 같은 옷감의 백색 동정이 달려 있다. 여밈은 고름이 아닌 단추로 앞길 중앙의 보 바로

위에 사각형의 금단추가 달려있다 안과 거죽을 완성하여 곁감 안에 끼워주었으며 도련선은 공그르기로, 배래는 징귀서 고정해주었다. 곁감과 안감의 도련마다 남색의 비단으로 선이 둘러져 있으며 안깃 아래와 진동선 위부터 대어주었다.

보는 같은 곁감과 같은 황금색 문단에 직금된 오조룡보 4개 부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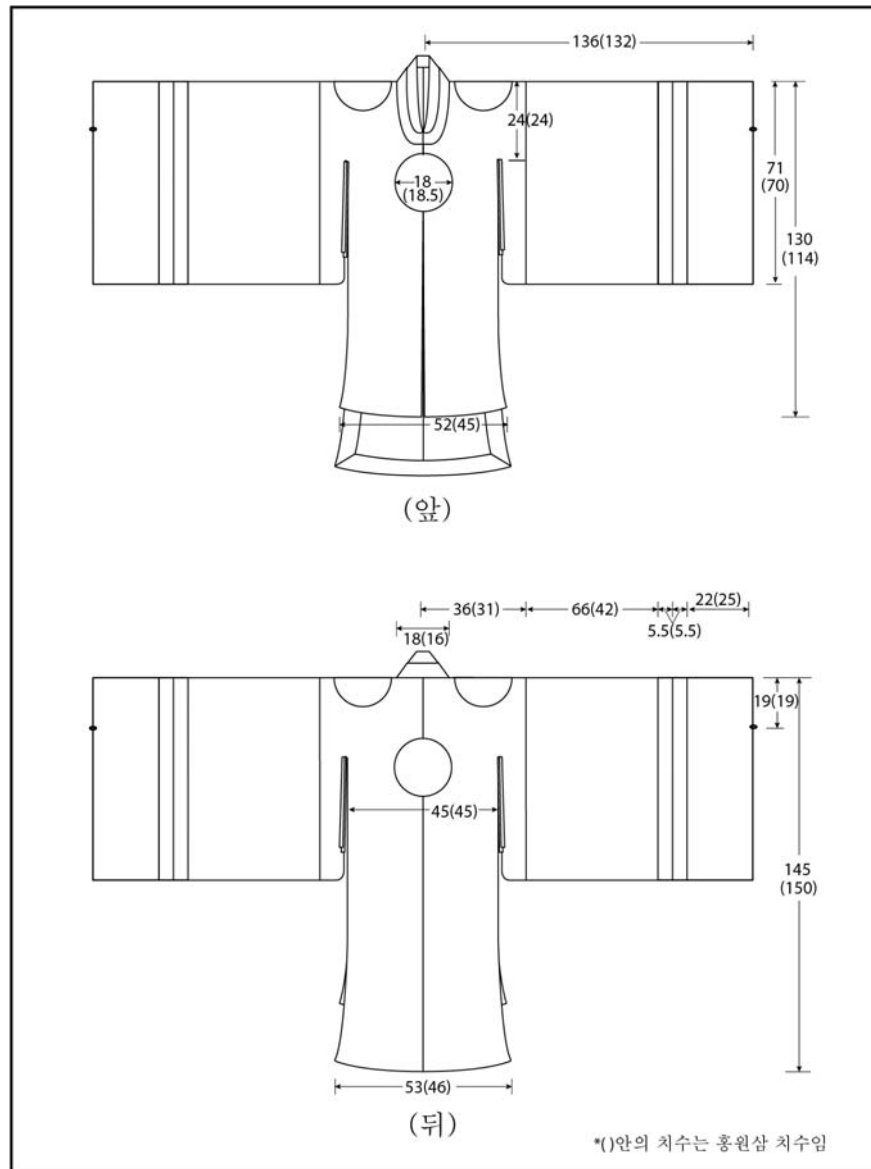
황후의 대대는 홍색의 단에 봉황을 금박한다.

1) 황원삼

(1) 황원삼

① 도식화

황원삼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87>과 같다.



<그림 87> 황원삼 도식화

(2) 소재 및 치수

황원삼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겉감, 색동, 한삼에 문자화문단이며 안감, 단, 동정은 호로문단으로 하였으며 각 치수는 <표 21>과 같다.

<표 21> 황원삼 소재 및 치수

황원삼			
구성	겉		
색상	황(黃)색, 남(藍)색, 백(白)색, 홍(紅)색		
소재	문자화문단(silk)-겉감, 색동, 한삼 호로문단(silk)-안감, 단, 동정		
원단소요량	겉감 (황색) - 폭 110cm 길이 480cm 안감, 색동 (홍색) - 폭 110cm 길이 545cm 단, 색동 (남색) - 폭 110cm 길이 170cm 한삼, 동정 (백색) - 폭 110cm 길이 145cm		
치수 (cm)	길	앞길이	130
		뒷길이	145
		앞길 아래너비	26
		뒷길 아래너비	26.5
		화장	136
		폼	45
		고대	16
	소매	진동	24
		두리	13.5
		너비	70
		수구(박취매듭)	19
		길이	66
		한삼 너비	23
		색동 너비	5.5
	깃	겉감 깃 길이 × 너비	60 × 6
		안감 깃 길이 × 너비	60 × 9
	안고름	길이 × 너비	40 × 3
	대대고름	길이 × 너비	38 × 2
	동정	길이 × 너비	62 × 8
	보 지름		18
단 너비		7	

### ③ 마름질 방법

#### a. 겉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30cm, 아래너비 26cm, 윗너비는 1/2푼 22.5cm에 두리 13.5cm를 더한 36cm로 하고, 뒷길은 길이 145cm, 아래너비 26.5cm, 윗너비는 36cm으로 한다.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1.5cm, 두리는 1cm를 두고 앞길과 뒷길은 어깨에서 골선으로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길이 140cm, 너비 66cm에 양쪽으로 시접을 1.5cm씩 두어 2장 마른다.

깃은 길이 60cm, 너비를 6cm로 하여 양쪽 1.5cm씩 시접을 포함하여 안깃과 겉깃을 각각 1장 마른다.

대대 고름은 너비 2cm에 길이 38cm로 두 장을 골선으로 마른다.

색동은 홍색과 청색이며 길이 140cm, 너비 5.5cm에 시접을 1.5cm을 포함하여 2장씩 마른다.

한삼은 길이 140cm, 너비가 안쪽으로 골선으로 접히므로 23cm의 두배인 46cm 에 시접 1.5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7cm로 하여 양쪽 시접 3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은 53cm에 1장을 마르고, 앞길 밑단은 길이 26cm로 2장, 뒷길 옆단은 길이 133cm로 2장, 앞길 옆단은 113cm로 4장으로 한다. 겨드랑이에 대는 단은 가로와 세로가 7cm씩 하여 4장을 마른다. 아랫단은 가로옷감으로 밑단 모양대로 마름질한다.

b. 안감

길에서 앞길은 길이 130cm, 아래너비 26cm, 윗너비는 1/2품 22.5cm에 두리 13.5cm를 더한 36cm로 하고, 뒷길은 길이 145cm, 아래너비 26.5cm, 윗너비는 36cm으로 한다. 시접은 등솔과 도련은 1.5cm, 두리는 1cm를 두고 앞길과 뒷길은 어깨에서 골선으로 좌·우 2장을 마름질한다.

소매는 길이 140cm, 너비 66cm에 양쪽으로 시접을 1.5cm씩 두어 2장을 마른다.

깃은 길이 60cm, 너비를 6cm로 골선으로 양쪽에 1.5cm씩 시접을 포함하여 1장을 마른다.

안고름은 심감을 대지 않고 너비 3cm에 길이 40cm로 하여 양쪽에 시접 2cm를 두고 골선으로 두 장을 마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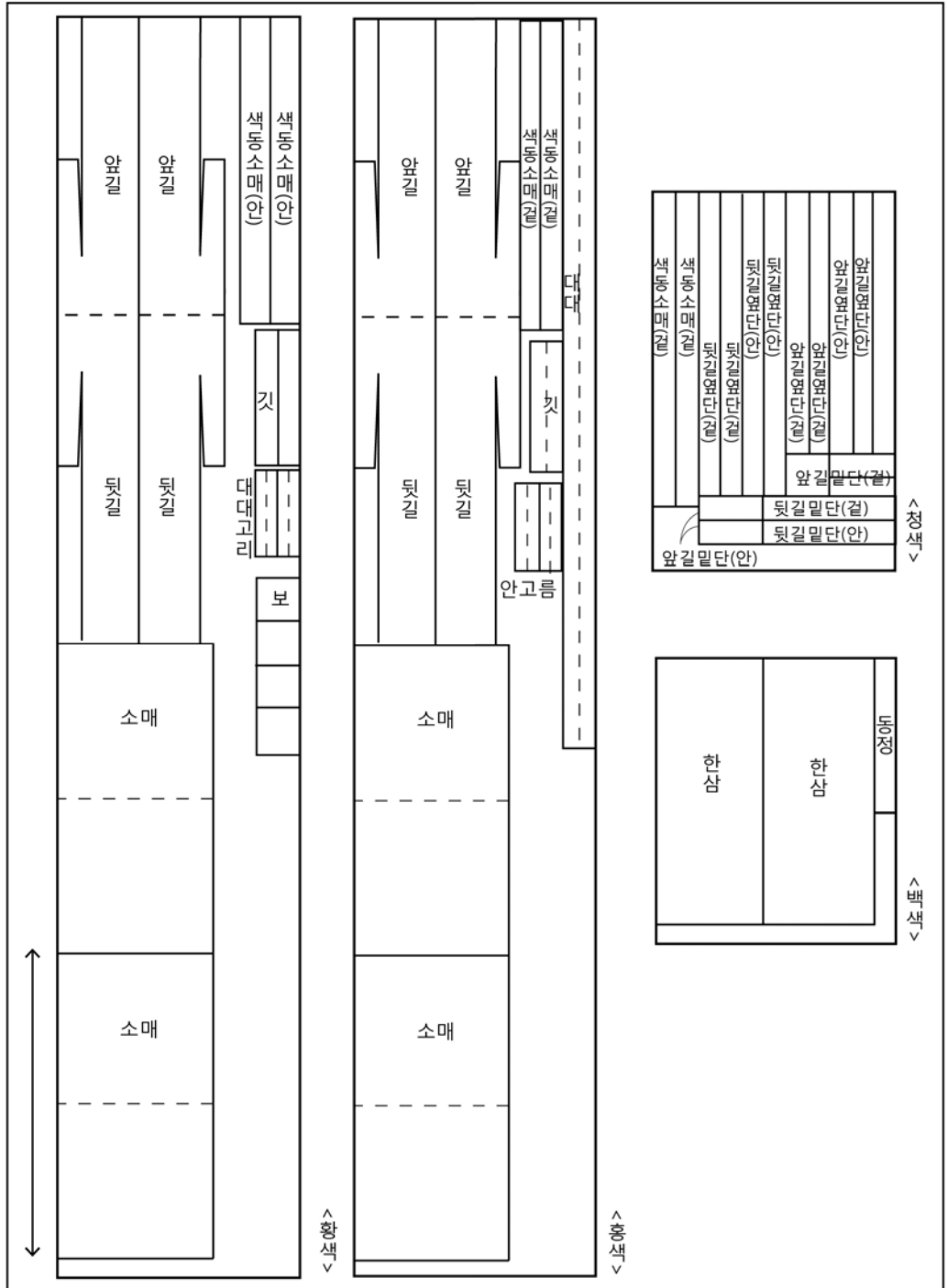
대대 마름질도 같이한다.

겉감의 색동 부분의 안감으로 너비 11cm, 길이 140cm에 시접 1.5cm로 포함하여 2장 마른다.

단은 모두 너비 7cm로 하여 양쪽 시접 3cm를 주어 마르는데, 뒷길 밑단은 53cm에 1장을 마르고, 앞길 밑단은 길이 26cm로 2장, 뒷길 옆단은 길이 133cm로 2장, 앞길 옆단은 113cm로 4장으로 한다. 겨드랑이에 대는 단은 가로와 세로가 7cm씩 하여 4장을 마른다. 아랫단은 가로옷감으로 밑단 모양대로 마름질한다.

동정은 안감 깃에 달리며 흰색으로 동정 너비 8cm, 길이 62cm, 시접 1.5cm를 포함하여 1장 마른다.

이상의 내용은 정리하면 <그림 88>와 같다.



<그림 88> 황원삼 재단도

#### ④ 제작 방법

##### a. 겉감 등솔

뒷길 바느질은 심감을 대어 시침한다. 어깨와 진동선은 시침으로 완성선 표시를 하고 뒷길 두 장을 겉감끼리 마주보게 시침한다. 중심선에서 고대중심점에서 8cm 아래부터 도련 쪽으로 바느질을 한 후 다림판 위에서 바느질이 된 끝 부분을 편으로 고정시킨다. 다림질로 열 고에 의하여 반듯하며 등솔은 입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 넘겨 다린다.

마름질 된 선단 길과 연결되는 시점은 1cm의 선단은 공그르기 할 시점 1cm로 정하여 선단 너비 5cm로 꺾어둔다.

##### b. 겉감 길에 선단 연결하기

선단에 심감을 올려놓아 시침 후 겉감 쪽에서 바느질 하여 안감 쪽으로 꺾어 넘기고 뒷길 앞길의 몸판 길에 단을 댄 후 바느질을 한다. 선단은 안 쪽으로 넘겨 시점은 1.5cm 너비로 접어서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선단의 거드랑이 단은 단 너비와 같은 치수로 올라가도록 하여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아래 부분단도 선단과 같은 방법으로 겹치는 부분은 아랫단의 올린 끝을 접어 맞추고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단 달기 할 때는 위에서 아래 쪽 방향으로 단다.)

겉감의 겉과 1cm 시점은 선단과 마주하여 바느질을 하는데 진동에서 선단 너비만큼 올려서 바느질 한다. 선단의 겉감 쪽에서 겉감 쪽으로 시점은 꺾어 겉감의 안쪽에서 공그르기로 선단을 만들어 같은 방법으로 앞길의 앞단과 뒷길의 옆단을 바느질한다. 안감은 안에서 선단을 바느질해서 안감의 겉쪽으로 단을 만들어 공그르기 한다. 옆선단과 아래 선단이 만나는 바느질 방법은 대각선으로 정리하고 공그르기 한다. 선단 달 때는 위에서 아래 쪽 방향으로 단다.

##### c. 겉감 소매에 색동 연결

소매에 홍색과 남색 색동을 연결하여 다린 후 연결한 색동에 심감을 대고

시침을 한다. 연결한 색동에 흰색 한삼 을 연결하여 시침을 해서 바느질을 한다. 한삼의 시점은 길 쪽으로 꺾어 넘긴다.

d. 두리와 소매 연결

소매에 색동 소매를 연결 하는데 골선으로 표시를 하여 시치는 방법으로 중심점을 정한 후 소매와 색동 쪽을 연결해 시쳐 바느질한다. 소매와 두리 소매는 잘 맞추어 시침해 바느질 한 후 다림질을 하고 솔기는 가름솔로 하여 다린다.

e. 안감 등솔

뒷길 바느질은 심감을 대어 시침한다. 어깨와 진동선은 시침으로 완성선 표시를 하고 뒷길 두 장을 겹감끼리 마주보게 시침한다. 중심선에서 고대중심점에서 8cm 아래부터 도련 쪽으로 바느질을 한 후 다림판 위에서 바느질이 된 끝 부분을 핀으로 고정시킨다. 다림질로 열 고정에 의하여 반듯하며 등솔은 입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꺾어 넘겨 다린다.

마름질 된 선단 길과 연결되는 시점은 1cm의 선단은 공그르기 할 시점 1cm로 정하여 선단 너비 5cm로 꺾어둔다.

f. 안감에 단 연결하기

선단에 심감을 오려 시친 후 안감 단 안쪽에서 바느질 하여 겹감 쪽으로 꺾어 넘기고 뒷길 앞길 몸판 길에 남색 단을 댄 후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겹쪽으로 넘기고 시점은 1.5cm로 접어서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선단의 거드랑이 단은 단 너비와 같은 치수로 올라가도록 하여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아랫단은 선단과 같은 방법으로 겹치는 부분은 아랫단의 올린 끝을 접어 맞추고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선단을 달 때는 위에서 아래 쪽 방향으로 달고 옆단을 먼저 바느질 하고 밑단 왼쪽 오른쪽 양옆에는 연귀이엄 방법으로 바느질을 한다.

안감의 겹과 1cm 시점은 선단과 마주해서 바느질을 하는데 진동에서 선단 너비 5cm 올려서 바느질 한다. 단 쪽에서 겹감 쪽으로 시점은 꺾어 겹감

의 안에서 공그르기로 선단을 만들어 같은 방법으로 앞길의 앞단과 뒷길의 옆단을 바느질한다. 안감은 안에서 선단을 바느질하여 안감의 겉쪽으로 단을 만들어 공그르기 한다. 옆선단과 아래 선단이 만나는 바느질방법은 대각선으로 정리하고 공그르기 한다.

g. 안감 소매에 색동 연결, 소매와 두리 연결

안감 소매에 색동으로 겉감의 색동 남색 5cm만큼 시접 1.5cm로 하여 바느질한다. 소매와 두리는 잘 맞추어 시침하여 바느질을 한 후 시접은 갈라준다.

h. 수구 바느질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을 마주보게 하고 한삼의 끝이 안감의 색동소매와 합쳐 바느질 하여 겉감 청색 색동까지 흰색 한삼이 닿도록 한다.

i. 배래 박기

겉감과 안감을 4겹이 되게 포개 접었을 때 진동부분은 바느질이 빠지지 않도록 잘 맞춘다. 앞길을 뒤집으면서 뒷길사이에 끼워 넣어 4겹이 된 배래를 접어 겨드랑이 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침하여 수구의 끝점에서 진동선까지 박음질한다.

한삼의 배래는 바느질을 하지 않고 시접은 겉감 쪽으로 꺾는 방법으로 배래의 바느질 할 때 배래선이 물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삼은 홀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삼 부분만 통솔바느질 방법으로 한다. 배래선을 연결할 때는 안감 소매 끝에 겉감의 한삼을 연결하여 안에서 공그르기 바느질 한다.

j. 겉깃 만들기

겉깃 위에 심지를 시침하여 깃 모양대로 깃머리를 시치고 당기면서 다림질을 하여 깃의 위치에 시침하여 바느질을 한다. 겉깃과 안깃은 깃머리 부분은 바늘로 훑질하여 조금씩 잡아 당겨 깃 모양의 본을 놓아 다린다.

깃을 만들어 고대 중심에서부터 좌·우를 맞추어 깃머리가 휘어지지 않게 내려가면서 직선이 되도록 시침한 후 바느질하고 깃 위에서 상침한다.

k. 안깃 만들기

안깃은 목판깃으로 하는데 안깃에 심감을 올려놓아 시침하고 두 장을 만들어 한 장은 겹깃으로 사용하고 한 장은 안깃으로 사용한다.

깃의 뒷길 등술 중심에서 0.5cm 내려서 깃고대는 잘 맞추어보고 핀으로 고정하여 좌·우 고대 너비의 1/2만큼 직선으로 놓아 깃의 위치를 확인한다. 안깃은 겹깃위에 올려 겹깃 겹쪽과 안깃 겹끼리 마주보게 놓아 핀으로 시침하고 핀을 하나씩 빼면서 바느질한다. 안깃은 안쪽으로 깃을 넘겨 다림질해서 시접을 정리한 후 시침을 하고 공그르기 한다.

l. 동정 달기

동정은 심감을 대어 만들며 안감 깃 위에 단다.

m. 보 만들기

보는 지름이 18cm 자수가 놓아진 보를 만드는데 원단위에 심지를 대어 시침하여 바느질하고 겹쪽에 홈질을 하여 보 크기에 맞추어 당기며 다림질을 한다. 보의 뒷면에는 국사 원단으로 만들어 겹감과 안감을 함께 시침 후 바느질 한다. 보는 만들어서 양쪽 어깨는 고대지점 0.7cm에 양쪽으로 두 장을 달고 뒤쪽은 16.5cm 아래 지점에 1장 달고 앞쪽은 깃 아래지점에 1장 단다.

n. 단추달기

칠보단추는 오른쪽에 달고 단추 고리는 왼쪽에 단다.

o. 금박 장식

앞길, 뒷길, 소매, 한삼에 용문 금박으로 장식한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황원삼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89>, <그림 90>와 같다.



<그림 89> 황원삼 재현 작품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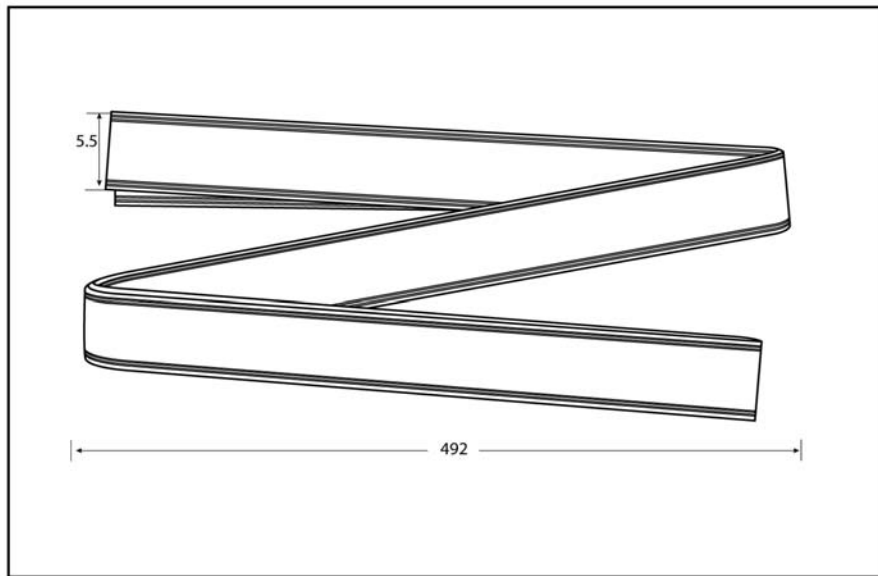


<그림 90> 황원삼 재현 작품 (뒤)

(2) 황원삼 대대

① 도식화

황원삼 대대 제작을 위한 도식화는 <그림 91>와 같다.



<그림 91> 황원삼 대대 도식화

(2) 소재 및 치수

황원삼 대대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공단이고 각 치수는 <표 22>와 같다.

<표 22> 황원삼 대대 소재 및 치수

황원삼 대대		
구성	겹	
색상	홍(紅)색	
소재	공단(silk)	
원단소요량	길이 110cm 폭 52.5cm	
치수 (cm)	너비	5.5
	길이	354
	고름 너비 × 길이	1.5 × 28

③ 마름질 방법

홍색의 공단으로 대대 길이 354cm, 너비 5.5cm를 시접 1cm를 포함하여 2장 마른다.

④ 제작 방법

심감을 대어서 시침하고 바느질 하여 중앙지점에서 뒤집어 공그르기 한다. 안쪽에 짧은 고름너비 1.5cm, 길이 28cm로 2장 만들어서 중앙지점에서 86cm 지점의 양쪽에 단다.

완성된 대대에 봉문을 부금하여 장식한다.

⑤ 완성 작품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순정효황후의 황원삼 대대 유물을 재현 제작한 작품은 <그림 92>와 같다.



<그림 92> 황원삼 대대 재현 작품

## 9. 왕비의 상복(홍원삼)

홍원삼은 왕비가 예복으로 착용하던 겹옷으로, 현재 전해지는 왕실의 홍원삼 유물은 세종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순정효황후의 동궁비원삼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영친왕비 홍원삼이 있다. 영친왕비 홍원삼은 단(緞)과 사(絲)로 지은 홍원삼이 각각 있는데 단(緞)으로 지은 홍원삼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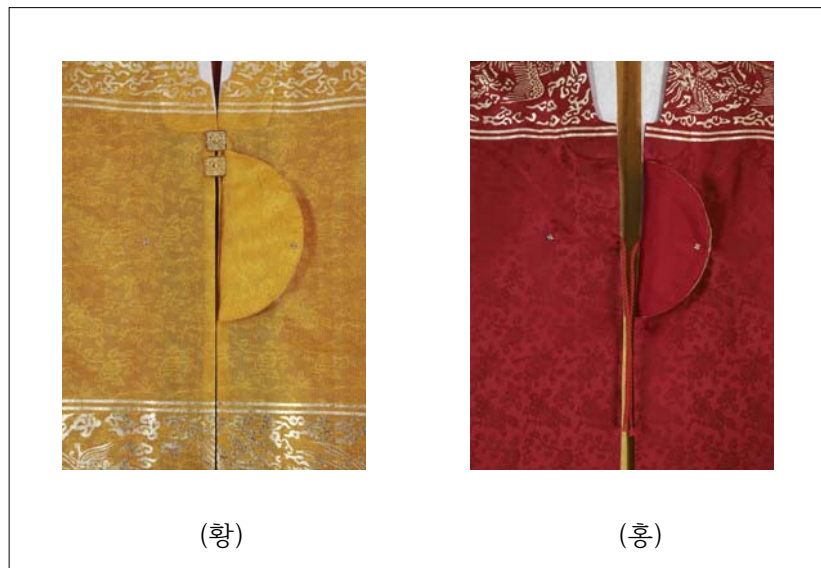
홍원삼은 황원삼과 형태가 비슷하나 유물의 치수와, 문양, 배색에서 차이를 보이며, 재단은 길과 색동의 배색, 치수를 참고하여 황원삼과 마름질을 같게 하였다.

제작방법에서는 황원삼과 보를 다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홍원삼은 겹으로 만들며, 양 옆은 진동점에서 2.5cm 내려온 지점부터 트여있으며 앞길이가 114cm, 뒷길이가 150cm으로 36cm 차이의 전단후장형이다. 화장은 132m, 품은 45cm, 수구 71cm, 수구상단으로부터 19cm아래로 박쥐매듭을 달았다. 소매 끝에는 너비 5.5cm의 황색, 남색의 색동이 달리고, 이어서 너비 25cm의 백색의 한삼이 달려 있다. 배래부분의 4겹박기 바느질 방법은 황원삼과 같다. 홍원삼에는 색상만 다른 너비 7cm의 문단으로 선을 대었는데 황원삼과 달리 안감과 겹감 모두 단을 두른 것이 아니라 겹감 쪽은 단을 두르지 않고, 안감 쪽에만 단을 들렸다. 밑단 부분에서 약간 바깥방향으로 곡선을 이루고 있다. 깃은 좌우 맞깃형태로 만들었으며 가장자리는 재봉틀로 눌러 박았다. 안깃은 각지게 만들어 공그르기로 고정하였다. 겹감과 같은 원단으로 대대고리를 길이 88.5cm, 1.5cm로 만들어 접어서 7.5cm부분을 고정한 후, 남은 끈은 앞쪽 38.5cm, 뒤쪽 35cm 길이로 하여 몸판에 고정한다. 단추는 오른쪽에 달고 단추 고리는 왼쪽에 단다.

보는 18.5cm로 원단위에 심지를 대어 시침하여 바느질을 한 후, 겹쪽에서 흠질을 해서 보의 크기대로 원에 맞추어 당기며 다림질을 한다. 보의 뒷면

에는 국사원단에 같은 바느질방법으로 만들어 겹감과 안감을 함께 시침 한 후 바느질을 한다. 보는 만들어서 양쪽 어깨에는 고대 0.7cm에 양쪽으로 두 장을 달고 뒤쪽에는 16.5cm 아래 지점에 1장 달고 앞쪽은 깃 아래지점에 1장을 단다. 보가 달릴 위치는 고대에서 양쪽으로 0.7cm, 뒷고대 중심점에서 16.5cm 내려간 지점에 달고 견사를 뿜아 만든 너비 3cm, 길이 17cm의 보 끈이 입어서 오른쪽 깃 끝에서 10cm 내려온 곳에 달린다. 황원삼의 보는 보 끈이 달리지 않으며 사각형의 단추를 단다. 전면의 보는 입을 강태에서 좌측의 중심을 바느질로 고정해주고 다시 중앙에 다홍색 끈을 달아주었다. 이와 반대쪽 마주보는 도련 선에도 같은 끈을 달려있다.



<그림 93> 원삼 보 대는 방법

홍원삼 겹감은 홍색의 운봉문단, 안감은 원형수(壽)자와 박쥐가 시문된 황색의 수복문단으로 제작되었으며, 안감의 안단 둘레에는 같은 문양 남색수복문단으로 선을 둘렀다. 깃도 홍색의 수복문단으로 제작되었다. 소매 전체에 이어지는 모란과 보상화는 이어 붙인 것이 아니라 백·청·황의 순서로

경사를 곁고 수자직으로 직조하면서 편금사(片金絲)로 문양을 직금한 것이다. 원삼의 앞뒤 양어깨와 소매의 하단, 앞뒷길의 하단에는 운봉문이 직금되어 있다. 운봉금은 새끼봉황 7마리와 어미봉황 한 쌍으로 아홉 개의 봉황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구봉문은 자손만당(子孫滿堂)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재현한 홍원삼의 작품은 <그림 94>, <그림 95>이다.

대대는 원삼 대대로 청색에 운봉문을 부금하여 만들며 너비 5.5cm 대대길이 354cm를 심감에 대어 시침한 후 바느질을 중앙지점에서 뒤집어 공그르기 바느질을 한다. 대대의 치수는 영친왕비 홍색 봉대를 참고하였다. 마름질하는 방법과 제작방법이 황원삼 대대와 동일하다. 재현한 홍원삼 대대 작품은 <그림 96>이다.



<그림 94> 홍원삼 재현 작품 (앞)



<그림 95> 홍원삼 재현 작품 (뒤)



<그림 96> 홍원삼 대대 재현 작품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착용되어진 홍룡포, 구등적의, 홍원삼보다 후에 나타난 황제나 황후의 의복이 먼저 서술되어진 것은 시기별에 따른 바느질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왕의 대례복인 십이장복은 유물이 없으므로 구장복과 바느질 방법 비교가 불가능하다. 왕의 조복인 강사포도 현존 유물이 없으므로 바느질 방법을 알 수 없다. 왕의 상복인 황룡포와 홍룡포는 겹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나, 황룡포는 단령 겹감과 직령인 안감으로 구성되어 안깃 위치까지 분리되고 나머지 섯선 솔기선은 꿰매어져 있으며 아래쪽 부분은 떨어져 있어 배래선은 안과 겹을 징귀 겹으로 만들었다. 홍룡포는 황룡포와 다르게 뒷길, 무, 섯이 안감과 겹감이 함께 봉제되어 4겹바느질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배래는 안감과 겹감이 따로 바느질 되어 있다.

왕비의 대례복인 십이등적의와 구등적의의 섯과 도련단을 두루는 방법을 제외하고 바느질 방법은 같다. 섯에서 십이등적의는 앞섯의 적문이 앞섯이 달린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을 향하며 구등적의는 앞섯의 적문이 앞섯이 달린 길이 적문 방향과 마주 향한다. 도련단은 십이등적의는 겹에만 단을 대지만 구등적의는 도련 안에도 단을 낸다. 왕비의 상복인 황원삼과 홍원삼은 선단과 보를 다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선단은 홍원삼의 경우 황원삼과 달리 안감과 겹감 모두 단을 두른 것이 아니라 겹감 쪽은 단을 두르지 않고, 안감 쪽에만 단을 둘렀다. 황원삼 보는 여밈은 단추로 앞길 중앙의 보 바로 위에 사각형의 금단추가 달려 있다. 홍원삼 보는 끈을 오른쪽 깃 끝 10cm 아래 달며 전면의 보는 입은 상태에서 좌측의 중심을 바느질로 고정해주고 다시 중앙에 다홍색 끈을 달아주었다. 이와 반대쪽 마주보는 도련선에도 같은 끈을 달았다.

왕과 왕비의 유물을 통하여 황제와 황후의 의복은 장문의 숫자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졌고 왕과 왕비의 의복이 장문의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진 것으로 보아 계급에 따라 옷에 나타나는 문양이나 색상으로 신분을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3>와 같이 나타난다.

<표 23> 곤룡포, 적의, 원삼의 바느질 방법 특징

구분	의복	특징	사진
곤룡포	황룡포	겉감과 안감의 솔기를 함께 박아 겹으로 만들었다. 시접이 겉감과 안감 사이에 들어간다.	
	홍룡포	겉감과 안감을 따로 바느질하여 겉감 안에 안감을 끼워 넣어 정귀서 겹으로 만들었다.	
적의	십이등적의	앞섶의 적문이 앞섶이 달린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을 향한다. 도련단은 겉에만 단을 낸다.	
	구등적의	앞섶의 적문이 앞섶이 달린 길이 적문 방향과 마주 향한다. 도련단에 안단을 연결한다.	
원삼	황원삼	보는 단추로 단다. 선단은 겉감 쪽은 두르지 않고 안감 쪽에만 두른다.	
	홍원삼	보는 끈으로 단다 선단은 겉감 쪽과 안감 쪽 모두 두른다.	

## IV. 결론 및 제언

조선시대의 복식은 우리 고유의 복식과 중국 복식의 이중구조 속에서 변화되는 특징을 갖으며, 착용자의 신분, 연령, 성별에 따라서 형태, 색상, 소재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왕실 사람들의 복식은 신분을 구별하고 권위(權威)와 위의(威儀)를 표현하며 당대의 복식문화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 중시했던 상징과 문화, 역사적 의미 등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왕실의 복식 중 최고의 신분인 왕과 왕비의 복식은 우리 문화의 가장 정제된 궁중 복식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자료들의 나열보다 실제 제작을 통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 조선시대 왕실 복식 연구의 일환으로 국속화·법제화된 형태로서 비교적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에 대해 정리하고, 실물제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의 제작구성방법을 재정립하며, 전체적인 한국의복구성의 기술 축적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연구로서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명으로부터의 복식사여 및 국속화 과정, 조선시대 왕·왕비 복식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는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표방함과 동시에 정치적 지도이념으로 삼았으며, 뚜렷한 신분질서를 갖는 사회였다. 조선초기의 외교 관계는 명에 대한 사대와 여진, 왜구에 대한 교린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의 외교형태는 문물 교류의 성격을 띠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대교린정책을 외교의 기본정책으로 하여 펴 갔던 대외관계는 명에게는 사대의 예를 다하면서도 조선의 주체성은 상실하지 않은 채 유지하려고 하였으며, 같은 유교 문명국가로서

명에게 문화적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1897년 2월 고종이 환궁한 후 독립 협회와 일부 수구파가 연합하여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추진하여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쳤으며, 9월에는 원구단(圓丘壇)을 세웠고, 드디어 1897년 10월 12일 황제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연호를 ‘광무(光武)’라 칭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하며 500여 년간 사용해오던 국호인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대한제국’이란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은 중국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징표인 동시에 조선이 제후국이 아닌 자주 독립국임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국가제제도 황제체제로 개편되었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복식사여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왕, 왕비, 왕세자, 백관 등에게 이루어 졌다. 조선시대 왕의 면복은 태종 3년 명으로부터 처음 사여되었고 임진왜란 전까지 역대왕의 즉위마다 있어왔으며 선조 39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면복을 국속으로 제작하여 착용하였다. 왕의 조복은 세종 26년 때 명에서 받은 원유관과 강사포는 조선조 말까지 국왕이 조복으로 착용하였는데, 국말 고종황제 즉위 후 통천관을 원유관 대신 썼으며 강사포는 그대로 입었다. 왕의 상복은 면복과 달리 의례적으로 사여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곤룡포나 곤룡포 옷감의 사여는 세종 26년을 시작으로 명종대까지 총 7차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제작하여 착용하였으며 제식은 『국조오례의서례』, 『대명회전』, 『대한예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왕비 면복은 태종 3년 명으로부터 사여받았는데 명 군왕비례에 따른 것으로 대례복인 적의가 아닌 상복인 대삼이었다. 왕비복은 왕의 관복과 같이 혹은 왕비관복만을 왕의 즉위 초나 후 또는 왕비 책봉 시 고명과 같이 사여되었으며, 세종, 연산군, 인종을 제외한 각 왕조마다 있었다. 인조 3년에 왕비의 관복사여를 마지막으로 하여 이후에는 와비관복을 상의원(尙衣院)에서 만들어 입었다. 또한 명으로부터 사여 받은 왕비 관복 중에서 단삼(團衫)·오아(襖兒)·군(裙)은

상복에 속하는데 문종 즉위년 이후 선조 36년까지, 15차례 명조로부터 국왕 및 왕비 법복 사여 시 상복(常服)제가 포함되었다. 노의, 장삼 등 대의·대수에 속하는 것은 조선 왕조 후기 이후 원삼 한가지로 집약되었다고 보며 이 제도는 이미 신라시대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왕조에 와서도 여자의 예복으로 착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식·제도면에서 국속화되기도 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왕의 공식적인 복장은 만나는 대상자 또는 의식의 중요성에 따라 대례복·제복, 조복, 상복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대례복은 왕이나 왕세자, 왕세손이 면복이나 제복으로 사용하였던 왕권을 상징하는 법복(法服)으로 ‘곤면(袞冕)’이라고도 하였으며, 국가의 길례(吉禮), 가례(嘉禮), 흉례(凶禮) 등 다양한 의례에 착용되었다. 조복은 정월 초하루, 동짓날, 경축일이나 가례 때의 일부 의례에 참석할 때나 신하의 조현을 받을 때, 삭망(朔望), 조강(朝降), 진표(進表) 때에 착용하였으며, 대례복 다음가는 옷이라 할 수 있었다. 구성과 제도가 대례복과 동일하나, 붉은색 사(沙)로 만들고 장문이 없고 백말과 검은색 목화를 신었다는 점이 다르다. 상복인 곤룡포는 왕이 평상시 주로 입는 옷으로 여름에는 운문사(雲紋紗), 겨울에는 운문단(雲紋緞)으로 만들었으며, 곡령으로 오른쪽 어깨에서 단추를 끼워 고정 시켰다는 점이 특징이고, 왕을 상징하는 오조룡(五爪龍)무늬를 가슴, 등, 양어깨에 짜 넣었는데 용의 발가락의 수에 차이를 두어 그 옷을 입는 사람의 지위를 드러냈으며, 이로써 왕복, 세자복, 세손복을 구별하였다. 왕비의 대례복인 적의는 법복(法服)으로 가례의 절차 중에서 책비(冊妃), 친영(親迎), 동뢰연(同牢宴)을 행할 때 입었다. 조선시대 최고 신분의 여성을 상징하는 복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하신분이 뚜렷한 계급사회에서 그들의 신분적 위치와 권위의 상징으로 표상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적의는 크게 초기 명에 의한 사여관복의 대삼 배자제와 영조 때 국속화시킨 적의제, 그리고 대한제국 성

립 후 왕비가 황후로 승격되면서 제도화된 황후 적의제로 나눌 수 있다. 왕비의 상복으로서 노의는 조선시대 전후기를 통하여 원삼 이상으로 중시되었던 예복으로 길례, 가례 시에 착용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 초기까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신분의 구분 없이 착용되어지다가 점차 의례화되어 홍색의 원적무늬가 금박으로 놓여져 있었고 상궁이하는 착용하지 못하였다. 장삼은 중국계 포의(袍衣)의 하나로 4품 이상 정처(正妻)의 예복으로 착용되어 왔고, 원삼과 비슷한 모양이나 소매나 옷 길이가 짧았다고 한다. 원삼은 조선시대 후기 이후 노의·장삼 등이 원삼 한가지로 집약되면서 더욱 중요된 의복으로 대표적인 여성의 상복이다. 대금형(對衿形)의 맞깃이며 뒷길이 앞길보다 긴 전단후장(前短後長)이 대부분이고, 길이가 바닥까지 이르는 긴 포의 형태를 하고 있다.

위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의 재현 제작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의 대례복인 면복(冕服)의 현의는 흑색의 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길이 119cm, 화장 96.5cm, 품 48cm, 진동 21.5cm, 고대 17.5cm, 소매너비 63cm, 수구 22cm에는 박쥐매듭 단추를 달아주었다. 수구·쇳선·밑단에 너비 8.5cm의 흑색의 밑단을 안으로 들렀고, 순인갑사로 된 65.5cm의 흰색 동정을 달았다. 어깨바대와 겨드랑이 바대를 부착하고 겨드랑이 사이에 길고 좁은 끈을 달았다. 술기 바느질은 곱술식으로 접어 받음질 하고, 배래는 통술 바느질 하였다. 뒷고대 중심에서 23.5cm 내려온 부분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17cm 나아간 부분까지 단추고리를 달았다. 중단은 청색 순인으로 만들었으며, 홉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는 124cm로 현의보다 길다. 소매너비는 62cm로 겹보다 1cm 작게 하여 수구는 같은 위치에서 실로 고정하였고 수구 밑은 바느질로 막았다. 현의와 같이 수구·쇳선·밑단에 흑색 선을 대었고 흑색 고름이 달았다. 상은 앞의 3쪽과 뒤의 4쪽을 따로 만들어 하나의

허리맡기에 이어 붙였으며, 폐슬은 세로로 긴 사각형으로 단과 비를 대어 주고 위쪽 가장자리에 고리를 달았다. 십이장복은 문헌 기록과 구장복 유물을 참고하여 추정 제작한 것으로 현의와 중단의 제작은 구장복과 동일하며 장문만 다르게 나타난다. 상의 형태는 구장복의 형태와 달라 걸안감을 만들어 연결한 후 허리에 연결하였다. 폐슬 제작법은 구장복과 동일하다. 상과 폐슬 역시 장문에서 구장복과 차이를 보인다.

둘째, 조복인 강사포는 현존 유물이 없는 관계로 면복과 동일하나 장문이 없다는 말에 근거하여 구장복과 동일한 치수, 마름질, 바느질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포는 강라(絳羅)로 만들며 구장복과 다르게 장문이 없으며 끝은 깃 형태이다. 유물이 없으므로 재현 제작 시 구장복의 현의의 치수를 참고하며 깃만 제외하고 마름질 방법과 제작 방법이 동일하다. 중단은 은색 라이며 깃, 도련, 소매 끝에 붉은색 단을 달았으며, 상과 폐슬도 강라로 만들며 구장복의 상과 폐슬 형태가 같아 치수 및 제작 방법이 동일하다.

셋째, 황룡포는 황색 운보문사 단령 걸감과 다홍색 운보문사로 만든 직령인 안감으로 구성되어 안깃 위치까지 분리되고 나머지 섯선 솔기선은 꿰매어져 있으며 아래쪽 부분은 떨어져 있어 배래선은 안과 겉을 징귀 겹으로 만들었다. 걸고름은 걸섯부분에 보와 나란한 위치에 달려 있으며 다홍색의 안감의 고름으로 인해 황색과 홍색의 쌍고름으로 달려 있고 동정은 다홍색 은조사를 사용하였다. 보는 지름이 19cm이며 오조룡보를 양 어깨와 가슴, 등에 총 4점이 부착되어 있다. 홍룡포는 걸감인 홍색 운보문사 단령과 안감인 남색 운보문사 직령이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정은 옥색 숙고사이다. 감과 안감을 각각 홀으로 만든 후 징귀 겹으로 만든 형태이며 단을 맞대어 도련과 섯선을 따라 고정하였다.

넷째, 황후의 십이등적의는 청색에 적문과 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오얏꽃으로 국속화된 이화문이 수놓아진 문단을 사용하여 홀으로 제작되었으며, 앞면의 좌우가 서로 마주 대하여 곧게 내려가 여미어지지 않고, 섯의 적문이 길의 적문과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깃 부분과 도련, 수구에는 9.5cm의 홍단(紅短)에 용과 구름을 직금으로 제작한 직금운용문(織金雲龍文)이 둘러져 있으며 사이사이에 불꽃을 상징하는 화염문(火焰文)이 장식되어 있다. 안단선은 무늬가 없는 홍색명주로 대어 주었고 아래 도련에는 가선 부분이 없다. 중단은 은색의 무문견(無紋絹)으로 홀으로 만들며, 깃·도련·소매 끝에는 홍색의 단 8.5cm 너비로 선을 두르는데, 아래도련에는 거죽에만 둘러 있다. 폐슬 유물은 하단으로 갈수록 약간 넓어지는 직사각형이며 청색 단에 홍색의 단을 둘러다. 하피는 짙은 자색 무문단에 연분홍색 주로 된 안을 넣어 만들었다. 구등적의는 적의의 형태와 마름질, 제작방법은 도련단 두르는 방법을 제외하고 십이등적의와 같으며 크기가 다르고, 섯과 길의 적문이 마주 향하는 점이 달라 직조된 천의 방향을 주의하여 섯을 단다. 십이등적의는 도련에서 거죽에만 단을 대는데, 구등적의 중단은 옷의 겉쪽에 홍색 단을 올려놓고 시침하여 바느질 한 후, 연결된 홍색 단을 안쪽으로 접어 넘겨 단 정리하고 시침하여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하였다.

다섯째, 황원삼의 겉감은 황색단에 남색으로 단을 대며, 안감은 홍색 비단으로 색동선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끝부분에 남색 비단선을 둘러 주었다. 남색선은 안감의 도련에도 대어주었으며, 소매배래 부분이 간소화된 왕실바느질법으로 4겹으로 바느질되어 있다. 겹으로 된 원삼이지만 겉과 안을 따로 바느질 하였으며, 깃은 겉깃의 경우 직금단을 이용하여 깃도련이 둥글게 굴러진 배자형 맞깃을 겹으로 달고, 안깃은 안감과 동일한 소재로 목판깃을 달았으며, 위에 안감과 같은 옷간의 흰색 동정을 달았다. 여밈은 고름이 아닌 단추로 앞길 중앙의 보 바로 위에 달았다. 겉과 안을 완성하여 겉감 안

에 안감을 끼운 후 도련선은 공그르기, 배래는 징귀서 고정하였다. 겹감과 안감의 도련마다 남색의 비단으로 선이 둘러져 있으며 안깃 아래와 진동선 위부터 대어주었다. 홍원삼의 제작방법은 황원삼과 동일하나 단을 두른 모양에서 차이가 나는데 황원삼과 달리 홍원삼은 안감과 겹감 모두 단을 두른 것이 아니라 겹감 쪽은 단을 두르지 않고, 안감 쪽에만 단을 둘러었다. 또한 여밈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황원삼이 단추를 이용해 앞을 여몄던 반면 홍원삼은 견사를 꼬아 만든 보 끈을 양쪽에 달아 여민 것이 다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조선시대 말기 왕·왕비 복식을 재현 제작함으로써 조선시대 말기 왕과 왕비 복식의 제작구성방법을 정리하고 익힐 수 있었으며, 구조적인 형태와 함께 보다 정확히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체계적인 한국의복구성의 기술 축적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심층적인 과거 복식 문화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초단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와 미래 패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복식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한 방법이 고유의 문화를 재정립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한국 복식사 및 한국의복구성 연구의 발전과 더불어 복식사와 구성을 필수적으로 겸비하여 복식의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장식까지 복식 생산 전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패션 디자인의 영감의 출처로 사용되어질 것이라 생각되며, 추후 더 많은 품목의 시대 복식에 대한 연구와 재현 연구를 통해 미래 한국복식뿐만 아니라 현대 복식에의 응용을 통해 새로운 패션 모드 창조에 활용되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서]

- 『高麗史』
- 『國朝續五禮儀補序禮』
- 『國朝五禮儀序例』
- 『國婚定例序』
- 『大韓禮典』
- 『大明會典』
- 『明宗實錄』
- 『文宗實錄』
- 『三國遺事』
- 『宣祖實錄』
- 『世宗實錄』
- 『五祖實錄』
- 『遼儀衛志』
- 『中宗實錄』
- 『增補文獻備考』
- 『太宗實錄』

### [단행본]

- 고광림(1990), 한국의 관복, 화성사.
- \_\_\_\_\_ (1990), 조선의 관복-면복에 관한 연구, 지성사.
-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

- \_\_\_\_\_ (2010), 대한제국: 100년 전의 기억, 그래픽네트.
- \_\_\_\_\_ (2011), 왕실복식적의 학술심포지엄, 국립고궁박물관.
- \_\_\_\_\_ (2012), 왕실문화도감 조선왕실복식, 국립고궁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1994), 한국사25-조선초가의 사회와 신분구조, 국사편찬위원회.
- 궁중유물전시관(1999), 『朝鮮朝後期宮中服飾』.
- 권오창(1998),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현암사.
- 금기숙(1998),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 김성우(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 김영숙(1987), 조선말기 왕실복식,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 \_\_\_\_\_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 김필동(1999), 차별과 연대-조선사회 신분과 조직, 문학과 지성사.
- 류희경 외(2001), 우리옷 이천년, 미술문화.
-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2-복식 자수 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_\_\_\_\_ (2007), 조선조왕실복식, 문화재청
- \_\_\_\_\_ (2012), 월간문화재 6월호 Vol.333, 문화재청.
- 백애현(2007), 아름다운 우리옷, 죽심.
- 백영자(1993), 한국의 복식, 경춘사.
- 백영자·최해울(2004), 한국복식의 역사, 경춘사.
- 신명호(2002), 조선왕실문화와 생활궁중문화, 돌베개.
- 안명숙·김용서(2006), 한국복식사, 예학사.
- 안휘준(1980), 한국회화사, 일지사.
- 안휘준(2000), 한국회화의 이해, 시공사.
-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례복식, 수학사.
- \_\_\_\_\_ (1998), 한국복식사, 수학사.

유효순·최해율(2000), 복식문화사, 신광출판사.

유희경·김문자(2006),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유홍준(2013),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3. 놀와.

이순홍(1992), 韓國傳統婚姻考, 학연문화사.

이정규(1996), 한국법제사, 국학자료원.

임명미(1996), 한국의 복식문화 I, 경춘사.

임명미(1997), 한국의 복식문화II, 경춘사.

황의숙 외(2010), 아름다운 한국복식, 수학사.

한국고문서학회(2006), 조선시대 생활사3 :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한국학중앙연구원(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주 외(2009), 조선의 국가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 [학위논문]

강지수(2013), 조선시대 궁중의례 두식에 관한 연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곽경희(2013), 조선시대 후기 궁중 어린이복식에 관한 연구 및 재현 : 영친왕 길가 중 진황자와 구왕자의 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남옥(2000), 조선시대 복식 변천에 나타난 동조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권혜진(2009), 활옷의 역사와 조형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미(2011). 조선 말기 적의 일습에 관한 고찰 및 제작,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1994), 한국과 중국의 끈면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수정(2008), 조선시대 궁중복식에 나타난 천연염색 연구,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자(2002), 조선왕조 왕세자빈 적의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규(2010), 朝鮮時代 婚禮儀式에 관한 研究: 女子婚禮服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2003), 기호학적 접근을 통한 복식표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정순(2010), 근세 한일 남자 포의 조형적 특성 비교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진훈(2005), 麗末鮮初 奴婢政策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혜성(2005), 한국과 중국의 전통혼례복식에 관한연구: 18-20세기 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종숙(2006),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미용문화의 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엄정옥(2011), 조선왕조 親蠶儀禮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순덕(2010), 우리나라 떡의 재료 및 조리방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조선시대 떡의 종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희경(1972), 면복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면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규철(2013), 조선초기의 대외정벌과 대명의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미연(2007), 영화의상에 나타난 미적 상징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주(1999), 조선시대 책례의에 나타난 의식절차와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민희(2014), 조선시대 왕비 적의 문양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자(2004), 조선시대 궁중 두식에 관한 고찰 및 재현 : 영왕비 대수를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선(2004), 조선왕조 왕비적의에 관한 연구와 복원제작,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진(2010), 조선시대 궁궐복식에 나타난 배색특성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현주(2011), 조선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영기(2012), 조선시대 궁궐 정전, 편전의 기능과 변화,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선미(1980), 조선왕조시대의 초상화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유희(2009), 조선후기 실학자의 음악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은조(2007), 조선시대 천제와 음악의 전개양상 연구: 원구제복원을 상정하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연주(2008), 조선시대 곤룡포의 착용례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수(2004),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학회지논문]

고광림(1973), 冕服에 關한 研究, 경인교육대학교 논문집, 7.

김중숙, 고부자(2008), 朝鮮時代 袞龍袍 연구. 복식문화연구, 16(5).

- 김명숙(1983), 조선후기 면복의 변천: 국장도감의례 복완도설을 통한 고찰, 7(-).
- \_\_\_\_\_ (1984), 朝鮮時代 妃嬪 長衫 및 繡甫老의 一考察, 의류학회지, 8(3).
- 김소현(2003), 상방정례로 보는 조선왕실의 복식구조:착용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지, 58(3) p.150.
- 김소현, 안인실, 장정윤(2007), 조선시대 적의의 용례와 제작에 대한 고찰, 한국복식학회지, 57(6).
- 김중수(2002), 조선시대 궁중연향 고찰 : 進宴을 중심으로, 한국공연예술연구 논문선집, 6(-).
- 김혜영(1997), 기녀복식을 중심으로 본 조선후기 여성 복식의 연구, 培材大學校 培材論叢, 2(-).
- 도주연, 권영숙(2000), 조선시대 남자복식에 표현된 선의 미, 복식문화연구. 27(-).
- \_\_\_\_\_ (2001), 조선시대 남자 포제에 나타난 복식이미지: 남자 포제 이미지 구성 요인 및 유행벼르 시기별 복식이미지, 의류학회지, 25(-).
- 박성실(1985), 翟衣制度의 變遷 研究, 한국복식학회지, 9(-).
- 박승원(2013), 조선시대 복식유물의 복원과 복제, 동원학술논문집, 14(-).
- 박인수(2001), 조선시대의 규범과 신분제도, 영남법학, 7(1-2).
- 박희정·간호섭(2001), 조선시대 궁중가례복식 중 왕비복을 응용한 현대복식 DESIGN 연구 : 적의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디자인포럼 21, 4(-).
- 송지원(2011), 정조대 의례 정비와 춘관통고 편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38(-), p.150.
- 신순자(2002), 조선왕조시대의 여자 복식 중 궁중예복에 관한 고찰, 경원전문대학, 24(27).

- 유송옥, 성희진, 김경실(1998),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조명: 전통 궁중가례복식 재현- 고종명성후 가례복식 고증,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1(-).
- 이성무(1976), 조선전기의 신분제도, 동아문화, (13).
- \_\_\_\_\_ (2006), 조선시대 신분구성과 그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39(-).
- 이수미(2006), 경기전 태조 어진의 조형적 특징과 봉안의 의미, 미술사학보, (26).
- 이영아(2013), 조선시대 여성의 이미지 변화 과정 연구, 동양예술, (22).
- 이은주, 박가영(2007), 조선시대 궁중의례 재현행사를 위한 고증복식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궁중의례 재현사업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20(2).
- 이주영, 권영숙(2000), 조선시대 직령제도: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25(-).
- 이희병(2006), 조선시대의 무용사적 시대구분에 관한 고찰, 공연문화연구학술지, 13(-).
- 임상임, 임영주(1997), 적의에 관한 소고, 원광대학교 논문집, 19(-).
- 임용한(2002), 『經濟六典』의 편찬기구: 檢詳條例司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학술지, 23(-).
- \_\_\_\_\_ (2002), 조선 초기 儀禮詳定所의 운영과 기능, 실학사상연구학술지, 24(-).
- 전지은, 심화진(2001), 우리 나라 복식과 서역복식간의 공통성에 관한 연구-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5(4).
- 진희권(2006),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한 일고찰, 경기행정론집학술지, (20).
- 홍나영(1983), 조선왕조의 왕비법복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7).
- 홍순민(2005), 조선시대 국왕의 복식, 역사비평, (73).

[기타]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국립고궁박물관, <http://www.gogung.go.kr>.

한국궁중복식연구원 <http://www.royalcostume.net/>

# ABSTRACT

## A Study on Reproduction of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Bong-Yi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stumes are an important mean that represents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a wearer. Especially, in the hierarchical system, costume acts as a symbol of one's social status more. The Korean costumes had been changing in the dual structure composed of our traditional costumes and Chinese costumes until the Joseon Dynasty. Official uniforms were provid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to the decline of the Ming Dynasty. After the Ming Dynasty declined, official uniforms began to be manufactured in Korea.

Costumes of the royals separated social statuses, expressed authority and solemn manner, and represented the contemporary costume culture, implying culture, historical meanings, and symbols which have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the traditional society.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who are in the highest social status are the most refined flower of

the royal costume culture.

As a part of a research on the royal costumes in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pproach the localized and legislated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of the late Joseon Dynasty on which remains are relatively well preserved. Other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reestablish the reproduction method of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technology accumulation for the comprehensive composition of Korean costume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both direct indirect ways by visiting to museums, analyzing literatures and articles, and making reference to costume remains, photos, and portrai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direct and indirect ways that include observation and an analysis on literatures, respectively, past costumes were accurately reproduced as much as possible.

The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its late period are theoretically reviewed, the fact that the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were provided by the Ming Dynasty and their localization are studied, the types, compositions of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their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are identified.

Second, literatures, remains, photos, and drawings related to the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of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studied to select costumes to be reproduced. Kings and queens wore formal dresses by separating colors and patterns of costumes. The costumes of kings were divided into *myeonbok* (冕服), *jobok* (朝服), and *sangbok* (常服) by

use and type and the costumes of queens are composed of *beopbok* (法服) and *sangbok* (常服). Their structures, type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were identified.

Third, based on the result of the above study, the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reproduced.

The researcher reproduces reproducible costumes such as the full-dress uniform, *jobok*, *sangbok* of kings, *beopbok*, and *sangbok* of quee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using the sewing method. Their dimensions are directly measured, if remains still exist. If not, measurement data belonging to museums are referred. *Hyeonui*, *jungdan*, *sang*, and *pyesul* of *gujungbok* which is *myeonbok* of kings, are manufactured, referring to the Emperor Gojong's costume belonging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case of emperor's *sipijjangbok* on which remains does not exist, its *hyeonui*, *jungdan*, *sang*, and *pyesul* are manufactured by referring to relics of Emperor Gojong's *gujungbok* and photos of King Sunjong wearing it and a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Even though the remains of king's *jobok* does not exist, it is reproduced by confirming the portrait of Emperor Gojong and the photos of Emperor Gojong and King Sunjong and referring to the literatures including '*Gukjooryeui*' and '*Gukjosokoryeuibo*' indicating that *jobok* has the same drawing as king's *myeonbok* but does not have *jangmun*. In case of king's *sangbok*, *hwangryongpo* and *hongryongpo* are reproduced by referring to the relics of Emperor Gojong of the Sejong University Museum and the relics of King Youngchi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Jeokeui*, *jungdan*, *pyeseul*, *hapi*, and *dae* of queen's *beopbok* are manufactured by referring to *sipideungjeukeui* of Empress Sunjeong in the

Sejong University Museum and *gudeungjeokeui* of Queen Youngchin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n case of queen's *sangbok*, *hwangwonsam* and *hongwonsam* are reproduced by referring to the relics of Empress Sunjeong in the Sejong University Museum and the relics of Queen Youngchin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respectively.

Cloths used to reproduce costumes are obtained by purchasing them in fabric stores that reproduced their products based on the data of the above remains or by ordering custom-made cloths. Cloths on which colors and ingredients are most proper are selected. Using the prepared cloths, costumes are designed and cut based on necessary dimensions. After that, they are reproduced using sewing or a sewing machine, if necessary through traditional sewing methods such as broad-stitching, half backstitching, vertical hemming stitching, blindstitching, rolled hemming, and blinded top stitching, and the finished works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of the Joseon Dynasty, reviewing the localization of costumes which were provided by the Ming Dynasty, studying the types and compositions of king and queen's costumes, and reproducing them are as follows.

First, *gujangbok hyeoneui* of king's *myeonbok* is composed of a single black *suningapsa* and 8.5-centimeter-wide black hems are attached inside *sugu*, *seopseon*, and *mitdan*. A white *dongjeong* made of the same cloth is also attached. The seam is folded in double-stitching and backstitched, and the inseam is French seamed. *Jungdan* is one-layer blue *sunin*. Its length is longer than *hyeoneui* and the width of sleeves is smaller than

*hyeoneui*. As *hyeoneui*, black hems are attached on *sugu*, *seopseon*, and *mitdan*. A front three-*pok* and four-*pok* sang is attached on the end of the waist part. In case of *pyeseul*, long rectangular-shaped hems and *bi* are attached and a ring is hung on the top end. *Sipijangbok* is reproduced by referring to literature records and remains of *gujangbok*. It has different *jangmun* but same *jungdan* as *hyeoneui*. Its *sang* is different from *sang* of *gujangbok*, so that connected to the waist part with the upper and lining. The manufacturing method of *pyeseul* is same as *gujangbok*. *Jangmun* of *sang* and *pyeseul* are different from *gujangbok*.

Second, in case of *jobok*, *gangsapo* on which remains don't exist, based on the records indicating that it is same as *myeonbok* but does not have *jangmun*, it is manufactured using the same dimensions, cutting, and sewing methods as *gujangbok*. *Po* is made of *gangna* (絳羅) and has no *jangmun* but a straight collar unlike *gujangbok*. Since there are no remains, it is manufactured with the same dimensions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hyeoneui* of *gujangbok*, except the collar. In case of *jungdan*, red hems are attached at the end of collars, *doreyon*, and sleeves except of red hems, *jungdan* is made of silver silk(銀色 羅). Its *sang* and *pyeseul* are also made of *gangna* and manufactured with the same dimensions and manufacturing method *gujangbok*.

Third, *hwangryongpo* is made by cutting the *danryeong* upper made of yellow *unbomunsa* and the *jikryeong lining* made of scarlet *unbomunsa* and stitching their seams in multi layers. Its outer *goreum* are double, red and

yellow, and *dongjeong* is made of scarlet thin silk. *Ojoryongbo* is attached on shoulders, chest, and back. *Hongryongpo* is composed of multi-layers of the *danryeong* upper made of red *unbomunsa* and the *jikryeong lining* made of navy *unbomunsa*. Its *dongjeong* is made of pale blue-green *sukgosa*. Its upper and lining are made in a single layer then they are made in double layers by sewing. It is also fixed along *doryeon* and *seopseon* with a *seopseon* hem.

Fourth, empress's *sipideungjeokeui* is a single-layered blue cloth embroidered with *jeokmun* and *ihwamun*. Its front sides correspond to each other and *jeokmun* of *seop* towards the same direction as *jeokmun* of *gil*. Its collar, *doryeon*, and *sugu* are surrounded by *jikgeumunyongmun* (織金雲龍文) with 9.5-centimeter-wide red hems and are decorated with *hwayeommun* (火焰文). Red silk is attached on its lining and *doryeon* has no border. *Jungdan* is made of single-layered silver patternless silk and 8.5-centimeter-wide red hems are attached on the collar, *doryeon*, and sleeves. In case of *doryeon*, a hem is attached only on the surface. Rectangular *pyeseul* are surrounded with blue fabrics and red hems. *Hapi* is made by putting pale pink fabrics into purple *mumundan*. The shapes, cutting, and manufacturing methods of *gudeungjeokeui* are same as *sipideungjeokeui*, except the *doryeon* hem attaching method, but has different size. Since the facing direction of *jeokmun* of *seop* and *gil*, *seop* should be attached, paying attention to the direction of woven fabrics. In case of *sipideungjeokeui*, a hem is attached only on the surface of *doryeon*. However, hems are attached on both the upper and lining of *gudeungjeokeui*.

Fifth, *hwangwonsam* are made of the yellow upper and navy hems. Its red lining is connected to *saekdongseon* and its tip and *doryeon* is covered by navy hems. The inseam is four-layered sewed. It is multi-layered but its upper and lining are separately sewed. Multi-layered *baeja* facing collars are attached for the outer collar using *jikgeumdan* and the *mokpan*-collars made of the same fabric as the lining are attached for the inner collar. In addition, white *dongjeong* made of the same cloth as the lining is attached. A button is attached just on above the central *bo* of *apgil*. After putting the lining inside the upper, *doryeon* and inseam are fixed using blindstitching. The manufacturing method of *hongwonsam* is same as *hwangwonsam* except the shape of attached hems. Unlike *hwangwonsam* on which hems are attached on both the upper and lining, in case of *hongwonsam*, a hem is attached only on the lining.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 closure style; the closure of *hongwonsam* includes silk threaded *bo* strings on both sides whereas the closure of *hwangwonsam* is done with a button.

The study on reproduction of costumes of kings and queens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reconstruction method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oyal costumes.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ed a direction of technology accumulation for the comprehensive composition of Korean costumes.

In-depth consideration on the past costume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basic and necessary stage to create new fashion. To lead the contemporary and future fashion cultures, studies on the past costumes are required. Considering that one of ways to take the superior position in

competition in the global era is to reestablish and preserve the unique cultures, this study will be referred by those who are engaged in the fashion industry encompassing design and decoration 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fashion design. In addition, the study may be used to create new fashion modes of future Korean costumes and contemporary costumes through further researches.